



광고문의 02-2276-1190



춤추는 시간의 바다,
삼척

New for Spring



ARC'TERYX



034 이달의 여행

춤추는 시간의 바다, 삼척

바다를 품은 세 개의 길과 강원도 삼척의 역사가 서린 공간을 찾았다.
걸으며 만난 풍경은 모두 삼척의 시간이었다.



표지 이야기

강원도 삼척 바다

강원도 삼척항과 삼척해수욕장을 잇는 이사부길에는 유독 거북의 등껍질 같은 바위가 많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는 U자형의 골이 파여 있다. 그 틈으로 사정없이 파도가 몰아친다. 이제 막 도착한 삼척의 봄, 새 생명이 깨어나는 봄 바다는 거침없다. 큰바람이 일으킨 큰 파도. 기세 좋은 바람은 바위를 치고 깎으며 하얀 거품을 일으킨다. 그 위로 주홍빛 아침 햇살이 영롱하다. 정녕 봄이다.

aramco
powered by how

“매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전체 탄화수소 공급망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이 어떻게 모두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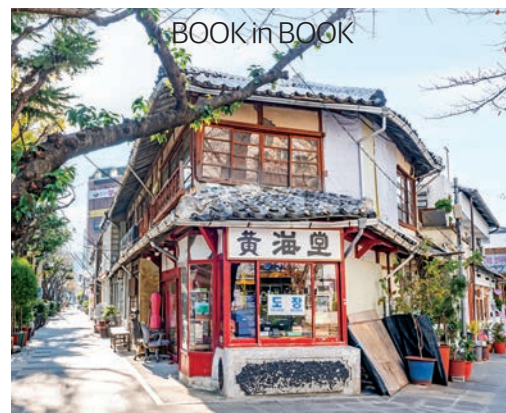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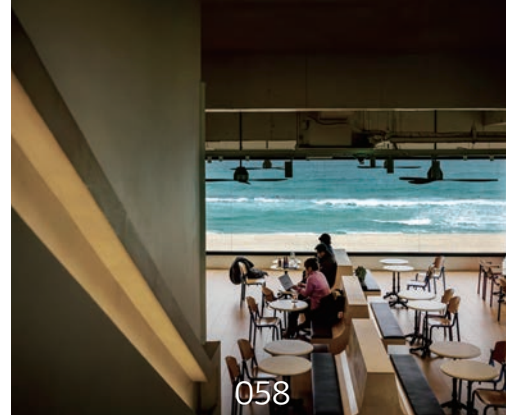
아람코의 에너지 공급 신뢰도가 가지는 영향력을 살펴보세요.



- 018 촬영지 여행
붉은 메밀꽃 필 무렵
로맨스 드라마 <호텔 캘리포니아>에 강원도 영월의 메밀밭이 담겼다.
- 020 즐겨찾기
고독, 감각을 깨우는 시간
휴대폰은 잠시 놓고, 서울 고독스테이에서 온전한 물입의 순간을 감각했다.
- 022 여행자의 물건
보습의 달인
메마르고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고 환하게 만들어 주는 뷰티 아이템을 골랐다.
- 024 전국 행사달력
3월의 축제·공연·전시 소식
봄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전국 곳곳의 행사를 모았다.
- 028 시절, 풍경
황홀한 찰나, 봄꽃 마중
전남 순천 송광사와 전남 구례 화엄사에서 봄꽃을 포착했다.
- 058 여행의 발견
지금 강릉, 다섯 개 키워드
안목해변, 임영로, 바다부채길 등 지금 강원도 강릉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으로 떠났다.
- 074 세계 기차 여행
포르투에서 떠나는 소도시 여행
낭만 가득한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운하 도시 아베이루와 줄무늬 마을 코스타노바를 기차로 여행했다.
- 090 함께 여행
모르는 의자가 말을 건다
소동호 디자이너와 함께 서울 길거리 의자를 새롭게 바라봤다.
- 114 인터뷰
성실하고 자유롭게 말충을 엮는 공예가, 정다혜
한국인 최초로 '로예베 재단 공예상'을 받은 말충공예가 정다혜를 대면했다.



made in CHANGWON
**창원을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바이브 넘치는 문화 예술 도시 경남 창원에서
특별한 공간과 사람을 발견했다.



서울우유 체다치즈

우리치즈하자



SEOULMILK Cheddar Sliced Cheese

서울우유 체다치즈 모델 지창욱

제조원/판매원 : 서울우유협동조합

- 122 전시 보러 갑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뿌리를 찾아서
대구를 넘어 한국의 근현대 미술 120년을 총망라한 대구미술관에 다녀왔다.
- 130 지역 생산자들
영월 마차리 어르신들의 사랑방, 위로약방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한 약과를 만드는 한은경 대표를 만났다.
- 140 시장 한바퀴
온기를 찾아서 - 언양알프스시장
쇠를 달구고 참기름을 짜는 울산 언양 오일장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 148 테마가 있는 골목 탐험
한남동, 달콤한 나들이
입맛과 눈길을 사로잡는 서울 한남동 수제 디저트 가게로 나섰다.
- 154 KTX타기 1시간 전
부전역, 부전동 너머 전포동으로
부산 부전을 떠나기 1시간 전,
마지막 발걸음을 찍을 곳으로 향했다.
- 160 지식 더하기
둔감해 보이는 사람의 비밀
타인을 위해 예민함을 드러내지 않는 HSP의 정체를 파헤쳤다.
- 162 트렌드 읽기
브랜드가 된 한국 콘텐츠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콘텐츠 마케팅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 164 이달의 선택
에디터가 추천하는 3월의 콘텐츠
파릇한 봄 내음을 풍기는 계절,
활기를 더할 3월의 콘텐츠를 선정했다.
- 176 플레이리스트
나상현씨밴드와 떠나는 음악 여행
일상에 행복을 전하는 나상현씨밴드가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을 추천했다.
- 168 코레일 소식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72 열차 이용 안내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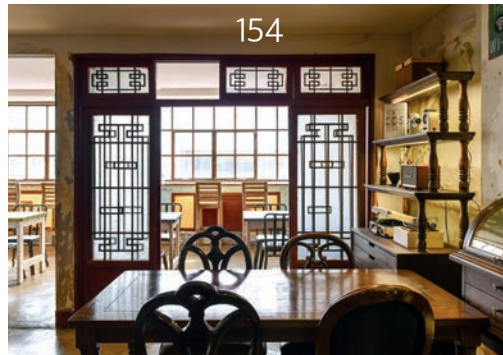
122



140



148



154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 자동 번역을 지원합니다.



visitguam_kr

Color of Guam

Dive into paradise,
Discover the island's unique charm



visitguam_kr



2025년 3월호

KTX M A G A Z I N E

제22권 제3호 통권 제249호
2025년 3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박정인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수석 기자 김수진 ksj@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신정원 정예지 이지혜 강은주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장은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마케팅 사업부 본부장 강태선 kenkkang@naver.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와 ITX-청춘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삼척시**

 제21회 삼척맹방유채꽃축제 

삼척유채꽃 축제

Samcheok Canola Flower Festival

2025. **4. 4.(금) ~ 4. 20.(일)** 17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주최·주관 삼척맹방유채꽃축제추진위원회



두 권의 책과 네 잔의 커피

영하 10도를 밀도는 추위가 마음까지 얼어붙게 한 2월 어느 날, 3월호 작업으로 분주한 편집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점잖은 목소리,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를 건넨 남성은 <KTX매거진> 1월호를 꼭 갖고 싶다며 여분의 1월호가 있다면 편집부를 방문해 받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벌써 2월호가 나와 KTX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던 그때, 저는 1월호는 물론 2월호도 드리겠다 약속했지요.

가루눈으로 시작한 눈이 함박눈으로 바뀌고, 서울 필동의 좁은 골목이 퐁퐁 얼어붙은 다음 날, 사무실을 방문한 그 분은 <KTX매거진> 두 권을 받아 들곤 기자들과 함께 마시라며 커피 네 잔을 주고 가셨습니다. 1월호의 무엇이 컵은 날씨에도 사무실을 찾게 했을까. 궁금증이 든 한편, 공들여 만든 매거진을 KTX에서 그냥 집어 갈 순 없었다는 그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중히 여기신 고운 마음에 기대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KTX매거진> 3월호를 만들었습니다.

이달의 가장 큰 목적지는 강원도의 두 도시, 삼척과 강릉입니다. 봄바람 따라 두근두근 마음이 요동치는 3월의 여행지로 동해만 한 곳은 없으니까요. 삼척에선 푸른 바다와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세 개의 해안 길을 걷고, 강릉에선 안목해변, 임영로, 바다부채길 등 지금 가장 돋보이는 다섯 곳을 찾았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로에베 재단 공예상을 받은 정다혜 작가를 만나 지금은 거의 사라진 말총공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강원도 영월 위로약방에서 어르신들과 쑥 약과를 만드는 한은경 대표에게선 함께 사는 행복과 나눔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가구 디자이너로 길거리 의자를 탐구하는 소동호 작가와는 오로지 의자에 집중해 서울 골목을 함께 걸었고, 버려진 후 오히려 새롭게 쓰임을 얻은 사물의 서사를 목격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 중 7할은 역시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이겠죠. 이달 <KTX매거진>에는 유독 개성 강한 음식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남동, 달콤한 나들이’에선 동서양의 차와 과자를 코스별로 맛보는 과자점과 수제 아이스크림에 다양한 술을 페어링하는 디지털 바 등 수준 높은 디저트 맛집을 소개했습니다. 부산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부전역, 부전동 너머 전포동으로’를 꼭 살펴보세요. 부드러운 채끝살에 특제 소스를 넣은 육회 물회, 대만 현지 맛을 그대로 재현한 우육탕면 등 다이어리에 꼭꼭 적어 놓고 싶은 맛집이 가득합니다.

3월, 드디어 봄이 오려나 봅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날 편집부를 찾은 그분도 <KTX매거진> 3월호를 보실 테지요. 정성껏 건네 주신 네 잔의 커피. 매거진을 열 권, 스무 권, 그 이상을 만드는 동안에도 따스한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편집장 최현주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wjdgpry

<KTX매거진> 표지에 컬러충남 서산에 있는 간월도로 여행을 떠났다. 썰물때 간월암으로 건너가는 길이 나타나는데, 그 길을 고양이도 지나갔다. 여러모로 타이밍이 좋은 날이었다. #간월도 #KTX매거진 #즉흥여행 #충남

@gureum_mini

강원도 강릉 가는 길에 <KTX매거진>을 발견했다. 거기서 내 고향대전도 만나고 지식까지 알차게 얻었다. 덕분에 한국수어의 세계에 잠시 발을 담고고 왔다. #내고향대전 #강릉여행 #KTX매거진 #한국수어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치민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본가를 갈 때는 늘 기차에 오른다. 좌석마다 잡지가 꽂혀 있어 긴 여행도 두렵지 않다. 이번 호에는 경북 포항의 물돌해변 사진과 QR코드로 연결되는 파도 영상이 인상적이었다. 지면으로 소리까지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정혜선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KTX매거진>은 출장길이 외롭지 않게 돕는 든든한 동반자다. 2월호에 실린 아티스트 효재의 괴산살이 인터뷰에서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찾았다. “나무 그늘과 산자락에서 느껴지는 우주적 쓸쓸함을 곁집어요.” 그의 답변을 한참 들여다봤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3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KTX@bandicom.com 기간 3월 11일까지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일로의 '데일리 반지갑'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 문의 02-2256-7901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2025년 신규회원모집

SONOROUS	NOBLIAN BLACK
대한민국 18개의 호텔&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멤버십 '소노러스'	실버, 골드, 로얄, 프레지덴셜 객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VIP 멤버십 '노블리안 블랙'

I. 창립혜택

4가지 유형의 혜택 중 하나의 회원이 택하실 수 있으며, 유형별로 '객실형' 6년간 30%, '종합형' 골프 2년간 최대 50%,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부형'은 워터파크&조식이 무료 제공됩니다.

II. 추가할인

사용가능 입회금 추가할인은 회원이 객실, 골프, 워터파크, 식음 등 전국의 주요시설 이용료를 '사용가능 입회금'으로 결제하시면 최대 30%(A상품 기준)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III. 계속되는 비전

썰비치남해가 2025년 7월 그랜드오픈 예정이며, 오는 10월 '경주'도 리뉴얼 오픈 예정입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멤버십은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를 통해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 썰비치 남해 2025년 7월 그랜드오픈 (예정)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시시오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썰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소노캄 고양 · 여수 · 거제 · 제주 · 경주(예정)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벨 천안 · 청송 · 변산 · 제주 · 단양 | 소노휴 양평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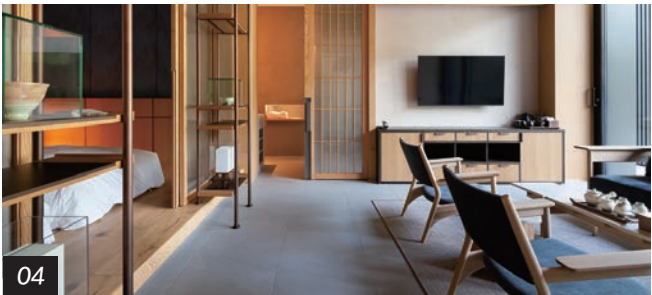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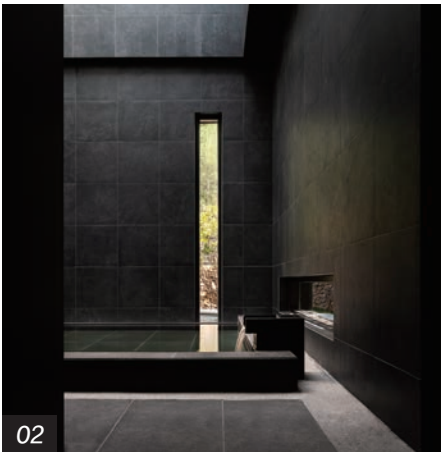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할인가 144만 원~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은,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항구의 소리

사람도 새도 분주한 항구의 아침, 고깃배가 지나간 자리에 갈매기 떼가 날아듭니다.
활기찬 항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QR코드를 찍으면 강원도 삼척 장호항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텔에서 자란 강희가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첫사랑 연수와 조우한다. 배우 이세영과 나인우가 출연하는 로맨스 드라마.



© 영랑고정

붉은 메밀꽃 필 무렵

인테리어 디자이너 강희는 의뢰인을 만나러 고향으로 내려간다. 메밀밭이 붉게 물드는 계절, 첫사랑 연수와 10년 만에 재회한다.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의 주인공 강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스무살이 되는 해에 혼자 서울로 떠난다. 강희가 어린 시절을 보낸 하나읍은 걱정한다는 핑계로 모진 말을 무자비하게 퍼붓는 어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 그곳을 벗어나는 날, 그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모텔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은 탓에 어쩔 수 없이 하나읍을 찾아가게 되고, 맞은편 차량에서 내린 첫사랑 연수와 마주친다. 둘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챈 회사 동료에게 첫 만남을 털어놓는데, 아홉 살 연수가 전학 온 날을 회상하는 강희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환하다. 그리고 주변을 감싸는 메밀꽃이 그의 미소를 더 아름답게 밝혀 준다. 둘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는 강원도 영월군 동강 변의 붉은 메밀꽃밭이다. 연인을 상징하는 메밀꽃이 피어날 때 강희와 연수가 재회한 건 단순한 우연일까. 메밀꽃은 10월 초쯤 만개하기 때문에 드라마 속 풍경을 지금은 볼 수 없다. “첫눈 열 번 먹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 연수는 강희의 말을 기억하고 오랜 시간 첫눈을 맞는다. 기다려야 만날 수 있고, 기다림 끝에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건 비단 메밀꽃만은 아닐 것이다.



드라마 ©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
제8회 천리포수목원 목련축제

소복소복 목련산책

3. 28. 금 ~ 4. 20. 일

목련 '맥신 메릴' *Magnolia 'Maxine Merrill'*

고독, 감각을 깨우는 시간



1

손에 들린 휴대폰을 잠시 멀리하자 그간 지나쳐 온 풍경과 소리, 감각이 하나씩 되살아난다.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순간, 진정한 나를 마주한다.



2



3



4

1 물입 공간 고요존.
2 고독스테이에서는
휴대폰을 세장에
가두어야 한다.
3 고독존에서
고요존으로 통하는
열쇠 모양 문.
4 물입을 돕는 '고독
키트' 실링 왁스를 녹여
편지를 봉인한다.

즐거찾기

EDITOR 신승희 • PHOTOGRAPHER 김은주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찾고 잠들기 직전까지 쇼츠에 빠져 하루를 소진하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멀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스스로 디지털 세상과 단절하기 어렵다면 '고독스테이'로 향하자. 고요한 명상 음악이 흐르고 이국적 향이 은은하게 퍼져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 입장에 앞서 중요한 규칙 하나, 세장 안에 휴대폰을 가두어야 한다. 고독의 시간 동안 집중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선택하는 '고독 처방전'까지 작성하면 고독에 접속할 준비가 끝난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들어서는 첫 번째 공간은 '고독존'. 차갑고 까끌까끌한 흙의 낯선 감촉이 맨발을 반긴다. 자연 속에서 몰입하는 감각을 건강한 고독이라고 생각한 김지영 대표는 동남아시아 같은 이국적인 숲 풍경을 재현했다. 좀 더 깊은 몰입과 가벼운 비움이 필요할 때는 두 번째 공간 '고요존'이 제격이다. 고요존으로 통하는 열쇠 모양 문은 몸을 구부정하게 해 옆으로 지나가면서 미소 짓게 한다. 커튼, 소파, 쿠션 등 모든 것이 하얀 고요존에는 아늑한 러그의 촉감이 맨발을 보드랍게 감싸 고독존에서와는 다른 느낌을 전한다. 온 몸을 휘감는 목직향, 튀어 오르는 물소리, 모래시계 속 모래가 떨어지는 모습까지.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느끼는 감각에 온전히 몰입할 뿐이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13길 22

LARI PITTMAN

래리 피트먼

Mirror & Metaphor

:거울과 은유

2025. 3. 18. (Tue) - 6. 15. (Sun)

전남도립미술관

Jeonnam Museum of Art

전남도립미술관
JEONNAM MUSEUM OF ART

전라남도
JeollaNampo

협력기관 LEHMANN MAUPIN



보습의 달인

메마르고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고 환하게.

1 피부 속 깊이 영양을 공급해 건강한 상태로 관리해 주는 **드링크 엘리펀트 원더마일드 미라클 버터**. 2 저온 추출한 티트리와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성분이 수분을 총총히 공급하는 **더페이스샵 티트리 토너 패드**. 3 비타민 C와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입술을 매끄럽게 만들어 주는 **프레시안 비타 앰플 립세린(비건)**. 4 이탈리아산 화이트 트라פל과 토코페롤 배합으로 속 탄력을 케어해 주는 **달바 화이트 트라פל 퍼스트 아로마틱 스프레이 세럼 8퍼센트**. 5 네 가지 멀티 비타민이 폭 자고 난 것 같은 피부를 만들어 주는 **벨리프 슈퍼 나이츠-멀티 비타민 마스크**.

문의 드링크 엘리펀트 080-564-7700 더페이스샵 080-023-7007 프레시안 1661-7887 벨리프 080-023-7007

새로운 오피스 지구로 떠오른 덕은지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서울 전체 오피스의 평균 공실률은 5.26퍼센트로, 전년 대비 0.2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서울을 대표하는 업무 지구인 여의도와 마포 일대 공실률은 3.72퍼센트로, 작년보다 0.3퍼센트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중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려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오피스 지구로 덕은지구가 주목받고 있다. 오피스를 구하는 기업들은 덕은지구가 마포, 여의도와 가깝다는 점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낀다. 덕은 지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에 속하지만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바로 옆에 자리한다. 자동차로 10분 정도면 마포에 닿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인접해 여의도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에는 업무와 주거, 상업 시설을 갖춘 ‘아이에스밸리’가 있다. 고양 덕은지구 5개 블록에 아이에스동서가 대규모로 조성한 수도권 복합 비즈니스 타운이다. 상암 DMC와 여의도, 마곡지구가 가깝고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마포, 여의도 등 서울 중심지에 오피스를 마련하려는 기업이 많은 만큼 아이에스밸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현재 80퍼센트 이상 분양된 상태이며, 오피스텔 분양은 100퍼센트 완료됐다. 이런 가운데 아이에스밸리 최종심에 자리한 덕은지구 6~10블록에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가 조성된다.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 10개 동으로 연면적 35만 제곱미터 규모를 자랑한다. 이는 63스퀘어보다 약 두 배 이상 크며, 지상 123층 높이의 롯데월드타워(약 32만 제곱미터)보다 연면적이 넓다. 가양대교를 통해 강변북로까지 자동차로 6분이면 도달하며, 올림픽대로까지는 8분 소요된다. 여의도와 마곡 등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 한강 전망에 편리하고 차별화된 시설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는 편리한 교통망과 아름다운 한강 전망, 세심한 내부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바로 앞에 한강이 있고, 도보권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 저렴한 분양가 & 세제 혜택,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최근 서울 오피스 공실을 감소로 수도권의 새 업무 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여의도, 마포와 인접한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다.

에 월드컵공원 등 여러 공원이 위치해 ‘한강숲 세관’을 자랑한다. 수생비오톱, 육생비오톱 등 각종 생물을 활용해 친환경 생태 공원을 조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그라스가든’과 한강이 보이는 옥상 정원(2·5층), 차를 마실 수 있는 휴게 공간 ‘티하우스’도 들어선다. 이 밖에도 내부 곳곳에 다양한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장식정원’과 ‘잔디마당’을 꾸밀 예정이다. 퇴근 후 여가와 체육 활동이 가능한 피트니스, 필라테스, GX룸 등도 마련한다. 특히 이러한 시설이 옥상 정원과 통하는 2층에 자리해 한강 변을 바라보며 운동할 수 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공간도 돋보인다. 단지 내에 대회의실과 중회의실, 오피스 라운지, 휴

게실 등 임직원 간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시설이 다수 자리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스튜디오 공간도 조성한다. 최근 유튜브 등 스트리밍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방송 및 영상 촬영에 적합한 구조라는 평가다.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 한은코 본부장은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 비즈니스 시설의 경우 현재 6·7블록 일부 잔여 세대만 남아 있다”며 “계약자에게는 현재 계약금 지원금 5퍼센트 및 계약금 5퍼센트, 중도금 전액 무이자, 전 호실 테라스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제조업, IT, 지식 기반 산업 등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특히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1666-4394(한은코 본부장)



김윤신, '미상의 나무', 1984년, 나무조각, 145×38×35cm



최성숙, '뒷모습의 여인', 1982년, 화선지, 먹, 동양화 채색, 82×57cm

EXHIBITION

〈빛나는 여백: 한국 근현대 여성 미술가들〉

대전 01.17~04.06

여성과 예술의 관계는 새로운 문물의 도입, 도시화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아 복잡하게 변해 왔다. 혼란과 격동의 시대에 전통을 계승하거나 서양 화법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한 11명의 예술가를 만난다. 전시는 세 공간으로 나눠 작가와 작품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먼저 2전시장은 금동원, 나희균, 박인경, 천경자의 그림으로 꾸렸다. 고암 이응노의 동반자로 가장 가까이에서 교류한 박인경의 수묵화 '우박'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3전시장에는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참여 작가로 선정된 조각가 김윤신의 '소나무'와 '미상의 나무'가 있다.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시도가 돋보이는 문은희, 심경자, 최성숙의 작품과 함께 한국 여성 미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엿볼 기회다. 4전시장에는 근현대 미술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나혜석, 박래현의 작품과 이응노의 제자 김순련의 작품을 마련했다.

장소 대전 이응노미술관
문의 042-611-9800



© 포항시립미술관

EXHIBITION

〈박수철, 오래된 꿈〉

포항 01.21~05.11

정식으로 미술을 배운 적 없는 박수철 작가를 끊임없이 추동한 건 열정이었다. 그는 순수 미술 동호회 포항일요화가회를 창립했고, 한국 인상주의 화풍을 개척한 오지호 화백의 독창적 세계에 매료되어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작품 지도도 받았다. 작가는 주로 공간에 깃든 추억과 주변 사물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화폭에 담아낸다. 자연 풍경은 해당 계절에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해에 이어 그리는 방식을 고수한다.

장소 경북 포항시립미술관
문의 054-270-4700



SHOW

〈라흐 헤스트〉

서울 03.25~06.15

김향안의 삶을 다룬 뮤지컬이 세 번째 시즌의 막을 올린다. 김환기 화백과 함께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을 오가며 예술가로 활동한 김향안의 삶은 생의 마지막 순간부터 거꾸로 흐르고, 시인 이상과 만나고 사별한 변동림의 인생이 무대 위에서 순차적으로 펼쳐진다.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는다는 뜻의 제목처럼 사랑을 예술로 승화한 과정을 보여 준다. 제8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작품상, 극본상, 음악상을 수상했다.

장소 서울 에스24스테이지
문의 1577-3363



© (주)홍림퍼니



SHOW

〈2025 통영국제음악제〉

통영 03.28~04.06

10일간 통영 곳곳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다. 덴마크를 대표하는 현대음악 작곡가 한스 아브라함센과 스페인의 첼리스트 파블로 페란데스가 상주 작곡가로,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상주 연주자로 활약한다.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의 무대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장소 경남 통영국제음악당
문의 055-650-0400



FESTIVAL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강릉 03.14~04.20

단오굿을 이끄는 약사들이 사용하는 구름에서 유래한 표현을 빌려 올해 행사명을 '에시자, 오시자'로 지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초대한다는 의미처럼 현대와 교감의 장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강릉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장소에서 정연두, 홍이현숙 등 국내외 작가 11명의 작업물을 선보인다.

장소 강원도 강릉 일대
문의 031-8039-1412



EXHIBITION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

서울 02.15~05.26

19세기 후반에 많은 예술가가 프랑스 파리에 모여 새로운 예술 표현 방식을 탐구했다. 이때 탄생한 인상주의 기법은 각 지역의 특색과 정서가 더해져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인상주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에서 미국 우스터 미술관의 소장품 53점을 공개한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아랍 여인', 차일드 하삼의 '프랑스 정원에서 꽃 따기' 등 인상주의 대표 작가 39명의 작품과 함께 인상주의 역사를 짚어 본다.

장소 더현대 서울
문의 02-3277-0610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아랍 여인', 1882년, 캔버스에 유채, 29.8×24cm, 우스터 미술관



FESTIVAL

제26회 구례산수유꽃축제

구례 03.15~23

봄을 기다리는 이유 중 꽃을 빼놓을 수 있을까. 노란 산수유꽃을 보고 싶다면 구례로 향하자.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축제에서 산수유 열매 따기 대회, 산수유 꽃길 걷기 등 이 계절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낄 시간이다. 올해도 활짝 피어난 존재가 방문객에게 용기와 위로를 건넨다.

장소 전남 구례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원
문의 061-782-2014



© 지킬 앤 하이드 아티스트, (주)클림컴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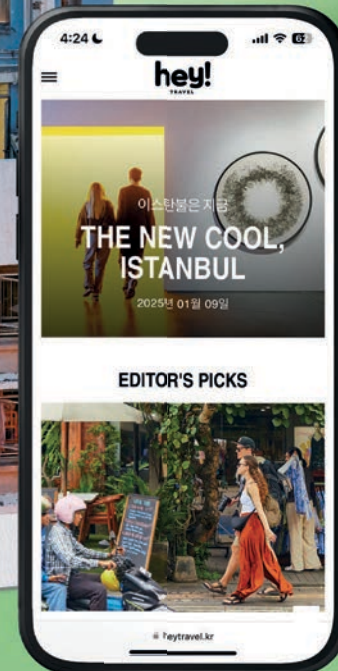
SHOW

〈지킬 앤 하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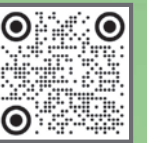
서울 03.04~05.06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일인극으로 재해석했다. 주인공 지킬의 절친이자 변호사인 어터슨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 화려한 연출이 특징인 동명의 뮤지컬과 달리 연극은 최소한의 장치와 소품만 사용해 인물의 심리에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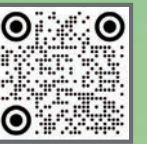
장소 서울 대학로 TOM
문의 02-6941-1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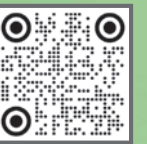
여행 전문가와
로컬이
큐레이션한
여행 &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heytravelmag
INSTAGRAM



hey! there
Newsletter



heytravel.kr
WEBSITE

최신 여행 트렌드를 담아낼 새로운 미디어 〈hey! TRAVEL〉

Inspiration is
Everywhere

황홀한 찰나, 봄꽃 마중

이제 막 해가 떠오를 때, 그리고 해가 지고 난바로 다음, 꽃은 가장 아름다운 색을 발한다.
낮과 밤의 경계에서 황홀한 봄꽃을 포착했다.

범고와대중, 목어와운관이 저녁예불을 알리는 시간.
종고루에 드리운 매화가 푸르게 물든다.

2024년 3월 22일, 전남 순천 송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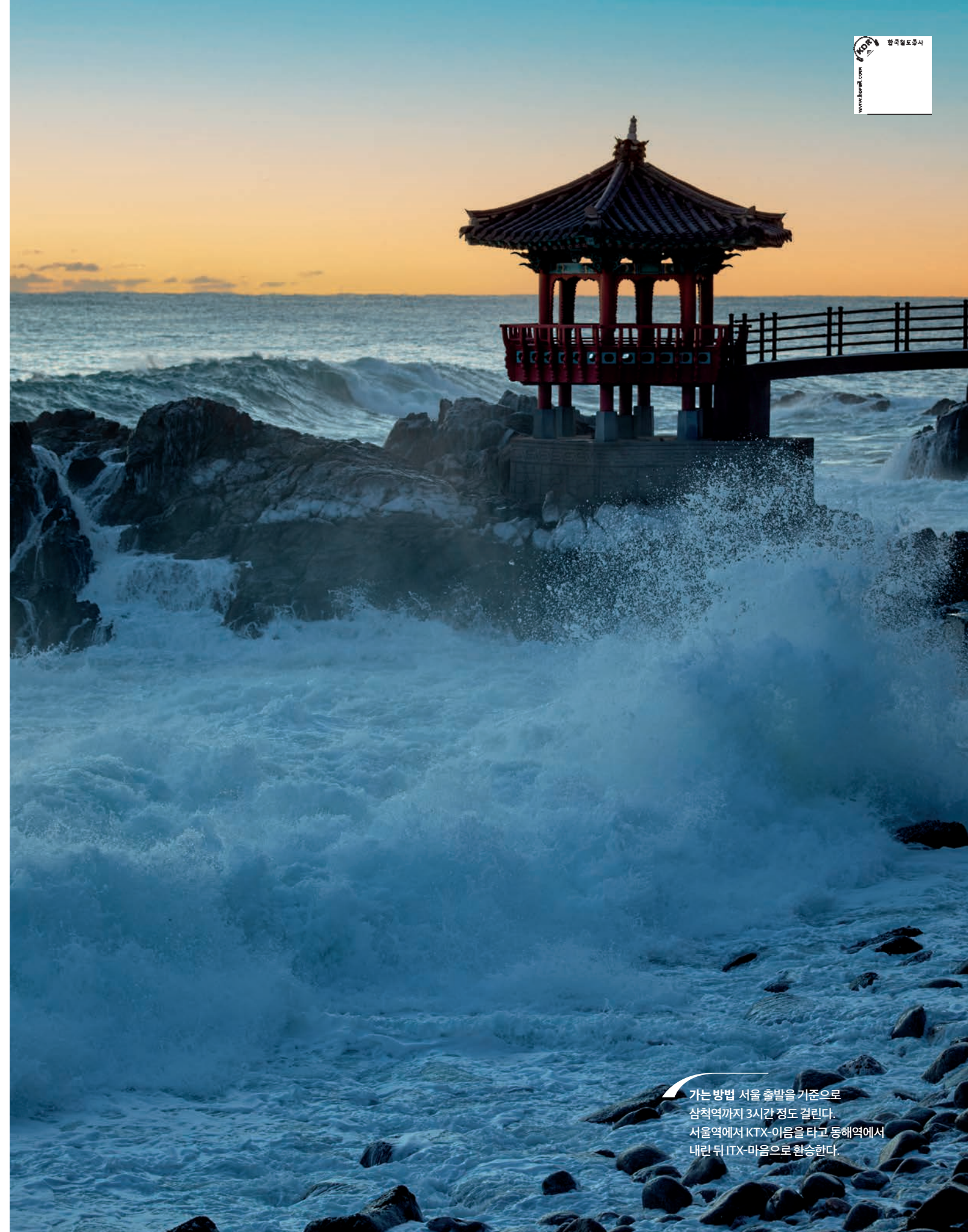
노스님의 거처 도성당 담벼락 위로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가지개를 켜다. 수줍게 손짓하는 3월의 인사.
2023년 3월 15일, 전남 순천 송광사

각황전 지붕을 무대 삼아, 지리산 햇살을 조명 삼아
점점이 피어나는 봄의 선물. 고고한 매화의 붉은 몸짓.
2024년 3월 30일, 전남 구례 화엄사

춤추는 시간의 바다, 삼척

초곡 용굴쪓대바위를 보며 까마득한 과거를 상상하고, 이사부독도기념관에서
우리 땅의 생명력을 마주했다. 걸으며 만난 풍경은 모두 강원도 삼척의 시간이었다.

푸르게 일렁이며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고요하나 더 깊이 요동치는 시간의 바다. 삼척을 마주 보았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삼척역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
서울역에서 KTX-이음을 타고 동해역에서
내린 뒤 ITX-마음으로 환승한다.

삼척을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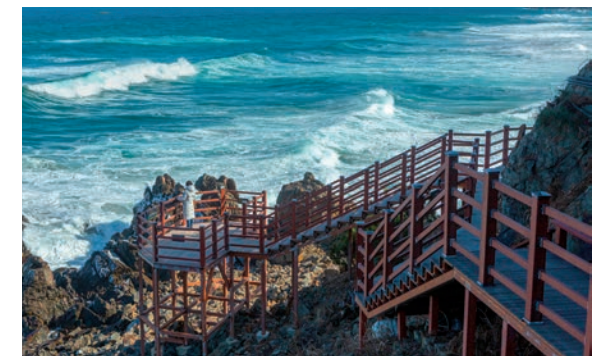
삼척 바다를 품은 세 개의 길을 찾았다. 발길 닿는 곳마다 생경한 풍경이 펼쳐지고,
역사 속 이야기가 들려왔다.



바다를 끼안은 풍경,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봄이 발밑까지 왔지만 삼척의 바람은 여전히 매섭다. 푸르다 못해 시린 바다는
기암괴석을 만나 산산이 부서지기를 반복한다. 총 4킬로미터에 이르는 백사장
이 펼쳐진 맹방해수욕장과 고즈넉한 덕산해수욕장中间的 둥그스름한 산이
목적지다. 1968년 무장 공비 침투 사건 이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었다 53년 만
인 2021년에 개방한 덕봉산은 원래 섬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덕산도
(德山島)'라 표기했는데, 지금은 덕산해변인 육계사주(육지로부터 돌출 성장
해 가까운 섬과 연결된 사주)에 의해 육계도(陸繫島)가 됐다. 이름도 자연스럽
게 덕산도에서 덕봉산으로 바뀌었다.

54미터의 나지막한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는 삼척 바다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다. 나무 띄 아래로 일렁이는 파도를 보니 꼭 커다란 배를 탄 것 같다. 산 들
레를 따라 구불구불한 해안 길을 말없이 걷는다. 이럴 때 자연은 기꺼이 친구
가 되어 준다. 가끔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걷는 시간이 편안하
다. 정상을 향한 가파른 계단도 가쁜한 마음으로 오른다. 우거진 대나무 숲 끝
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멀리 울릉도도 보인다. 전망대에서 내려올 땐 눈앞에 보
이는 푸른 동해가 끝없이 펼쳐진 웅단 같다. 외나무 다리 끝에는 강과 바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미읍천이 반짝인다.



시간이 깎아 낸 조각품, 초곡 용굴쫓대바위길

초곡 용굴쫓대바위길은 나무 데크와 출렁다리로 이루어진 총 길이 660미터의 해안 길이다. 절벽에 선반처럼 매단 잔도를 지나야 하기에 다른 탐방로보다 손에 진땀을 쥐게 한다. 쫓대바위를 형상화한 높은 철문을 지나면 날카로운 앞발을 들어 올린 용의 모습을 담은 포토 존이 나타난다. 구렁이가 용으로 승천했다는 초곡 용굴 설화 속 용이리라. 불을 뿜어내는 용의 실루엣 사이로 뿜 뿜된 푸른 바다가 눈부시다. 건다가 시선을 조금만 돌려도 쉴 새 없이 출렁이는 파도가 나무 데크를 지탱하는 기둥에 부딪힌다. 기암절벽을 둘러 선 전망대, 거대한 바위 위에 놓인 출렁다리 주탑은 바라만 봐도 아찔하다. 바닥 일부가 투명한 11미터 높이의 출렁다리는 발이 닿기 전부터 목덜미를 오싹하게 만든다. 다시 잔도를 걷고 낙석을 막아 줄 철 구조물을 지나자 쫓대바위가 모습을 드러낸다. 주위를 둘러싼 거북바위, 사자바위, 피라미드바위 등 각양각색의 기암괴석 사이로 흐르는 물 소리가 마치 음악을 듣는 듯하다. 삼척의 초곡 용굴쫓대바위와 동해의 추암쫓대바위는 이름에 똑같이 '쫓대'가 들어가지만 끝부분이 다르게 생겼다. 추암쫓대바위는 뾰족하고, 용굴쫓대바위는 뭉뚱한데, 그 모습이 꼭 불을 붙이기 전 초처럼 보인다. 용굴쫓대바위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면 두 손 모아 소원을 빌고 싶을 것 같다.

전시작품 ©



바다에서 만난 삼척의 역사, 이사부길

삼척 시내와 가까운 곳에도 걷기 좋은 길이 있다. 삼척해수욕장과 삼척항을 잇는 약 4.7킬로미터 길이의 이사부길이다. 이사부(異斯夫)는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于山國, 현재 울릉도와 독도)을 복속시킨 인물로 지금의 삼척인 실직주의 군주를 지낸 신라 장군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당시 우산국은 동해 먼 바다에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신라에 귀복하지 않았으며, 우산국 사람들의 성정이 사나워 힘으로 복종시키기 어려웠다고 한다. 피를 낸 이사부 장군은 나무로 만든 사자를 배에 가득 싣고 우산국으로 가 항복하지 않으면 맹수를 풀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겁을 먹은 우산국 사람들이 항복했고, 512년 마침내 신라 영토로 흡수되었다. 이때 우산국을 정벌하기 위해 출항한 곳이 현재 삼척의 오십천하류로 추정된다. A, B, C 세 구간으로 나뉜 이사부길은 모두 걸어도 두 시간이면 충분하다. 적당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 걷는 재미가 있다. 이사부광장에서 소망의 탑 방향으로 조금만 걸다 보면 사자바위가 모습을 드러낸다.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 사자의 모습은 바위 오른쪽에서 더 잘 보인다. 이사부 장군이 승리를 거둔 후 타고 온 배에 실려 있던 사자 한 마리가 이사부길 해변에 내려 삼척을 지키는 바위가 됐다는 전설이 서려 있다. 함께 사진을 찍으면 행운이 온다는 두꺼비바위는 낚시하기 좋은 포인트. 볼록 튀어나온 돌이 두꺼비를 꼭 닮았다. 새천년을 맞아 건립한 소망의 탑, 비치조각공원을 지나 조금 더 걸다 보면 어느새 길 끝에 다다른다.





삼척을 느끼다

삼척의 시간을 세심히 모아 펼쳐 놓은 곳.
박물관과 기념관, 그리고 문화 공간을 찾았다.

단
© 삼척관광재단

실감 영상으로 만나는 독도, 이사부독도기념관

이사부 장군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지난해 9월 개관한 이사부독도기념관으로 가야 한다. 이사부길 종착지인 삼척항 인근에 있는 이사부독도기념관은 웰컴센터, 이사부관, 독도체험관, 라이브러리카페 네 개 동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이사부관에서는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복속 과정을 담은 8분 분량의 실감 영상을 상영한다. 영상관 밖에는 독도의 생태를 미디어 아트로 시각화한 미디어 큐브가 전시되어 영상을 기다리는 사이 둘러보기 좋다. 독도체험관에서는 신비로운 독도의 생태계를 초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에 펼쳐 내는 미디어 아트 '독도 판타지아'를 상영한다. 화면을 크게 가로지르는 새의 시선으로 독도의 이곳저곳을 비추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독도의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보여 준다. 발아래로 물고기가 지나가고, 옆으로는 강치가 헤엄친다. 독도 바닷속에 실제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다. 상영관 옆으로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 '독도 스케치북'이 보인다.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 강치, 도화새우 등 독도의 생물을 채색하면 벽면의 대형 화면에 그림이 나타난다. 라이브러리카페를 비롯해 기념관 곳곳에는 충분히 사색하고 쉴 공간을 마련했다. 이사부독도기념관 입장료 일부는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된다.



이사부독도기념관

이사부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전시관. 실감 영상과 미디어 아트 등을
통해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복속 과정과
독도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28
문의 033-575-1040





도계유리나라, 도계나무나라

도계의 유리 예술과 산업을 한눈에 살펴보는
도계유리나라와 나무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도계나무나라는 서로 가까이 위치해 함께
관람하기 좋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3-36,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3-46
문의 033-570-4208, 033-570-4201

폐광 지역에 새 숨을 불어넣은 도계유리나라, 도계나무나라

한때 강원도 석탄 생산량의 3분의 1을 책임지던 삼척시 도계읍. 도계 탄광 개발
붐은 전국의 청년을 삼척으로 불러 모았고 이 도시를 윤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1989년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첫째 만에 도계의 12개 탄광 중 10개가
폐광했다. 인구 감소는 당연한 수순. 석탄 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검은 가루
를 날리며 석탄을 실어 나르던 철도도 사라졌다. 올 6월 대한석탄공사 산하 도계
광업소마저 문을 닫으면 민영 광업소 한 곳만 남게 된다. 위기감을 느낀 삼척시는
폐광 지역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석탄 채굴 과정에서 나온 폐석을 분석한
결과 유리의 주원료인 규사가 75퍼센트 이상 함유됐다는 것을 알게 된 삼척시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유리공예에 주목했다.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도계
유리나라가 문을 열었다. 삼척 시내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태백시 경계에 있는 도
계유리나라는 유리 조형 테마파크를 표방한다. 유리 역사관과 국내외 작가의 작
품을 전시한 유리 갤러리, 보석방과 거울방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체험관과 블로
잉 시연장에서는 소정의 체험비를 내고 직접 유리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 18년 경
력의 윤경원 유리공예가의 지도를 받으며 단단한 유리 덩어리가 마시멜로처럼 늘
어나는 과정을 경험한다. 가위로 자르고 집게로 집으면 나뭇잎 모양이 딱딱 만들
어진다. 초보자도 작업 과정을 잘 따라 하기만 하면 30분 만에 목걸이 펜던트나 키
링을 쉽게 완성한다. 도계유리나라 바로 옆에는 같은 해에 문을 연 도계나무나라
가 있다. 지붕 위에 걸터앉은 피노키오가 마스크트. 실내에 들어서면 먼저 진한 나
무 향에 숨을 깊이 들이쉬게 된다. 나무 도서관과 나무 놀이터에 더해 나무의 역사
와 속성, 삼척의 전통 가옥 형태인 너와집 등을 소개하는 나무 이용 전시실도 있
다. 필통, 책꽂이, 우체통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목공예 체험교실도 운영한다.





경이로운 보물 창고, 강원종합박물관

2004년 개관한 강원종합박물관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물관의 야외 종유석 공간을 찍은 SNS 인플루언서들의 다양한 사진과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삼척에서 꼭 가 봐야 할 여행지로 떠올랐다. 강원종합박물관은 삼척 시내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신기면에 연면적 약 1만 687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었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역시 야외 종유석 군락 전시관이다. 동굴에서 보던 종유석을 야외에서 만나니 전혀 새로운 느낌. 횡토틀과 붉은빛을 띤 종유석 군락은 신비로운 느낌을 풍긴다. 종유석이 벽을 이루는 긴 통로 사이로 폭포도 보인다. 이곳이 바로 최고의 사진 촬영 명당이다. 길게 이어진 종유석 광장을 구경하다 보면 관람로가 실내 전시관으로 이어진다. “시공을 초월한 세계의 수많은 문물이 자리한다”라는 안내 문구처럼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2만여 점의 유물이 본관 3층 건물과 별관에 빼곡하다. 거대한 울리매머드와 동굴곰 등의 대형 화석과 눈꽃수정, 방해석, 철운석 등 특색 있는 광물도 시선을 끈다.

강원종합박물관

강원도를 비롯해 전 세계 역사, 문화, 자연을 아우르는 종합 박물관이다.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유물과 예술품 2만여 점을 본관과 별관, 야외 전시 공간 등 총 12개 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3016
문의 033-541-1523





관동팔경 제1경, 죽서루

죽서루는 2023년 12월 지방 관영 누각으로는 최초로 국보로 지정된 삼척의 보물이다. 관동팔경 제1경이자 자연주의 건축의 백미로 손꼽힌다. 죽서루의 최초 건립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고려 시대 문인 김극기가 죽서루에 올라 지은 시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12세기경으로 추측한다. 자연 암반과 자연 초석 위에 자리한 죽서루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해 질 녘이다. 죽서루 뒤쪽 오십천 방향에서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죽서루 왼쪽으로 는 용문을 드나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용문바위가 자리한다. 죽서교를 건너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 죽서루를 감상하기 좋은 정자를 만난다.



삼척 여행의 필수 기념품, 배나들 삼척샌드

삼척 후진해변의 옛 지명 '배나들' 바로 앞에 '배나들' 카페가 있다. 이곳에서 꼭 맛봐야 하는 메뉴는 삼척샌드. 풍미 가득한 버터 쿠키에 바닐라빈과 상큼한 요거트 크림, 벌꿀이 든 캐러멜을 듬뿍 넣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기분 좋은 달콤함이 오래도록 입안에 맴돈다. 패키지에 배나들 풍경이 그려진 삼척샌드 세트는 기념품으로 인기있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469-1 문의 033-572-7717

삼척을 맛보다

여행이 끝나도 맛으로 기억될 삼척의
특별한 디저트를 소개한다.



바다 향 가득한 오란다의 변신, 삼척오란다

추억의 간식 오란다를 '삼척스럽게' 재해석했다. 삼척오란다는 고소한 현미로 만든 현미 오란다, 아몬드와 호박씨를 넣은 견과류 오란다, 국내산 감태를 넣은 감태 오란다 세 종류. 이 중 부드럽고 쫄득한 식감의 감태 오란다는 은은한 바다 향이 난다. 냉장 보관하면 바삭한 식감이 더욱 살아난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봉황로 91-103 문의 033-575-0912



달콤한 곰치 한 마리, 곰치빙수

삼척의 명물 곰치를 달콤하게 즐기고 싶다면 삼척해변에 있는 카페 '피크닉키키'를 추천한다. 삼척 토박이 이보미 대표가 곰치 닮은 빙수를 선보이는 곳이다. 길이 35센티미터의 커다란 접시에 곱게 간 우유 얼음을 수북이 담고 콩고물과 흑임자 가루, 아몬드 가루를 넉넉히 올린다. 달콤한 수제 팔과 쫄깃한 인절미도 찰떡궁합. 한 입 먹어 보면 시원하고 달달한 맛이 춤을 춘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테마타운길 53 문의 033-575-6599



삼척의 절경 담은 삼척로컬커피

맹방해변, 장호항, 초곡 용굴쫓대바위길, 죽서루와 너와집 등 삼척 명소 열 곳을 커피로 만날 수 있는 곳, 카페 '마린데크'다. 맹방해변은 산뜻한 산미와 강한 아로마가 특징인 에티오피아 내추럴 원두를, 초곡 용굴쫓대바위길은 산미가 적고 부드러운 케냐AA를 사용해 각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커피에 담았다. 삼척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일러스트로 그려 넣은 드립백 패키지도 매력적이다. 삼척 여행을 추억하는 데에도, 선물 용으로도 그만이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326
문의 033-574-2555



삼척 여행자를 위한 가이드

삼척을 철도로 여행하는 법

지난 1월부터 삼척으로 떠나는 교통편이 하나 더 추가됐다. 강원도 삼척역과 경북 포항역을 잇는 연장 166.3킬로미터의 신설 노선이 개통한 것. 삼척역에서 포항역까지 ITX-마음(시속 150킬로미터)으로 약 1시간 40분 소요된다. 강릉에서 부산 부전 노선은 하루 왕복 8회 운행하며 약 4시간 50분 걸린다. 서울에서 출발한다면 KTX-이음(시속 260킬로미터)을 타고 강릉역이나 동해역에서 내려 환승하면 된다. 노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연 삼척역은 2019년에 운영을 중단한 구역사를 철거하고 죽서루 처마와 기둥, 석축 기반 모습을 형상화해 다시 건설했다. 지상 2층 규모로 층고가 높아 개방감이 뛰어나다. 역내에는 발매 창구와 티켓 발권기가 있고 수유실, 음료 자판기, 고객 대기실도 갖췄다. 역사 맞은편에는 새벽 5시에 장사를 시작해 오전 10시면 마감하는 삼척의 명소 번개시장이 있다. 규모가 크지 않지만 당일 새벽 경매로 넘어온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삼척을 똑똑하게 여행하는 법

삼척시티투어

단돈 1000원으로 삼척의 주요 관광지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삼척시티투어 버스가 매주 금·토·일요일에 운행한다. 요금은 성인 6000원. 5000원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으니 1000원에 이용하는 셈이다. 단, 코스 내 관광지 입장료는 별도다. 삼척해양레일바이크, 장호항, 삼척해상케이블카, 삼척 시내(죽서루, 중앙시장, 대학로)를 거치는 해안 코스와 대금굴, 대이리, 이사부독도기념관, 삼척 시내(죽서루, 중앙시장, 대학로)를 거치는 내륙 코스로 나뉜다. 출발 장소는 두 코스 모두 죽서루, 쓸비치 정문, 삼척역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하며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www.samcheok.go.kr/citytour

삼척관광택시

규정 요금의 50퍼센트를 삼척시에서 지원하는 삼척관광택시 서비스도 있다. 삼척 출신 택시 기사 12명이 삼척 관광지로 승객을 안내한다.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문의 www.sctourtaxi.kr

삼척투어패스

삼척투어패스는 삼척의 주요 관광지와 카페, 음식점, 체험 장소 등을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통합 할인권이다. 첫 목적지에서 삼척투어패스를 사용한 시각 기준으로 24시간권, 48시간권을 판매한다. 삼척해상케이블카, 도계유리나라, 도계나무나라, 이사부독도기념관, 환선굴은 무료입장이고 가곡유황온천, 가곡죽옥체험장, 삼척레일바이크, 수로부인현화공원, 해신당공원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척의 봄을 만끽하는 법

삼척맹방유채꽃축제

매년 봄이면 옛 7번 국도를 따라 2.5킬로미터 이어진 왕벚나무 옆으로 7만 2000제곱미터 규모의 유채밭이 장관을 이룬다. 유채꽃의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룰 때는 4월 중순 경. 올해는 4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인근에서 삼척맹방유채꽃축제가 열린다. 유채꽃 비누 만들기, 유채꽃길 따라 걷기, 꼬마 열차 타고 유채꽃밭 구경하기 등 유채꽃을 소재로 한 이색 프로그램이 마련돼 여행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난해 삼척맹방유채꽃축제는 방문자 중 99퍼센트가 재방문 의사를 밝힐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삼척장미축제

매년 5월이면 삼척은 또 한 번 꽃으로 뒤덮인다. 삼척장미축제 기간에는 삼척시 오십천 장미공원 일대에서 8만여 제곱미터 규모에 심은 1000만 송이 장미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꽃길 런 퍼레이드, 장미성 꾸미기, 천만 송이 장미 가요제 등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 전시 행사 등이 마련된다.



원지작품 © 삼척시



Samcheok, the Dancing Sea of Time

When you're looking to escape the city and immerse yourself in nature—mountains, the sea, and the great outdoors—head to Samcheok in Gangwon Province. We've handpicked the best spots where you can walk, experience, and taste the essence of this coastal gem.

Walking Through Samcheok

Samcheok offers a variety of scenic trails where you can stroll along breathtaking ocean views. One of the best options near the city center is Isabu-gil Road, a 4.7-kilometer coastal walkway that stretches from Samcheok Beach to Samcheok Port. Recognized as one of Korea's 100 Most Beautiful Roads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is route boasts stunning seaside landscapes. Isabu-gil Road consists of three sections, but for the full experience, start at Samcheok Port and follow the trail through New Millennium Coastal Road via Course A. Even if you decide to walk all three courses, it takes only about 2 hours, making it a perfect way to explore at a leisurely pace. For K-pop fans, Maengbang Beach—made famous as the album cover location for BTS's Butter—offers another stunning coastal trail. Meanwhile, the Deokbongsan Coastal Eco Trail reopened in 2021 after being closed to the public for 53 years. Though the peak stands at just 54 meters, the entire coastal path stretches 626 meters, with an additional 317-meter bamboo-lined trail leading to the summit. The route is mostly flat and well-maintained, except for a few steep staircases near the peak, and features scenic rest areas and viewpoints. Another must-visit is the Chogok Yonggulchotdaebawi Rock Trail, near Chogok Port. Unlike other loop trails, this 660-meter path leads to an observation deck before retracing the same route. Due to its location within a military operations area, it has limited access—open from March to October between 9 AM and 6 PM (last entry at 5 PM) and closed on Mondays. According to legend, Chogok Dragon Cave is where a serpent ascended to become a dragon. On clear days, small fishing boats can still pass through. However, due to the risk of falling rocks, the trail beyond the cave is currently under reconstruction and temporarily closed. Despite this, the trail offers spectacular coastal scenery, with dramatic rock formations such as Candlestick Rock, Turtle Rock, Lion Rock, and Pyramid Rock, as well as a suspension bridge perched atop a massive cliff. Whether you're in search of panoramic ocean walks or legendary landscapes, Samcheok's coastal trails are a perfect getaway into nature's embrace.

Experiencing Samcheok

Among Samcheok's many attractions, a few key sites offe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ity's history and character.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s the Isabu Dokdo Museum. General Isabu, a prominent historical figure from Samcheok, served as the governor of Siljikju (present-day Samcheok) during the reign of King Jijeung of Silla. He is best known for incorporating Usan-guk (now Ulleungdo and Dokdo) into Korean territory. The Isabu Dokdo Museum was established to showcase his heroic legacy and Korea's commitment to protecting Dokdo. The museum comprises four main buildings: the Welcome Center, the Isabu Hall, the Dokdo Experience Hall, and the Library Café. A highlight of the Isabu Hall and Dokdo Experience Hall is the immersive visual theater, where visitors can witness General Isabu's conquest of Usan-guk and explore the breathtaking marine ecosystem of Dokdo on a panoramic screen. The Library Café, offering books on Dokdo and real-time footage of the island, is also a popular attraction. Gangwon Comprehensive Museum resembles an elaborate historical drama set. Inside, visitors can explore nine exhibition halls filled with over 20,000 artifacts, including natural history specimens, ceramics, metal crafts, folk art, religious artifacts, woodworking, and stone sculptures. The sheer number of exhibits can be overwhelming, but one of the most Instagram-worthy highlights is the outdoor stalactite garden, where towering limestone formations blend with cliffs and waterfalls to create a truly mystical landscape. Historically, Samcheok was a major hub of the coal mining industry in Gangwon Province. However, as the industry declined, local authorities sought ways to revitalize former mining sites. As part of these efforts, Dogye Glass World and Dogye Wood World opened in 2018. The facility includes a gallery showcasing over 400 glass artworks, a history hall, and an artist exhibition hall. However, the most popular spots are the glass-blowing demonstration area and the hands-on craft workshop, where visitors can create their own glass pendants, keychains, cups, or flower pots. Reservations are required for these activities. Located next door, Dogye Wood World reflects Samcheok's rich forestry resources. The facility features wood-themed exhibition halls, a library, a playground, and a woodworking studio. A highlight is the Pinocchio Exhibition Hall on the second floor, where visitors can admire a collection of Pinocchio dolls from different countries, each crafted from a variety of wood types.



Tasting Samcheok

Samcheok offers a variety of unique desserts that are not only perfect to enjoy with a cup of coffee but also make for great souvenirs. One of the most popular treats, loved by all generations, is the gomchi bingsu, inspired by Samcheok's signature seafood, the gomchi (moray eel). Despite its rough and unassuming appearance, gomchi is known for its soft texture and refreshing broth. At Picnic Kiki café, visitors can enjoy this special bingsu year-round. A large plate of finely shaved milk ice is topped with soybean powder, black sesame, and almond powder, complemented by the gentle sweetness of homemade red bean paste and chewy injeolmi rice cakes, creating a delightful taste experience. For coffee lovers, Samcheok boasts a café that blends its own hand-drip coffee using beans matched to ten of the region's most famous landmarks. Located along the New Millennium Coastal Road, Café Marine Deck has been introducing its Samcheok Local Coffee Series for the past seven to eight years. The most popular selections include Maengbang Beach, made with Ethiopian natural beans, and Chogok Yonggulchotdaebawi Rock Trail, featuring Kenya AA beans. Guests can enjoy freshly brewed hand-drip coffee while taking in breathtaking ocean views or purchase drip bag coffee adorned with charming illustrations. Another must-visit spot is Café Benadel, situated near Hujin Port along the tranquil Jageun Hujin Beach. The café's signature Samcheok Sand features crispy butter cookies filled with vanilla bean and yogurt cream, honey, and caramel. Thanks to the beautifully illustrated box designed by the café's owner, many customers buy it as a gift rather than enjoying it on-site. A nostalgic favorite among locals is oranda, a traditional Korean snack made by coating small biscuit-like grains in sweet syrup and cutting them into bite-sized pieces. Samcheok Oranda has gained a reputation for its uniquely soft and chewy texture, making it irresistibly addictive. It offers a delightful balance of crispiness and subtle sweetness, leaving a pleasant aftertaste. While the brown rice, nut, and gamtae (seaweed) flavors are all delicious, the gamtae oranda stands out as a special treat.

How to Travel Around Samcheok

As of January this year, a new transportation option has been added for those traveling to Samcheok. A newly extended rail line now connects Samcheok Station to Pohang Station, covering a total distance of 166.3 kilometers. The journey from Samcheok to Pohang takes approximately 1 hour and 40 minutes on the ITX-Maum train (150 km/h). Meanwhile, the Gangneung to Busan (Bujeon) Line runs eight round trips daily, with a total travel time of approximately 4 hours and 50 minutes. Travelers departing from Seoul Station can take the KTX-Eum (260 km/h) to Gangneung Station or Donghae Station and transfer accordingly. Conveniently located across from Samcheok Station, Beongae Market is a famous early-morning market where visitors can purchase fresh seafood at affordable prices. For sightseeing, the Samcheok City Tour Bus provides easy access to major attractions. Two routes are available: the coastal route, covering Samcheok Ocean Railbike, Jangho Port, Samcheok Marine Cable Car, and downtown Samcheok (Jukseoru Pavilion, Central Market, Daehak-ro), and the inland route, which stops at Daeguimgul Cave, Daei-ri, Isabu Dokdo Museum, and other downtown landmarks. Reservations can be made through the official website (www.samcheok.go.kr/citytour), and same-day on-site registration is available for remaining seats. The tour bus operates from every Friday to Sunday, with pick-up points at Jukseoru Pavilion, Sol Beach, and Samcheok Station. Admission fees for attractions, activity costs, and meals are not included. For additional travel information, accommodation bookings, transportation assistance, and dining recommendations, visitors can stop by the Samcheok Tourist Information Center, conveniently located next to the Samcheok Express Bus Terminal.



지금 강릉, 다섯 개 키워드

국내 유일의 해안단구를 걷고, 푸른 동해 바다를 조망하며 커피를 마시고,
지역 청년들의 재기 발랄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일.
울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강원도 강릉으로 떠나 보자.

제작 지원 강릉시청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역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



1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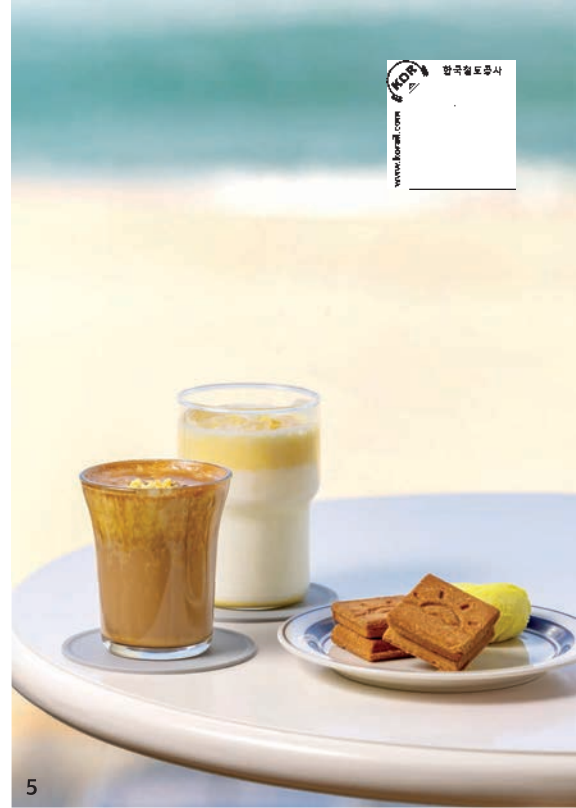


4

1 | 커피 한잔, 디저트 한 입 안목 해변

자판기 커피가 유독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안목해변은 강릉을 커피의 도시로 만들었다. 강릉 전역에 커피 향이 가득하지만 안목해변은 여전히 강릉을 대표하는 커피 성지다. 한국에서는 편의점만큼이나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카페지만, 커다란 통창으로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은 흔치 않다. 안목해변에서 맛있는 드립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2015년에 문을 연 '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를 추천한다. 근처에 공장을 두고 HACCP 인증까지 받아 품질에 더욱 믿음이 간다. 이곳의 시그니처 원두는 안목 블렌드와 문래 블렌드. 시즌에 따라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를 선보인다.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는 말은 '카페 뤼미에르'에서 실감하게 된다. 성인 손바닥보다 큰 크루아상과 탐스러운 딸기 토핑이 입맛을 돋우는 케이크는 저절로 지갑을 열게 한다. '강원옥찐쌀떡 안목해변점'에선 초당옥수수 가루가 뿌려진 커피를 즐겨 보자.

주소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14번길 28(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 강릉점),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14번길 18(카페 뤼미에르),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14번길 14(강원옥찐쌀떡 안목해변점)



5



6

1 카페 뤼미에르의 드립 커피와 디저트. 2 커피 거리를 상징하는 설치물. 3 동해가 한눈에 보이는 카페 뤼미에르의 아늑한 공간. 4 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의 추천 메뉴, 드립 커피. 5 초당옥수수가 들어간 커피와 디카페인 라테, 강릉샌드와 초당 순두부 찹쌀떡. 6 안목해변을 따라 늘어선 카페.

바다와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풍경 하슬라아트월드

강릉의 해안 도로를 일주하다 보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물들을 만난다. 보랏빛이 감도는 푸른 철골 구조의 하슬라아트월드도 그중 하나. 강릉 출신 예술가 최옥영·박신정 부부가 일군 복합 문화 공간으로 미술관부터 호텔, 레스토랑, 웨딩홀, 컨벤션홀까지 들어섰다. 산의 경사로를 따라 자리한 만큼 내부를 모두 돌아보려면 계단을 오르내리고 동굴을 통과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마주하는 수준 높은 작품과 황홀한 바다 풍경에 반해 고단한 줄 모른다. 하슬라아트월드의 백미는 야외 조각 공원. 해안 절벽을 따라 설계한 성성활엽길, 소나무 정원, 갈대 숲길은 트레킹을 하는 듯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그 사이로 절묘하게 보이는 예술 작품들은 부드럽게 감성을 자극한다. 비너스상이 있는 바다 정원을 찍고 돌아 내려오는 길 끝엔 붉은 철제 구조물 작품이 기다린다. 이 구조물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최옥영 작가가 만든 바이오 공중 뮤지엄인 누드미술관이 나온다. 전면이 유리로 덮인 공간으로, 총 12개 층에 걸쳐 작품과 동식물을 세밀하게 감상할 수 있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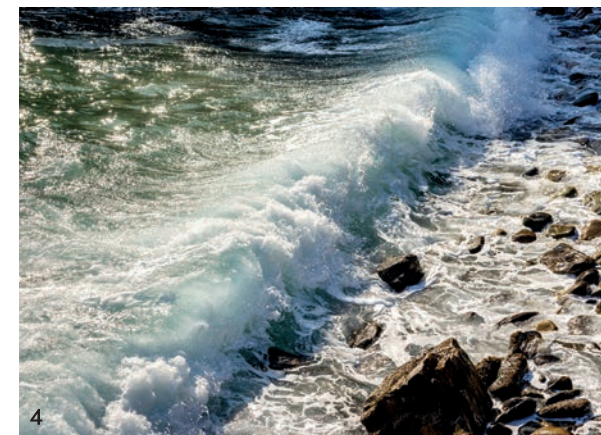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울곡로 1441



1 하슬라아트월드 뮤지엄 내부의 반사거울 작품.

2 파도가 연상되는 은빛 철골 설치물. 3 최옥영 작가의 노란 설치 작품. 4 누드미술관 내부.





1 심곡항 입구 쪽 전망대에서 바라본 동해.
2, 3 생동감 넘치는 바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안을 따라 설치한 데크. 4 기세 넘치는 파도가 장관인 동해 바다.
5 지역의 구전설화가 얹힌 투구바위.



3

230만 년 전 동해 탄생 비밀 간직한 바다부채길

정동진과 심곡항을 잇는 해안 산책로, 바다부채길은 ‘부채꼴’이라는 옛 지명에서 이름을 따왔다. 위에서 바라보면 동해를 향해 펼쳐 놓은 부채처럼 보이기 때문. 바다부채길은 230만 년 전의 지각변동이 관찰되는 국내 유일의 해안단구 길로, 200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바다부채길을 일반에 공개한 건 9년 전. 그동안 해안 경비를 위한 군 경계 근무 정찰로로만 이용하던 길에 드디어 여행자의 발길을 허락했다. 지난해 4월엔 기존 코스에 640미터를 추가한 심곡-정동간 총 3.1킬로미터 길이의 바다부채길 전 구간을 개방했다. 여행은 마음 맞는 동행이 있으면 즐거움이 배가되지만 바다부채길만큼은 혼자 걸어도 충분히 좋다. 박력 넘치는 동해의 파도 소리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강감찬 장군 설화와 관련된 투구바위, 지역의 구전설화가 깃든 부채바위, 주워 가고 싶은 총동이 이는 반질반질한 몽돌이 깔린 몽돌 해변에 저절로 마음을 빼앗긴다. 정동항(정동 매표소)과 심곡항(심곡 매표소) 두 곳에 바다부채길 입구가 있고, 편도 1시간이면 충분히 동해 바다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0-13



4

강릉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창작소 임영로

교동사거리에서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강릉대로를 제외하고 남북 방향 대로와 그 주변 샛길은 주소가 모두 '임영로'로 시작한다. 기발하고 세련된 아이디어로 점철된 청년 사업가와 작가를 만날 수 있는 동네다. 전국 맛집으로 통하며 1년 내내 줄을 서는 교동반점과 형제칼국수가 있고, 강릉역은 고작 도보 15분 거리다. 교동사거리에 있는 '이발소 소품샵'은 강릉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 콘텐츠 회사 더웨이브컴퍼니가 공유 오피스 '파도살롱 교동점'을 편집숍으로 재단장한 곳이다. 수달 캐릭터를 '모에'라 이름 짓고 자체 기획 상품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강릉에 거주하는 크리에이터 혹은 강릉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작가들이 제작한 엽서, 문구, 스티커와 각종 소품을 판매한다. 강릉시립미술관 쪽으로 길을 건너면 아기자기한 카페와 숨이 막잡힌 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먼저 강원도 토박이 강소울 작가의 작업실 겸 숍 '산소울'이 있다. 자연에서 영감받아 점토 제품을 만드는데, 작품과 함께 실내에도 작가의 밝고 유쾌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간판이 아주 작지만 드나드는 사람이 워낙 많아 놓칠 수 없는 '오어즈(Oars)'에는 라이프스타일 제품이 가득하다. '삶은감자'는 조소를 전공한 박연재 대표가 론칭한 핸드메이드 굿즈 및 소품 브랜드다. 데스케테리어 트렌드에 힘입어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옥수수, 감자, 도토리, 고랭지 무 화분이 인기다. 강릉의 오늘과 청년들이 만드는 로컬 콘텐츠를 살펴보고 싶다면 지체 없이 임영로로 향하자.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98(이발소 소품샵),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192(산소울),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193(오어즈),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197-1(삶은감자)



1 단층 건물에 아기자기한 숨이 막잡힌 임영로 풍경. 2 강소울 작가의 작업실 겸 숍인 산소울. 3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오어즈 제품들. 4 강원도 감자에서 영감을 얻은 브랜드 삶은감자 매장. 5 강릉 로컬 창작자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이발소 소품샵. 6 이발소 소품샵에서 판매하는 강릉 바다 사진 엽서집.

2



4



6





1

5 | 지상 59미터 바다 위를 걷는 도깨비굴 스카이밸리

동해 바다를 좀 더 높은 곳에서 감상하고 싶다면, 그리고 테마파크에 온 듯한 기분도 누리고 싶다면 동해시에 있는 도깨비굴 스카이밸리만 한 곳이 없다. 2021년 묵호등대와 월소택지 사이에 조성한 체험 관광지로, 스카이워크와 스카이 사이클, 자이언트 슬라이드 등 짜릿한 체험 시설은 물론 먹거리와 기념품을 판매하는 도깨비 아트하우스 등을 갖추고 있다. 익살스러우면서도 귀여운 대형 도깨비 모형을 만났다면 도깨비굴 스카이밸리를 제대로 찾은 것. ‘도깨비’는 강원도 사투리로 도깨비를 뜻한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 보면 중간쯤에 티켓 판매 부스가 있는데, 여기서 스카이밸리 입장권과 액티비티 이용권을 구매한다. 이제 스릴을 즐길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자전거를 타는 스카이 사이클에 도전해 보자. 59미터 높이의 스카이워크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에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묵호항 등대에 올라가 봐도 좋다. 안전을 위해 창문을 닫아 놓아 몰입감은 덜하지만 고요히 바다를 감상하고 싶을 때 제격이다. 등대 아래쪽 눈골담길로 발길을 돌리면 바닷바람에 시달리며 쌓인 피로를 풀기에 적당한 ‘등대 카페’와 묵호항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무코아선물가게’가 나온다. 도깨비굴 해랑전망대에서 인생샷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말자.

주소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2-109

2



1 주차장 입구에서 바라본 도깨비굴 스카이밸리.
2 탁 트인 시야의 동해 바다.



Now in Gangneung: Five Key Highlights

Walking along Korea’s only coastal terrace, sipping coffee with a view of the blue East Sea, and discovering the creative ideas of local young entrepreneurs—this spring, all of these experiences await in Gangneung, Gangwon Province.

1 Anmok Beach: A Cup of Coffee, A Bite of Dessert

Gangneung and coffee are inseparable, and Anmok Beach is at the heart of this connection. It all started with the famous vending machine coffee that became a local legend, helping establish Gangneung as Korea’s coffee capital. For an authentic drip coffee experience, visit Bossanova Coffee Roasters, which has been serving freshly roasted beans since 2015. With its own roasting facility nearby and HACCP certification, this café ensures top-quality brews. Their signature blends, Anmok Blend and Mullae Blend, are must-tries, along with their seasonal specialty coffees. If you believe there’s always room for dessert, Café Lumière is the place to be. Their croissant cakes, generously layered with cream and topped with plump strawberries, are impossible to resist. For something uniquely local, visit Kangwonok Chapssaltteok (Anmok Beach Branch) and try their Chodang Corn Coffee or Chodang Corn Latte, infused with the delicate sweetness of Gangneung’s famous Chodang corn flour.



2 Haslla Art World: Where Art Meets the Sea

As you drive along Gangneung’s coastal roads, you’ll come across striking buildings perched on seaside hills, sparking curiosity. Among them is Haslla Art World, an eye-catching blue steel structure with a subtle purple hue. Created by Gangneung-born artists Choi Ok-yeung and Park Shin-jung, this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includes an art museum, hotel, restaurant, wedding hall, and convention center. The highlight of Haslla Art World is its outdoor sculpture park, where art seamlessly blends into the natural landscape. Walking along the cliffside trails—Seongseong Hwalyeop-gil, Pine Garden, and Reed Forest Path—feels like a scenic mini-trek, with carefully placed sculptures adding a touch of whimsy and emotion. One of the standout pieces is the Venus Garden, featuring a statue symbolizing fertility and abundance. Continuing downward, you’ll encounter a striking red steel structure, where a staircase leads to the Bio Air Museum and Nude Art Museum, both designed by Choi Ok-yeung. This glass-enclosed greenhouse spans 12 floors, offering a unique space where visitors can admire intricate works of art alongside plant and animal exhibits.

3 Badabuchae Trail: A Walk of Geological History

Stretching between Jeongdongjin and Simgok Port, the Badabuchae Trail takes its name from the old local term meaning “the end of the fan.” When viewed from above, the trail indeed resembles a fan unfolding toward the East Sea. As the only coastal terrace walk in Korea, the trail is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 No. 437, offering a rare glimpse into 2.3 million years of geological shifts. Despite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he Badabuchae Trail was off-limits to the public until just six years ago, previously serving as a military patrol path for coastal defense. Since then, the trail has become a must-visit destination in Gangneung. While many journeys are best shared with companions, the Badabuchae Trail is just as rewarding to explore alone. The crashing waves of the East Sea provide an invigorating soundtrack, and the path is lined with intriguing natural formations, each with its own legend. Highlights include the Helmet Rock, linked to the tale of General Gang Gam-chan, and the Fan Rock, reflecting local folklore. Further along, a pebble beach scattered with smooth, rounded stones tempts visitors to take a souvenir—though its natural beauty is best left untouched.





4 Imyeong-ro: A Creative Hub for Young Artists

Imyeong-ro is a vibrant neighborhood where young entrepreneurs and artists bring fresh, innovative ideas to life. One standout spot is The Barbershop Prop Shop, it showcases their signature otter character, “Moe,” along with an array of locally made postcards, stationery, stickers, and trinkets by creators who either reside in Gangneung or are inspired by the city. Another must-visit is San Soul, the studio and shop of artist Kang So-yul, a Gangwon native. Drawing inspiration from nature, she crafts beautiful clay products, each infused with her bright and playful energy. Though its signage is small, Oars is hard to miss, thanks to the steady stream of visitors. This charming shop specializes in lifestyle products inspired by Gangneung, the sea, and travel, offering a collection that is both refined and evocative. For quirky, handcrafted souvenirs, check out Life is a Potato, a brand launched by Park Yeon-jae, a Donghae-born sculptor. Among the most popular items are miniature flowerpots—each barely the size of a fingertip—shaped like corn, potatoes, acorns, and highland radishes.

5 Dojjaebigol Sky Valley: Walking Above the Ocean

For a higher vantage point over the East Sea—and a touch of theme park excitement—head to Dojjaebigol Sky Valley in Donghae City. Opened in 2021 between Mukho Lighthouse and Wolsotaeji, this adventure-themed attraction features thrilling experiences like the Skywalk, Sky Cycle, and Giant Slide. Visitors can also explore Dokkaebi Art House, which sells food, souvenirs, and local crafts. The moment you spot the giant, playful Dojjaebi (the Gangwon dialect for “dokkaebi,” or goblin), you’ll know you’ve arrived at the right place. After climbing a steep hill, you’ll reach the ticket booth, where you can purchase entry and activity passes. Ready for an adrenaline rush? Try the Sky Cycle, where you ride a bike along a cable wire high above the ground. And if you make it to the Skywalk, standing 59 meters above sea level, you’ll be rewarded with breathtaking panoramic views of the East Sea.



포르투에서 떠나는 소도시 여행

포르투에서 기차로 1시간이면 운하 도시 아베이루와 줄무니 마을
코스타노바에 닿는다. 두 도시가 품은 선명한 색에는 긍정의 기운이 넘친다.
아름다운 그림책 같은 기차역도 포르투갈 기차 여행을 특별하게 만든다.





옷 마켓에는 최신 유행의 레스토랑과 바 14개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있다. 야외에 설치한 높이 21미터 탑은 기차역의 물탱크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이곳에 포르투갈 와인 전용 테이스팅 룸을 마련했다. 와인 테이스팅 룸 창가에 앉으면 주황색 지붕 너머로 클레리구스탑이 고개를 내민다. 구시가 어디서나 보이는 클레리구스탑은 260년 전에 건축한 포르투의 랜드마크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출신 건축가 니콜라우 나소니는 1753년 성직자형제회의 의뢰로 종탑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1763년 75미터 건물 꼭대기에 철제 십자가를 올리며 바로크양식 종탑을 완성했다. 덕분에 매년 12만 명의 여행자가 밤낮으로 탑 위에 올라 360도로 펼쳐지는 파노라마 전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클레리구스탑 근처에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아르누보풍의 렐루 서점이 있다. 영국 소설가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의 마법 학교 계단을 탄생시키는 데 영감을 준 장소로 유명하다. 서점의 천장과 맞닿은 갈색 서가와 한가운데 자리한 붉은 계단의 유려한 선이 고혹적이다. 서가에는 희귀한 고서부터 정치서, 역사서와 세계 각국의 소설, 가이드북까지 다양한 책이 꽂혀 있다. 렐루 서점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 바로 옆 올리브 나무 정원의 노천카페, 베이스 포르투로 향한다. 올리브나무 아래 자리한 테이블은 책 읽기에 더할 나위 없다. 책을 읽다 잔디밭에 놓인 빈백에 기대 앉으면 기분 좋은 꿈을 꾸는 것만 같다. 간간이 들려오는 클레리구스탑 종소리가 지금 이곳이 포르투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파도빛 아줄레주의 낭만, 포르투

갈매기 울음소리가 번지는 강가에 아줄레주로 알록달록 꾸민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도루강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유람선 하벨루와 건너편 빌라노바드가이아의 도시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포르투갈의 어원이 된 항구도시 포르투(Porto)의 히베이라 광장 풍경이다. 아줄레주는 유약으로 그림을 그려 넣은 타일 장식으로 포르투갈에서는 15세기부터 성당이나 기차역 등에 사용해 왔다. 도루강 변에서 상벤투역이 있는 언덕을 따라 성 프란시스코 대성당, 볼사궁전, 포르투 대성당이 차례로 등장한다.

미로 같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푸른 아줄레주가 자주 눈에 들어온다. 카르무 성당 앞 건물목에 서면 흰색 바탕에 우아한 창문과 어우러진 아줄레주 장식을, 알마스 성당 앞길에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와 성녀 카타리나의 생애를 담은 아줄레주를 만난다. 구시가 중심, 상벤투역 내부의 아줄레주 벽화는 마치 한 권의 그림책을 펼쳐 놓은 듯하다. 상벤투역은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던 자리에 재건한 기차역으로 건축가 조제 마르케스 다 실바가 설계하고, 화가 조르즈 콜라수가 벽화를 맡았다. 콜라수는 1905년부터 1916년까지 11년에 걸쳐 무려 2만여 장의 타일에 포르투갈 역사의 주요 사건을 그려 넣었다. 포르투갈 초대 군주 아폰수 1세와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를 연 엔리크 왕자도 그림 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

이토록 아름다운 상벤투역은 아침부터 밤까지 승객들로 붐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약간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타임 아웃 마켓으로 향할 것. 지난해 5월 상벤투역 남쪽 건물에 문을 연 타임아



- 1 아베이루행 기차가 출발하는 상벤투역 플랫폼.
- 2 타임 아웃 마켓의 포르투 와인 테이스팅 룸에서 바라본 클레리구스탑.
- 3 푸른 아줄레주 벽화가 아름다운 포르투 상벤투역.
- 4 히베이라강 변을 거니는 사람들.





1 포르투갈의 베네치아라 불리는 아베이루 운하에는 곤돌라보다 화려한 물리세이루가 떠다닌다. 2 아베이루의 명물 디저트, 오부스몰르스. 3 아줄레주로 꾸민 옛 아베이루 기차역. 4 해산물이 풍부한 아베이에선 다양한 생선구이와 해물밥을 즐길 수 있다. 5 물리세이루를 모는 뱃사공.

물길 따라 여유가 흐르는 아베이루

아베이루(Aveiro)는 포르투에서 언제든 훌쩍 떠나기 좋은 운하 도시다. 상벤투역에서 근교선 U 열차로 1시간 거리라 당일치기 여행으로 다녀오기 그만이다. 아베이루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서는 눈처럼 하얀 건물을 캔버스 삼아 푸른 벽화가 그려진 건물이 눈길을 끈다. 건물의 정체는 1861년에 지은 옛 아베이루 기차역. 외벽에는 염전을 일구는 사람들, 물리세이루(Moliceiro)를 이용해 수초를 나르는 사람 등 아베이루가 지나온 시간을 보여주는 아줄레주 벽화가 가득하다. 옛 아베이루 기차역에서 중심가로 가는 길로 들어서면 물결무늬의 포르투갈 전통 자갈 바닥인 칼사다포르투게사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운하에 도착하면 이번에는 물리세이루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곤돌라보다 화려한 물리세이루는 아베이루 운하를 오가는 배다. 물리세이루에 깃든 이야기는 수초에서 시작된다. 호수와 바다가 만나는 하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아베이루 사람들은 석호에서 수초를 채취하고 이를 바다로 나르기 위해 운하를 조성했다. 빨강, 노랑, 초록 등 총천연색 배에 수초를 싣고 운하를 부지런히 오갔다. 사람들은 수초, 즉 몰리수(moliço)를 배에 싣고 나르는 남자와 배를 물리세이루라고 불렀다. 세월이 흘러 물리세이루가 몰던 배는 유람선이 되어 여행자를 싣고 물리세이루의 흔적을 반추하듯 유유히 운하를 떠다닌다.

물리세이루만큼 유명한 아베이루의 명물은 달걀노른자와 설탕을 듬뿍 넣어 만든 과자 오부스몰르스(ovos moles)다. 본격적으로 운하를 둘러보기 전, 밖에서 벨을 누르면 문을 열어 주는 스피크이지 바 같은 오부스몰르스 가게, 엠1882(M1882)에 들른다. 1882년 문을 연 이래 143년째 오부스몰르스를 만들어 파는 노포다. 엠1882에서 산 오부스몰르스를 들고 물리세이루에 오르자 가이드가 운하에 깃든 이야기를 들려준다. 운하 옆에는 아르누보풍 건물이 많은데, 과거 소금으로 돈을 번 상인들이 부를 과시하려고 건물을 화려하게 꾸몄다고 한다. 반면 어부들은 빨강, 파랑 등 원색으로 건물 외관을 칠했다. 물 위에 일렁이는 컬러풀한 색을 바라보며 오부스몰르스를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진다.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다.



세상의 모든 줄무늬, 코스타노바

아베이루 옆 코스타노바(Costa Nova)에 가면 가로세로 줄무늬에 저마다 다른 색으로 칠한 집들이 줄지어 있다. 파란 하늘 아래 빨강, 노랑, 초록 색깔을 입은 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다. 줄무늬 집에 얹힌 이야기는 어부의 아내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 앞 바다에는 안개가 잦았다.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간 남편은 짙은 안개를 뚫고 물으로 돌아오며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것이다. 남편의 안전이 걱정되고 그림기도 한 아내는 어느 날, 남편이 멀리서도 집을 또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줄무늬를 그리고 등불처럼 밝은색을 칠했다. 그 발랄한 아이디어와 따뜻한 마음이 옆집 또 옆집으로 이어져 호숫가 집들이 모두 줄무늬 옷을 입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줄무늬 집들은 카페나 가게, 여름 별장으로 변했지만, 코스타노바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줄무늬 마을이 되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오색찬란한 줄무늬 마을 뒷길은 대서양으로 통한다. 모래언덕 위로 난 산책로를 따라 한참을 걸으면 모래언덕에 가려 보이지 않던 바다가 모습을 드러낸다. 파도는 세차고, 해변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먼지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대한 바다다. 오래전 대서양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 헤메던 한 어부가 석호 너머로 보이는 이 바다를 발견하고 새로운 해안이란 뜻의 '코스타노바'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해변에서 줄무늬 마을로 돌아오는 길, 지붕 아래 '메우 소누(Meu Sonho)'라는 글귀가 적힌 집이 눈에 들어온다. 함께 여행을 하던 포르투갈 친구에게 뜻을 묻자, '나의 꿈'이라고 말해 준다. "어부들은 가족과 함께 살 집을 장만하는 게 꿈이었어. 이 집은 그 시절 어느 어부가 이룬 꿈이었을 거야." 꿈을 이룬 어부를 상상하니 어쩐지 벅찬 마음이 되어 '메우 소누'를 되뇌어 본다. 새로운 해안, 코스타노바에서 잊고 있었던 나의 꿈을 되찾은 기분이다.

알아 두세요

포르투 가는 법

한국에는 포르투로 가는 직항 노선은 없다.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의 도시를 경유해 포르투로 가거나, 리스본 공항으로 입국한 뒤 비행기나 기차, 버스를 타고 포르투로 이동한다. 리스본에서 포르투로 가는 교통수단은 비행기, 기차, 버스 순으로 빠르다.

포르투갈 철도 이용 팁

포르투갈 국영 철도(CP)는 버스보다 요금은 비싸지만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다. 종류는 고속열차(AP), 급행열차(IC), 일반열차(R), 근교선(U 열차) 네 가지로 소요 시간과 배차 간격이 각각 다르다. 포르투갈 국영 철도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승차권 구매가 가능하다. 출발일 기준 두 달 전에 예약이 시작되며, 일찍 예약하면 행사가로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예약 변경은 한번만 가능하다. 문의 www.cp.pt

포르투-아베이루-코스타노바 이동 방법

포르투 상벤투역에서 아베이루까지는 U 열차를 이용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5분마다 출발한다. 예약하지 않더라도 운행 횟수가 많아 역내 자동 발매기나 판매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하기 쉽다. 아베이루에서 코스타노바까지는 버스 노선이 있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택시를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즐길 거리

아베이루 여행의 백미는 유람선 투어. 물리세이루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면 45분간 운하에서 도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떠나기 전에

여행은 꿈꾸는 순간 시작되고, 여행 준비는 가이드북을 읽는 순간 시작된다. 진짜 포르투갈을 소개하는 가이드북 <리얼 포르투갈>을 읽으며 포르투갈 기차 여행을 계획해 보자.

1 오색찬란한 줄무늬 집이 나란히 늘어선 풍경. 2 '나의 꿈'이란 뜻의 포르투갈어, 메우 소누. 3 줄무늬 마을과 대서양을 잇는 산책로. 4 코스타노바 줄무늬 마을의 아담한 집을 구경하는 사람들.

다시 찾은 청춘, 다시 만난 꿈

연중 온화한 기후와 눈부신 자연경관,
마치 지상 낙원과도 같은 꿈은 취향과 개성에 따라
다양한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다.
엄마와 딸이 함께 떠난 힐링 여행,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 여행,
부부의 로맨틱한 리마인드 웨딩, 꿈정부관광청과
더뉴그레이가 중년층을 위해 특별한 여행을 제안한다.

엄마와 딸, 특별한 동행

시니어 모델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엄마 오주실, 유튜브 채널에서 1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딸 비니, 조금 특별한 두 모녀가 괌 여행을 떠났다.

“엄마, 세상은 넓고 아름다워!” 이번 여행을 통해 딸은 엄마에게 가까운 곳에서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엄마로서 짊어진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새로운 세계를 즐기기를 바라며 떠난 여행. 친구 같은 모녀가 선택한 괌의 명소는 바로 이곳이다.

모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힐튼 괌 리조트 & 스파. 객실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와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 하루는 오롯이 쉬기만 하자!” 엄마의 제안에 모녀는 수영복으로 갈

아입고 호텔 수영장으로 향했다. 힐튼 괌 리조트 & 스파는 인피니티 풀을 비롯해 다양한 수심의 수영장을 갖춰 원하는 스타일대로 물놀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또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프라이빗 비치와 연결되어 바다를 만끽할 수 있다.

호캉스의 꽃은 스파가 아닐까. 은은한 아로마 향이 퍼지는 리조트의 스파 아유아람(Spa Ayualam)에서 전문 세러피스트의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이 온몸을 감싸자 긴장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린다. 90분이 순식간에 지나고 몸과 마음이 가뻔해졌다.

완벽한 힐링의 마무리를 위해 크라운 플라자 리조트 괌의 로비 바로 향한 엄마와 딸. 세련된 인테리어와 환상적인 바다 전망의 로비 바에 들어서자 두 사람의 카메라가 바빠졌다. 연신 “멋지다”를 외치던 모녀 앞에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애프터눈 티 세트가 차려졌다. “여행 할 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도 필요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평소라면 엄두도 나지 않을 모닝 요가 클래스도 신청했다. 미리 챙겨 온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모녀는 푸른 잔디가 펼쳐진 야외 공간으로 향했다.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몸과 어려운 동작에 긴장했던 것도 잠시, 이내 호흡을 맞추며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손을 위로 뻗으며 눈을 감은 순간, 잔잔한 파도가 부드러운 바람결에 실려 와 온몸을 휘감는다.

본격적인 액티비티도 빼놓을 수 없다. 괌 북부에 위치한 탕기스 비치의 ‘버섯 바위’라고 불리는 크고 작은 기암괴석과 함께 선셋이 아름다운 곳이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해변을 거닐며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다. 괌에서 즐기는 ATV는 확실히 한국과 다른 느낌이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울퉁불퉁한 정글 길을 달리자 저절로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모녀는 환하게 웃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번 여행의 진짜 선물은 바로 이런 순간이라는 걸 깨닫는다. “비니야, 우리 괌에 또 오자!” 밝게 웃는 엄마를 본 딸은 지금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 1 힐튼 괌 리조트 & 스파의 모닝 요가 클래스.
- 2 버섯 모양 바위로 유명한 탕기스 비치.
- 3 크라운 플라자 리조트 괌에서 맛보는 애프터눈 티 세트.
- 4 마יתי 퍼플 카페의 상큼한 아사이볼.



INTERVIEW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맛집이 있나요?

햇별이 팽팡한 날, ‘마יתי 퍼플 카페’에서 먹은 아사이볼이 최고였어요. 한 입 먹는 순간, 상큼함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더위가 싹 가시더라고요. 시원하고 건강한 달콤함이 지금도 생각나요.

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은 무엇인가요?

탕기스 비치에서 체험한 ATV 정글 투어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울창한 정글을 달리다가 탁트인 바다를 마주한 순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죠. 체험이 끝난 후 먹은 컵라면과 맥주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조합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다시 괌에 온다면 뭘 하고 싶어요?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해먹에 누워 종일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어요.

INTERVIEW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맛집이 있나요?

'레드 라이스'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음식이 빨개서 매울 줄 알았는데, 한 입 먹어 보니 육류, 해산물 등 모든 음식과 찰떡궁합이었어요. 광에서 맛본 현지식 중 가장 맛있었어요.

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은 무엇인가요?

레오팔레스 컨트리 클럽에서의 골프 라운드를 꼽고 싶어요. 그림 같은 코스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직 실력은 부족하지만 서로 응원하며 진심으로 즐긴 시간이었죠.

다시 광에 온다면 뭘 하고 싶어요?

다음에는 컨버터블 스포츠카를 렌트해 광남부 해안 도로를 달리고 싶어요. 스쿠버다이빙도 도전해 보고 싶고요. 이렇게 맑은 바다에서 수영만 하기는 아까우니까요.



1아초테 씨앗 우린 물로 밥을 지은 광 전통 음식, 레드 라이스.
2레오팔레스 컨트리 클럽은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이국적인 풍광에 둘러싸여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3광의 대표 명소인 사랑의 절벽.
4광 투몬 지역의 건비치는 3대 석양 포인트로 꼽힌다.



평균 나이 59세, 여자들의 우정 여행

실제 나이는 다를지라도 마음만은 20대 못지않은 그들, 김테레사·오승하·권미숙 세 친구가 광으로 우정 여행을 떠났다. 오랜 세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우정을 쌓아온 그들이기에 더욱 특별한 여행. 청춘의 또 다른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기분이다. 따뜻한 바다, 그림 같은 석양, 그리고 멈추지 않는 웃음소리. 드디어 그들의 우정 여행이 시작된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건비치. 여행자들이 반드시 들르는 코스 중 하나다.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자 가슴이 뻥 뚫린다. 눈부신 백사장을 걸으며 그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둘 풀어놓자 어느새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간다.

이튿날 세 친구는 광의 대표 명소인 '사랑의 절벽'으로 향했다. 광 북부에 자리한 이곳은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는 바다 풍경이 일품이다. 탁 트인 시야, 깊고 푸른 바다, 절벽 아래 부서지는 파도 소리까지. 건비치에서 보던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파도 좀 봐!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네." 마음 깊은 곳의 걱정 근심이 파도에 쓸려가는 듯하다. 두 손을 들고 자리에서 폴짝

뛰는 점프 샷도 찍어 보았다.

사계절 쾌적한 날씨를 자랑하는 광은 골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곳이다. 광의 골프장은 탁 트인 태평양을 바라보며 티샷을 할 수 있는 홀이나 코스가 많다. 우리나라와 달리 셀프 플레이가 가능하고, 카트피도 없어 합리적인 비용에 잘 관리된 코스에서 여유롭게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세 친구도 우정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골프장을 찾았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레오팔레스 컨트리 클럽. 아널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 게리 플레이어 등이 디자인한 곳으로 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특징이 각각 다른 4개 코스 총 36개 홀에서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어 도전 욕구를 자극한다. 전략적 플레이가 요구되는 히비스커스 코스, 해저드와 벙커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모든 레벨의 골퍼가 즐기기에 좋은 오키드 코스, 광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부겐빌레아 코스가 대표적이다. 평지처럼 보이지만 매 홀 언듈레이션이 만만치 않다. "이 코스 쉽지 않네!" "그러니까 더 재미있지."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린을 향해 샷을 날리는 순간, 그들은 또 한 번 자유를 만끽했다.

사랑을 다시 맹세하는 순간

삶의 많은 시간을 함께한 부부에게 결혼기념일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하겠다는 다짐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이벤트로 '리마인드 웨딩'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그 장소로 콤팩트 로맨틱한 곳도 없다. 리마인드 웨딩에 남부 드라이브 여행을 더한다면 완벽한 결혼기념일을 보낼 수 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두 손을 마주 잡고 다시 한번 사랑을 맹세하는 순간. 호텔 닛코 콤팩트 크리스탈 채플은 특별한 그 시간을 더욱 빛나게 해 준다. 오직 신랑 신부와 그 가족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운영해 사랑의 순간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



1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와 높은 천장, 통유리로 스며드는 자연광이 화사한 분위기를 만든다. 마치 바다 위에서 서약하는 듯한 감동을 선사하는 이곳에서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결혼식의 주인공이 된다.

리마인드 웨딩의 감동을 이어 갈 여행지는 콤팩트 남부다. 관광지의 화려함보다는 대자연이 주는 경이로움과 평온함이 가득한 지역이다. 신혼여행을 다시 떠난 듯 둘만의 시간을 갖기에 제격이다. 바닥까지 투명한 에메랄드빛 물결이 찰랑이는 에메랄드 벨리는 바닷물이 내륙으로 스며들어 형성된 작은 수로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이곳은 부부에게 조용한 힐링을 선사한다. 손을 맞잡고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처음 여행을 떠났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든다.

콤팩트 남부의 절경을 한눈에 담기 좋은 곳으로는 세티 베이 전망대와 솔레다드 요새가 제격이다. 크고 작은 봉우리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세티 베이 전망대는 그림 같은 풍광을 선사한다. 한때 영국 함대와 해적을 감시하는 곳이었던 솔레다드 요새는 콤팩트 여행자들에게 남부의 시원한 전경을 감상하는 최고의 포인트로 손꼽힌다. 특히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은 우마타크 마을을 향해 놓인 작은 벤치다.

콤팩트 최남단에 위치한 메리조 부두는 차모로어로 '작은 물고기'를 뜻하며, 현지인들에게 피크닉 명소로 사랑받는다. 수심이 얕고 물이 맑아 속이 훤히 비친다. 스페인 통치를 받던 시기에 건설한 탈리팍 다리는 해 질 녘에 더욱 아름다워진다. 군청색 하늘이 서서히 질어지며 붉은 노을이 번지는 이곳에서 부부는 함께하는 세월의 깊이를 더욱 실감한다.

남부 투어의 마무리는 화산활동으로 생긴 천연 풀장이 제격이다. 흘러내린 용암이 굳어 형성된 바위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이나라한 자연 풀장은 실내수영장처럼 고요하다. 수심이 다른 2개의 풀에서는 수영뿐 아니라 스노클링도 가능하다. 높이가 다른 바위 위에서 다이빙도 할 수 있다.



2

- 1 콤팩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투몬 비치.
- 2 솔레다드 요새에서 가장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는 우마타크 마을을 향해 놓인 벤치다.
- 3 리마인드 웨딩 장소로 각광받는 호텔 닛코 콤팩트 크리스탈 채플.
- 4 룡혼 스테이크하우스의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



3



4

INTERVIEW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맛집이 있나요?

콤팩트 프리미어 아울렛 앞에 있는 '룡혼 스테이크하우스'를 꼭 먹고 싶어요. 두툽한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이게 진짜 스테이크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콤팩트 대표 맛집답게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와 촉촉한 매시트 포테이토, 입맛 돋우는 다양한 애피타이저까지, 하루의 마무리로 완벽해요.

리마인드웨딩 하기 좋은 곳을 알려주세요.

콤팩트에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 웨딩 채플이 여럿 있었어요. 그중 대표적인 곳이 호텔 닛코 콤팩트 크리스탈 채플이죠. 사전에 예약하면 리마인드 웨딩과 함께 채플 스냅 촬영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콤팩트에 온다면 뭘 하고 싶어요?

부부만의 여행을 경험했으니,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오고 싶어요. 정글 투어나 돌핀 투어 같은 액티비티도 좋고요.

모르는 의자가 말을 건다

서울에서 발견한 의자를 촬영하고
책으로 엮은 소동호 디자이너.
그와 함께 중구와
종로구 거리에 놓인 사물을
새롭게 바라봤다.





1

1 2020년 폐업한 '세운기술서적'을 기억하기 위해
간판을 의자 형태로 바꿔 공중 보행로에 설치했다.
2 드릴 프레스 높이에 맞춰 의자 다리를 잘랐다.
철공소 골목에서 흔히 마주하는 풍경이다.
3 의자를 가방으로 활용한 사례. 거꾸로 세우니
수납공간이 생겼다. 4 플라스틱 의자 다리에
나무 막대를 덧대고 색색의 끈과 테이프로 감았다.
5 잠시 자리를 비운 듯한 시계상의 의자.



092



3



4

같은 길을 걷더라도 사람마다 감각하는 지점이 다르다. 누군가는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과 행동에 주목하고, 또 다른 이는 죽 늘어선 건물 형태와 쓰임새에 눈길을 준다. 가구 디자이너 소동호의 시선은 길거리 의자에 머물렀다. 새롭게 마주할 풍경을 기대하며 낮은 골목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 그의 특별한 도시 기록법을 배울 시간이다.

서울의 길거리 의자들

건축을 전공한 소동호 디자이너에게 의자는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유명 건축가의 작품이거나 독립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작업물이었다. 2015년 서울 을지로에 작업실을 얻은 시점부터 그 생각이 바뀌었다. 작업실 주변을 산책하면서 우연히 마주한 거리 곳곳의 의자는 기존에 보던 그것과 차이가 있었다. 밝은 조명 아래 예술품처럼 전시된 것과 달리 길거리 의자는 버려진 건지 쓰이는 건지 경계가 모호했다. 오히려 그 점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기한 마음에 사진을 찍었으나 자료가 조금씩 쌓이니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용자의 의도와 생활의 흔적이 묻어났고, 같은 직종에 몸담은 사람들의 의자에선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의자 사진을 찍어 온 소동호 디자이너는 지난해 11월, 350개 의자를 담아 <서울의 길거리 의자들>을 출간했다.

소동호 디자이너의 의자 아카이빙에는 몇 가지 기준과 원칙이 있다. 우선 본인에게 말을 거는 의자여야 한다. 발길을 멈추게 하고 시선을 끄는 대상이어야 휴대폰을 꺼내 든다. 기록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늘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을 사용해도 충분하다. 의자를 촬영할 땐 위치를 옮기거나 주변을 정리하지 않고 원래 모습대로 포착한다. 그와 함께 서울 의자 탐방에 나섰다. 종로구 세운상가 앞에서 출발해 오직 의자를 찾아 골목을 샅샅이 누볐다.

3분쯤 지났을까. 세운상가 근처에서 첫 번째 의자와 마주친다. 회색 플라스틱 의자에 쿠션을 덧댄 형태다. 의자와 쿠션을 연결한 초록색 끈을 관찰하는데, 소동호 디자이너의 눈이 벽에 붙은 달력으로 향했다. “의자 주변에 달력이나 시계가 있으면 의자 주인이 가까



5

이서 일한다는 의미죠.” 몇 걸음을 옮기니 방이라고 해도 될 법한 공간이 나온다. 투명한 진열대 안에 시계를 보관했고 의자는 약간 틀어졌다. “예지동 시계 골목을 재개발하면서 여기에 영업장을 마련해 준 것 같아요.” 비록 진열대 위에 먼지가 가득하지만, 사람이 급하게 일어나다 돌아간 듯한 의자의 방향과 ‘출장 중’이라는 문구가 기다리는 마음을 품게 한다. 아마도 시계상일 의자 주인의 외출을 잠시 상상했다.

세운상가와 청계상가를 잇는 공중 보행로에서는 누구나 의자 주인이 될 기회를 얻는다. 옛 간판을 활용한 공공 의자 덕분이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간판을 세워 놓은 것 같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금세 의자임을 깨닫는다. ‘세운기술서적’이라는 문구가 크게 박혀 지역명을 알리는 표지판이자 시민들의 지친 다리를 쉬게 해 주는 의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사람과 가장 가까운 건축물

중부건어물시장 근처에서 나무에 묶어 둔 의자를 살펴보던 중 주인이 나타났다. “의자를 자꾸 훔쳐 가서 비상용으로 둔 거예요. 먼지가 쌓여 비닐로 덮어 덮어요.” 원래 쓰던 의자에는 주차 관리원 의자이니 가져가지 말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팔걸이에 고정된 나무 막대는 비 올 때 우산을 연결하는 용도다. 의자 앞 택배 박스 또한 옆으로 눕혀 텀블러나 가방을 보관하는 데

093

이불로 이용한다. 전봇대에 붙인 커피 믹스 상자는 영수증 보관함으로 변모했다. “장면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소동호 디자이너의 말을 들으니 길거리 한복판에서 설치미술을 감상하는 관람객이 된 기분이다. 운 좋게 길거리 도슨트까지 만났다. 소동호 디자이너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의자는 중부건어물시장 맞은편 방산시장에서 발견했다. 제작자는 주차 관리원이었다. “산업용 기름통에 골판을 얹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 등받이 없는 의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주차 관리원 특성상 계속 이동을 하니 가벼운 의자가 필요했던 거죠. 밤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주차 관리원이 퇴근하면서 택시 승강장 벤치 아래에 의자를 넣고 가는 거예요. 보관까지 고려

해 디자인한 거죠.” 이후 의자를 바라볼 땐 어떤 의도가 담겼는지에 집중했고 이제 그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대략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의자는 사람과 밀접한 가구인 만큼 지역이나 장소별 특징이 다르다. 읍지로처럼 작업장이 많은 동네에서는 대다수가 변형된 모습을 띤다. 철공소 골목의 의자는 다리가 짧은다는 공통점이 있다. 철제에 구멍을 뚫는 기계인 드릴 프레스가 높지 않아 목욕 의자처럼 낮은 의자에 앉아 작업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이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이곳은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지 주택가와 달리 가져가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의자가 수도룩하다. 거리에 나온 의자는 주인이 없다고 여겼는데 모든 의자에 해당되는 건 아니었다. 그간 버려진 거라고 오해한 의자가 얼마나 많을까 감히 세지도 못하겠다. 하나의 목적을 품은 채 즉흥적으로 걷는 과정은 게임과도 같다. 여정을 마무리할 즈음 소동호 디자이너의 수집 기준인 ‘말을 거는 의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한다. 의자가 기울어져 다른 의자에 기댄 것처럼 보이거나 가방을 걸어 놔서 사람이 앉은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연인처럼 또는 학생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아 슬쩍 말을 걸고 싶어진다. 의자 시트에 무 하나만 올라가도 의자가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다. 주인이 버린 건지 놓아둔 걸까 먹은 건지, 혹은 잠시 뒤 찾으러 올 건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시간을 되돌려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도 이토록 상상할 여지가 많다니.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시선의 차이이고, 그 시선은 세심한 관찰을 통해 얻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 **소동호 디자이너가 알려 주는 도시 산책법**

“대상 하나를 정해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만 보여요. 처음부터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며칠간이라도 글이나 사진으로 기록해 보세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는 몰랐다가 기록물이 쌓인 후엔 해당 지역을 해석할 단서를 찾게 될 거예요.”



1 햇볕을 피해 그늘에 숨은 의자. 틈을 자세히 봐야 감춰진 사물이 눈에 들어온다. 2 중부건어물시장 입구에 의자 여러 개가 놓여 있다. 근처 가게에서 호떡을 구매한 손님이 잠시 앉아 먹고 가기도 한다. 소동호 디자이너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사람을 기다리는 중인 빈 의자를 촬영하고 있다. 3 드라이버로 의자를 분리하는 고물상. 4 하나의 의자가 다른 의자에 기댄 것처럼 보인다.





2018년 중구 남산동2가

명동의테마거리 재미로의한만화방앞에서만났다.
장소를알면형태가이해된다.

소동호 디자이너가 소개하는 서울의 길거리 의자들



2018년 중구 을지로4가

철제강통에골판지를두겹게접어올리고테이프로
고정했다. 옮기기편하고보관이용이해보인다.



2018년 중구 을지로4가

금방이라도빗자루를타고날아갈것같다. 다리에
끼운테니스공이재미를더한다.



2018년 종로구 장사동

의자가'정글'하고인사를건네는듯하다. 등받이
한쪽이떨어져나가기능은없었지만표정을얻었다.



2019년 종로구 낙원동

도로와보도사이에의자가위태롭게놓였다.
캐릭터눈망울이당시상황과절묘하게맞아떨어진다.



2020년 종로구 종로5가

다양한색상의행주를걸어놓았다. 집에서사용하는
의자도빨래건조대나옷걸이가될때가있다.



2020년 종로구 장사동

다리를다친의자가좋은의사를만났다. 평범한나무
의자지만멋지고튼튼한금속다리를가지게됐다.



2021년 은평구 갈월동

안경가게를안내하는표지판으로변모한의자. 직접
써붙인타이포그래피가인상적이다.



2022년 중구 을지로3가

주차관리원의의자. 군용탄띠같은벨트에생수병을
이어붙였는데, 어떤기능을하는지알수가없다.

made in

창원을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CHANGWON

no.03



1



2



3



5



4



6



interview

강동완 디벨로퍼 대표

디벨로퍼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길거리 축제를 기획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보통 로컬 크리에이터 회사가 여행 상품을 만들거나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라 보여요. 저희는 처음부터 여행사보다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기획사가 되고자 했어요. 이 름처럼 디벨로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창원은 특례시가 된 후 14년 만인 지난해에 인구가 100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 위기를 겪었어요. 창원을 떠나는 시민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인 데, 그분들을 잡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여행객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창원을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나요?** '세모로 페스타'를 두 번째 개최하며 여행객이 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첫 회엔 참가자 대부분이 창원 시민이었는데, 2회 때는 참가자 중 절반 정도가 여행객이었습니다. **여행지로서 창원은 어떤 매력에 있나요?** 마산, 창원, 진해를 아우르는 창원특례시는 다양한 성격을 띤 지역이에요. 마산에는 원도심의 고즈넉함과 함께 경남의 아름다운 바다가 있죠. 진해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균형제로 유명하고요. 창원은 계획도시답게 정비가 잘되어 있고, 시설 좋은 호텔도 많아요. 전국에서 강남구 다음으로 카페와 베이커리가 많은 곳이 창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재미있는 창원을 위한 작당모의

디벨로퍼

창원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디벨로퍼'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창원에서 가장 재미있는 축제로 손꼽히는 '세모로 페스타'가 디벨로퍼의 기획으로 탄생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골목 투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지역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경연을 하거나, 인근 맛집을 모아 플라마켓을 열기도 한다. 지난 가을에 진행한 '테이스티 로드'에선 줄 서서 먹는 맛집 열 곳의 푸드 트럭을 선보였다. 9900원에 열 곳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티켓은 사전에 매진됐고, 하루 동안 6000여 명이 다녀갔다. 디벨로퍼는 '로컬 아티스트를 위한 페스티벌'을 주제로 다양한 콘셉트의 이벤트를 기획한다. '다시 놀러 오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이 목표. 디벨로퍼의 손길이 닿은 곳의 재방문율이 50퍼센트를 넘기도 했다. 이 외에 다양한 지역 브랜드와 협업도 진행한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디벨로퍼의 본거지인 카페 '오우가'를 찾아가면 된다. 오우가에는 그동안 디벨로퍼가 제작에 참여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굿즈도 있다. 창원 지역 기업 몽고식품과 협업한 간장병에 든 콜드브루, NC 다이노스와 협업해 만든 디저트, 춘천의 로컬 맥주 양조장 감자아일랜드와 함께 출시한 맥주가 대표적이다. 삼각김밥 모양 피낭시에, 메주 모양 스콘도 디벨로퍼의 성격을 잘 담아냈다.

📍 오우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17번길 12

세모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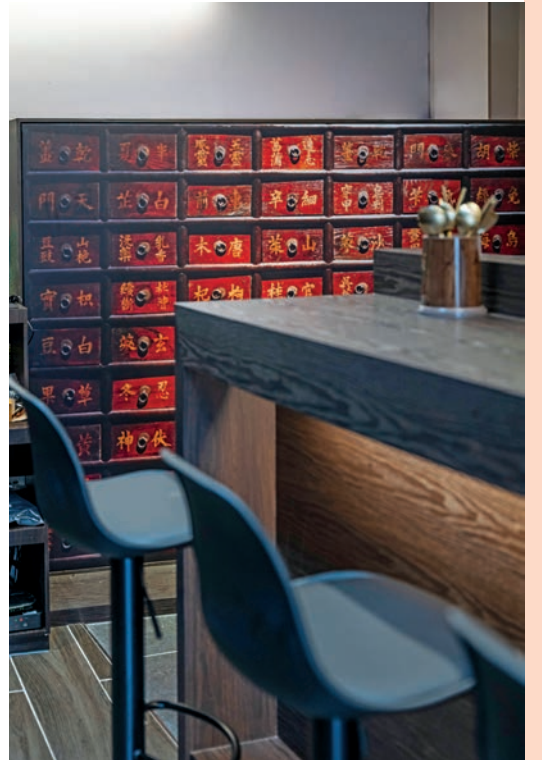
1



3



4



5

원조 '노잼 도시' 창원을 '유잼 도시' '맛잼 도시'로 변모시킨 일등 공신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모로드'다. 세모로드는 본래 창원시 원도심인 소답동과 이태원 경리단길의 이름을 합쳐 '소리단길'로 불렸는데, 어느 동네나 하나쯤 있는 '~리단길'로 불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세모로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4~5년 전만 해도 지나는 사람 하나 없이 행하던 세모로드가 창원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건 청년 사업가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 덕분.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의 기능을 상실한 소답동 일대에 패기 있는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 예술 거리가 되었다. 세모로드 곳곳에는 세련된 감성의 카페와 레트로 분위기의 레스토랑 등이 자리한다. 그중 '박말순'은 이 동네로 시집와 평생을 여기서 산 박말순 할머니의 이름을 딴 이탈리아 레스토랑. 완도전복 리소토, 툷 명란 오일 파스타 등 지역에서 난 싱싱한 식재료를 이탈리아 감성으로 재해석한 퓨전 메뉴를 선보인다. 한약방 콘셉트의 '윤가한약방'도 세모로드에서 꼭 가 봐야 할 곳. 곰국과 보쌈, 아홉 가지 반찬에 대추 치자밥을 더한 윤가정식은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로 하루 50인분만 판매한다. 유기농 카페 '오우가'와 타르트 맛집 '에드썸', 수제 소시지를 판매하는 '푸투베이커리'도 지나치기 아깝다. 세모로드에선 주기적으로 맥주 파티나 플리마켓,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려 지역민과 여행객의 발길을 끈다.

❶ 박말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34번길 17-8 윤가한약방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17번길 9-2 에드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16 푸투베이커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27번길 2

1 세모로드에서 유명한 식당 박말순.
2 박말순에서는 지역 식재료를 접목한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한다. 3 현지인과 여행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푸투베이커리.
4 푸투베이커리의 인기 메뉴, 수제 소시지뺑. 5 한약방 콘셉트의 식당 윤가한약방. 6 타르트 맛집 에드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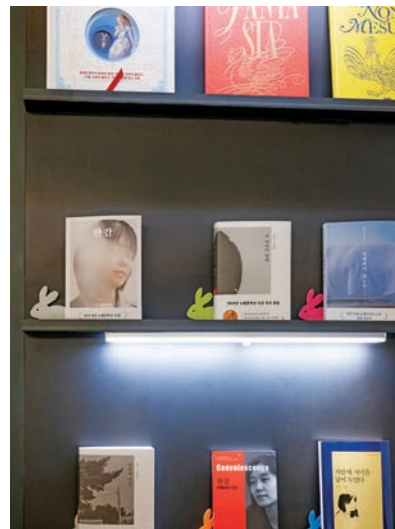
6



1



2



3

1 마산합포구에 자리한 책 바, 화이트래빗 2 화이트래빗에는 혼술하러 오는 손님이 많다. 3, 5 김병철 대표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책을 비롯해 손님들이 완독 후 두고 간 책이 책장에 가득하다. 4 화이트래빗에선 책만큼 다양한 칵테일을 맛볼 수 있다.



5

상상이 현실이 되는 원도심 바

화이트래빗



4

원도심의 느긋한 바이브를 만끽하고 싶은 여행자에게 '화이트래빗'은 적절한 목적지가 될 것이다. 술집이자 책방이며 커뮤니티 공간인 화이트래빗은 2021년에 오픈했다. 무역을 전공하고 10여 년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김병철 대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살던 마산 고향집을 개조해 만들었다. 김 대표의 추억 속 집이자 젊은 창작자들의 참새 방앗간 같은 곳. 낮에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서점 겸 카페이고, 밤에는 칵테일을 마시며 음악을 듣는 칵테일 바로 변모한다. 물론 위스키나 칵테일을 훌쩍이며 책을 읽는 낭만을 누려도 좋다. 화이트래빗이 추천하는 북 큐레이션도 눈여겨볼 것. 문학 예술, 인문학과 글쓰기, 다양한 술 세계까지 섭렵한 김 대표의 안목은 믿어도 좋다. 단골이 이 공간에 어울릴 만한 책을 직접 가져오기도 한다. 화이트래빗은 이벤트 무대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훌륭한 역할을 한다. 한 해를 시작하며 부적을 그리는 이벤트, 미국의 금주법이 끝난 리필 데이를 기념하는 포틀럭 파티, 또는 손님으로 왔다가 토크쇼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등 뜻밖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책과 술,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곳.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흰 토끼를 따라 신비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화이트래빗은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 준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5길 23



1



3

1, 2 일제강점기 주택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일본식 장옥(長屋) 거리. 3 장옥아트플레이스에선 과거의 진해 모습을 재현한 그림도 볼 수 있다. 4 장옥 거리의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한 장옥아트플레이스 외관. 5 진해그리다의 색동 굿즈와 에코백.



5



4

interview

정지윤 시티엔로컬협동조합 이사장

장옥아트플레이스에선 어떤 전시가 열리나요? 진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민화 작가, 한지 공예가 등의 작품 전시가 주로 열렸습니다. 색동 콘셉트의 '진해그리다' 굿즈를 직접 만들어 전시하기도 했죠. **진해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2020년 진해 돌산마을에서 새들마을 활동가로 일하면서 진해에 관심이 생겼죠. 사실 저는 마산 출신이라 진해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마을 활동가로 일하며 진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수도권 중심의 문화 기획에서 벗어나 지역 정체성을 살린 로컬리티를 구축하기 위해 시티엔로컬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진해그리다는 그 과정에서 탄생했고요. **듣고 계신 지도 그림도 그중 하나인가요?** 맞아요. 원도심을 조금 더 감각적으로 보여 주려고 장복산부터 여좌천, 중원광장, 속천 바다까지 진해의 대표적인 곳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진해에서 활동하며 느끼는 진해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진해에는 일제강점기 건물이 많이 남아 있어요. 국가등록문화재인 진해역, 마산의 러시아 영사관에서 영향을 받은 진해우체국, 일제강점기에 병원이자 관사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스타트업 창업 공간으로 변모한 '보태가' 등이 대표적이지요. 문화 예술 활동에 영감을 주고 무대도 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야말로 진해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예술을 입은 근대 역사 건물

장옥아트플레이스

장옥(長屋)은 일본식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한 지붕 아래 여러 가구가 모여 있는 가옥 형태로, 일제강점기 흔적이 남은 진해에서도 볼 수 있다. 진해구 백구로에 위치한 장옥 거리가 대표적. 거리엔 1910~1912년에 지은 2층짜리 일본식 건물 여섯 채가 길게 이어져 있다. 당시 건물 1층은 상가, 2층은 살림집으로 사용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 도장집, 인쇄집, 카페 등 상점이 들어서 있다. 1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장옥 거리를 걷다 보면 유독 한 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시장 겸 공방이자 지역 주민의 사랑방이기도 한 '장옥아트플레이스'가 그곳이다. 화가이자 지역 문화 기획자인 정지윤 시티엔로컬협동조합 이사장이 주인장이다. 2020년 진해에 터를 잡은 그는 낙후한 동네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빈집을 빌려 시티엔로컬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진해그리다'는 정지윤 이사장의 그림을 바탕으로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고 드로잉 클래스, 실크스크린 체험 등을 진행하는 장옥아트플레이스의 간판 브랜드다. 화려한 컬러와 과감한 터치로 진해의 이야기를 담아낸 그의 그림은 엽서, 아트 북, 퍼즐을 비롯해 티셔츠와 에코백 등을 장식하고 있다. 장옥아트플레이스에서는 그림을 전시하거나 굿즈를 판매하고, 주기적으로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19-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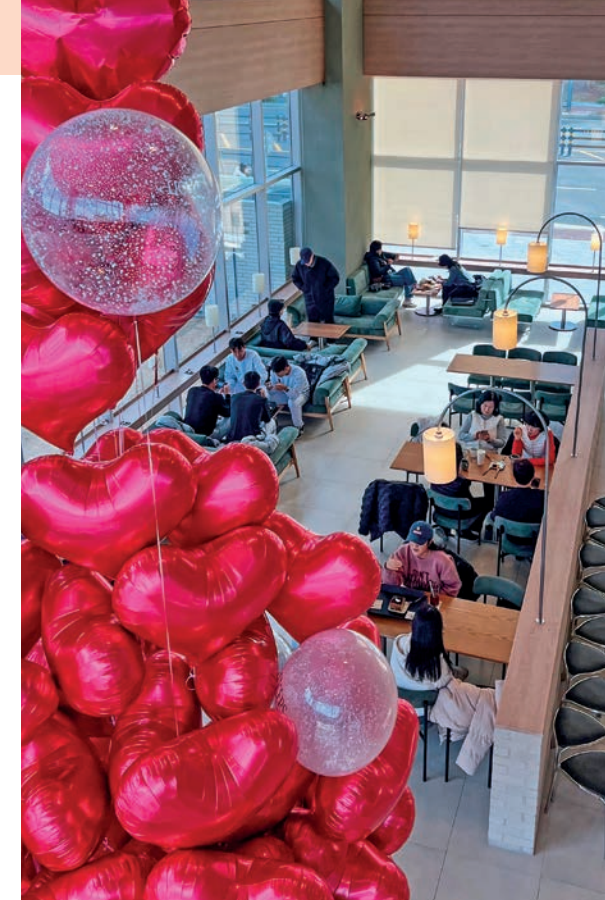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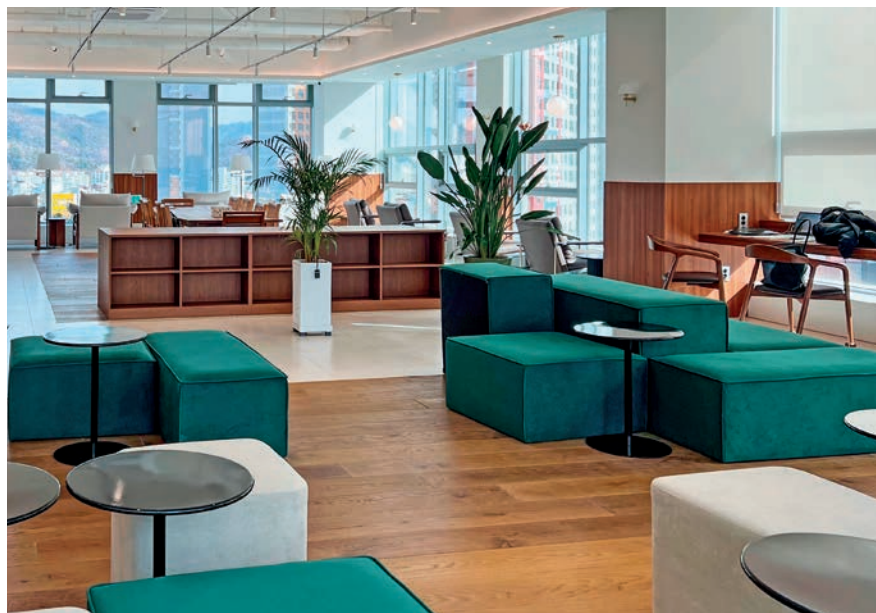
1



3



4



1 신호등에서 착안한 크로스워크 사무실.
2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이 펼쳐질 가든 라이브러리. 3 오픈 준비 중인 갤러리, 블루브릭.
4 크로스워크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브릭커스커피가 최근 문을 열었다.

2

로컬을 위한 지원 커뮤니티 크로스워크

‘크로스워크’는 지식, 취향, 지역, 세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창원의 커뮤니티 클럽이다. ‘횡단보도’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크로스워크는 지역민은 물론 여행자가 만나고 교류하며 서로의 생각과 문화를 나누는 교집합 같은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 창원 중동에 새롭게 들어선 대형 카페 ‘브릭커스커피’는 크로스워크의 철학을 담은 첫 번째 공간. 싱글 오리진 커피를 직접 선별하고 손수 내리는 것은 기본이고,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국비 지원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은퇴를 준비하는 직장인에게 더할 수 없이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브릭커스커피는 카페 이상의 공간을 꿈꾼다. 브릭커스커피 바로 옆에는 창원 시민과 여행자들의 문화 생활 교류의 장이 될 ‘블루브릭 갤러리’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든 라이브러리’가 문을 열 예정이다. 배움과 성장이 교차하는 공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만나 새로운 길을 열어 가는 장소를 지향하는 크로스워크는 책, 영화, 커피, 와인, 예술 등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레퍼런스 클럽도 운영한다. 과학과 인문학을 접목한 맥주 만들기, 쇼트폼으로 나를 브랜딩하기, 그림일기 마스터 클래스, 글로 나의 마음 그려 보기 등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다. 또한 필라테스, 요가, 클라이밍 등 액티비티 클럽도 운영할 예정이다. 크로스워크의 모든 공간을 연결한 플라마켓 행사도 기획 중이다. 지역 주민은 물론 머무르는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자라면 창원의 크로스워크로 발걸음을 옮겨 보자.

📍 브릭커스커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북로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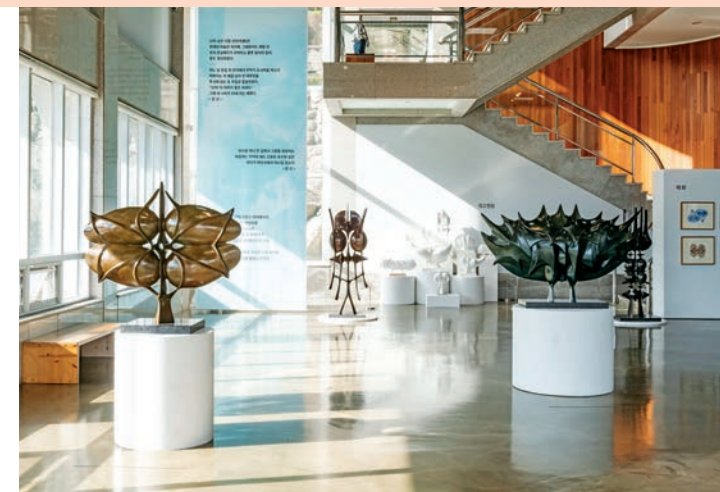
1



2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세계적인 추상 조각가의 예술 세계



3

1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전경. 뒤편에 자리한 아파트
외벽에도 그림을 그렸다.
2 작품 제작을 위한 석고
원형. 3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 1층.
4 휴식과 예술이 접목된
갤러리 풍경. 5 평생을
예술에 몸 바친 창원의
대표적 예술가 문신.

4



5



한국인 이주 노동자와 일본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 인
생 대부분을 이방인으로 산 조각가 문신. 아버지 고향
인 마산과 회화를 공부하기 위해 떠난 일본, 20년간 작
품 활동을 한 파리를 오가며 살아온 그는 낯선 땅에 적
응하기 위해 주변을 면밀히 탐색하며 삶과 예술의 경계
를 넘나들었다. 환갑을 앞두고 고향 마산으로 돌아온
문신은 1981년, 바다가 굽어보이는 추산동 언덕에 터
를 잡고 미술관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떴다. 1000여 점
에 이르는 작품을 집대성해 1994년 미술관을 건립했지
만, 안타깝게도 이듬해 지병으로 타계했다. “2022년 국
립현대미술관과 창원시 공동 주최로 조각가 문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문신(文信): 우주를 향하
여>를 개최했어요. 이후로 문신을 아는 분이 전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죠.” 20여 년간 창원시립마산
문신미술관(이하 문신미술관)에서 활동한 박효진 학예
사의 말이다. 문신미술관은 수년간 젊은 창작자들과 지
역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엔 지역 대학교 의류
학과 학생들이 문신의 예술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작품
을 디지털 패션쇼로 선보였다. 문신미술관은 지난해 개
관 30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문신 타계 30주년이다. 이
를 기념해 문신미술관은 문신에게서 영감을 얻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모으고 있다. “나는 노예처럼 작업하
고 신처럼 창조한다.” 한국 추상 조각의 거장, 문신의 작
품 세계를 만나야 할 때다.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47



1

1 남해의 특산품인 멸치를
위트 있게 표현한 '메르치'
티셔츠. 2 굿즈와 볼거리가
가득한 마사나이 매장.
3 커다란 스크린 프린팅
날염기로 티셔츠를
제작하는 모습. 4 갈매기와
여성 노동자를 집속한
감각적인 디자인.



2

창원을
재해석한
원도심
감성

마사나이

‘마사나이’는 마산을 테마로 티셔츠, 모자, 컵 등을 선보이는 굿즈 업체다. 2022년 온라인 쇼핑몰로 출발했다. “동갑내기 친구 세 명이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어딜 가나 꼭 붙여 다녔는데, 성인이 된 후엔 전 세계로 흩어졌죠. 어느 날 우연히 다시 모였고, 과거 스트리트 문화와 각종 서브컬처의 중심지였던 마산을 우리만의 기억으로 재해석하기로 했어요.” 박승규 대표는 친구들과 3·15의거부터 프로야구 팀 NC 다이노스까지 마산 역사를 연구했고, SNS에 마산의 옛날 사진과 뉴스, 이야기를 올려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산을 테마로 한 티셔츠, 모자, 컵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2022년 서울 성수동에 연 팝업 스토어가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인 로컬 브랜드로 성장했다. 마사나이의 강점은 마산을 이용한 브랜드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한번 보면 눈을 떼기 힘든 재치 있는 디자인에 있다. ‘끼지라’라고 쓴 소화기, 손가락을 은근히 들어 올린 것 같은 모양의 한자 ‘마산(馬山)’이 적힌 모자, 아귀뺨을 열정적으로 요리하는 아주머니 그림이 들어간 티셔츠 등이다. 확실한 정체성과 감도 높은 디자인으로 4년 만에 마산 대표 로컬 브랜드로 급성장한 마사나이. 박 대표와 친구들은 지난해 11월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마사나이의 제2막을 알렸다. 3·15의거기념탑과 몽고정, 문신미술관, 신신예식장 등 마산을 상징하는 것들로 둘러싸인 위치에 동지를 튼 오프라인 매장은 입지마저 마사나이의 정체성과 딱 맞아떨어진다. 마산 여행의 추억을 하나쯤 간직하고 싶다면 마사나이 몽고점을 잊지 말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142



3



4

no.03

CHANGWON



디벨로펀

세모로드

화이트래빗

장옥아트플레이스

크로스워크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마사나이

WRITER 이지혜(<헤이! 트래블> 기자) • PHOTOGRAPHER 전재호

지금 여기

말총공예를 동시대로 끌어올린 정다혜 | 대구미술관에서 본 한국 근현대 미술 | 강원도 영월 위로약방과 어르신들
울산 언양알프스시장의 온기 | 서울 한남동 수제 디저트 가게 | 부산 부전역의 인기 맛집과 공간



성실하고 자유롭게 말총을 엮는 공예가, 정다혜

정다혜 작가는 단발령 이후 서서히 자취를 감춘 말총공예를
동시대로 다시 끌어 올렸다. 천연섬유로 빛을 머금은 말총 가닥은 그의 손을 거쳐
입체 작품으로 재탄생한다.



말총공예가 정다혜 작가 이야기를 꺼낼 때면 말총이 무엇이라는 질문부터 되돌아온다. 말총은 말의 갈기나 꼬리털을 일컫는데, 조선 시대 남성들이 쓰던 탕건, 망건, 갓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하다가 단발령 이후 수요가 크게 줄면서 말총공예 역시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말총공예가 다시 주목받게 된 건 정다혜 작가가 말총으로 만든 작품이 국내외 공예상을 연이어 수상하면서부터다.

말총공예를 동시대로 길어 올린 창작가

예술가가 자신의 분야에서 권위와 명성을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것은 분명 대단하고 축하받을 일이지만 우리는 대개 작품보다 수상 그 자체에 놀라고 또 빠르게 잊는다. 그러나 이 명예로운 순간에 닿기까지 작가가 어떤 인고와 성찰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묻고, 알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관심이 창작자가 그만의 세계를 계속 다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정다혜 작가가 말총공예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처럼 말이다. “학교 주관으로 열린 전시에서 처음 말총으로 만든 모빌을 선보였어요. 어떤 분이 모빌 10개를 구입하셨는데, 그때 저와 말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죠.” 그도 그럴 것이 말총이 그의 삶에 뿌리내리기까지 숱한 내적 방황을 겪었다. 평면보다 입체를,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작업을 선호했던 정다혜 작가는 조소를 선택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자신에게 맞는 옷이 아님을 깨달았다. 덕분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졸업하기까지 8년이 걸렸다. 그래도 공예가의 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번에는 전통 섬유로 전공을 바꿔 대학원에 갔다. 하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았다. 졸업은 해야 했고, 그러자면 논

문을 써야 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리서치를 하던 어느 날, 말총공예를 접하게 된다. “답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천연섬유인 테다 조소의 매력인 입체성을 접목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작업을 지속할 환경을 갖추기 위한 고민이 이어졌다. 생계 말이다. 말총이 입체가 되려면 그의 작품명처럼 ‘성실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매일 10시간 이상 앉아 평균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말총을 엮어야 작품 하나가 완성된다. 그래서 정다혜 작가는 겸업을 하기보다 작품의 가치를 높여 경제적 안정을 찾는 방법으로 공모전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국 청주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2020년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문화재청장상, 2021년 청주공예비엔날레 청주국제공예공모전 대상, 2022년 로에베 재단 공예상 수상은 정다혜 작가가 치밀한 분석과 준비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다. “공모전은 작품 자체의 참신함과 완성도만큼 지원 방법을 철저히 따르고 이전 수상작을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주최 측도 상을 줘야 할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요. 이런 점에 집중해서 생각하면 승산 있는 공모전이 보일 겁니다.” 글로벌 패션 하우스는 각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부합하는 예술 분야의 작가를 선정해 지원하는 공모전을 매년 진행한다. 로에베의 경우 로에베 재단 공예상을 제정해 상을 수여하는데, 정다혜 작가는 ‘성실의 시간’으로 2022년 한국인 최초로 이 상을 수상하면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공예 시장에 진출하는 데 발판을 마련했다. 2025년 메종&오브제가 매년 특정 국가의 신진 디자이너를 가려 뽑는 라이징 탤런트 어워즈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7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어 최근 파리에 다녀온 그를 서울 작업실에서 만났다.

© 박유준 Soluna Fine Craft





우리는 예술가가 자신의 분야에서 권위와 명성을 인정받는 상을 수상했을 때 명예로운 순간에 닿기까지 어떤 인고와 성찰의 시간을 보냈는지 묻고 기억해야 한다. 그런 관심이 창작자가 그만의 세계를 계속 다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1 말총공예의 재료가 되는 말총 묶음. 2 정다혜 작가는 2022년 로에베 재단 공예상을 수상했다. 3 이제 막 엮기 시작한 작품의 일부분. 4 작업 중인 작가의 모습. 5 제주도에서 가져온 다양한 삼나무 틀. 6 탕건을 만드는 틀.



2023년 영국 런던 크래프트 워크페 해외 첫 개인전을 열었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선 조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청주국제공예공모전 대상에 이어 로에베 재단 공예상을 수상하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말총공예를 하면서 혼자 많은 시간이 길었거든요. 그런데 수상하고 나니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제 작품을 보러 와 주시더라고요. 그 기쁨에 제 안에 있는 모든 걸 쏟아 낸 시기였어요. 또 개인전이라 하면 관람객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스타일을 빨리 다듬어서 정형화하고 공예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기에 마치 제 자신과 경쟁하듯이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2024년에 다시 런던 크래프트 워크에 참가할 때까지도 그랬어요.

불안함이나 조금함은 누구나 얼마간 지닌 채 살아가잖아요. 그런 감정을 인지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작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말총공예를 장인 선생님에게 배우잖아요. 결코 저를 개인적으로 엄격하게 대하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통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기법이기에 그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성실의 시간'에 고스란히 녹아 있죠. 작품 하나를 만들 때 한 가지 색상만 쓰고 무늬와 무늬 사이 간격도 철저히 지키려 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정한 규칙 안에서 완벽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2024년 작품을 보면 두 가지 색이 섞인 것도 있는데요. 관람자 입장에서 색 하나 더 넣은 작품으로 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큰 변화였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 두 가지 색을 엮는 과정에서 또 규칙을 만들었더라고요. 올해 메종 & 오브제에서 선보인 신작 '라운드드 셰이프(Rounded Shape)'는 이 모든 긴장감을 내려놓자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토기 형태도 변주하고 싶어서 공중에 띄우는 스타일을 시도했 고요. 그러면서 저도 작품도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해진 것 같아요. 비로소 해방감도 느꼈고요.

말총을 한국적인 소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주 지역만의 특수한 소재라고 봐야 할까요?

한국적인 소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부한 바에 의하면 조선 초기부터 말기에 걸쳐 전국에서 말총으로 만든 모자를 썼는데, 제주도는 말총의 주요 생산지였고, 기초 작업을 해서 육지로 보냈다고 해요. 이후 신분제에 동요가 일어나고 말총 모자를 쓰고 싶어 하는 중인 계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증했어요. 나중에는 제주나 경남 통영 등지에서 아예 완성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단발령 시행 후 말총공예 수요는 확연히 줄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탕건, 망건을 고수하는 양반이 있었고, 그렇듯 수요가 있으니 제주에서는 적게나마 계속 만들어 온 거죠. 한때는 전국적으로 말총공예 장인이 있었지만 결국 제주에 몇 분만 남으니 제주에서만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테고요.

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으나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말총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말총공예의 전통이나 역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조소를 전공하고 공예로 넘어온 저는 초반에 전통을 고귀하고 엄숙한 영역으로 여겨서 작품화하기까지 두려움이 컸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선대의 방식이나 규칙에 얽매이기보다 소재 고유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겠다는 열망도 컸죠. 깊이 들여다보니 말총공예가 모자를 만드는 데만 쓰인 게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변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시간만 들이면 어떤 형태로든 표현할 수 있는 저만의 방식을 찾아냈어요.

말총공예 작품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나요?

먼저 어떤 형태를 만들고 싶은지 머릿속으로 대략 그려 봅니다. 그리고 말총을 엮는 틀인 삼나무를 깎죠. 제주에서 시는 부모님이 제주 방풍림인 삼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셔서 어릴 적부터 흔하게 삼나무를 보아 왔어요. 그렇게 친숙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삼나무로 작업을 시작했죠. 게다가 삼나무는 무르고 가벼워 깎기 쉽고 서늘 작업실로 가져오기도 수월해요. 다음으론 말총 가닥을 고릅니다. 한 묶음당 10퍼센트 정도만 작품에 쓸 수 있는데, 100퍼센트 제주산 말총이면 좋겠지만 요즘은 공급량이 적어서 몽골산을 써요. 초기에는 재료에 대한 강박도 있었어요. 전



통 공예를 하는데 수입산을 쓰는 게 과연 옳은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말 종자부터 100퍼센트 제주산인지 따져봐야겠죠. 말 자체가 품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난 후엔 저도 노선을 정했어요. 재료의 순수성에 함몰되기보다 우선 이 작업을 이어 가는 데 집중하기로요.

'성실의 시간'은 대영박물관 소장품이 되기도 했죠. 또 기억에 남는 컬렉터가 있나요?

영국에서 제 작품을 본인 환갑 선물로 구입한 분이 기억나요. 승마를 하는, 말을 무척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제 작품을 둘 공간을 이미 마련해 두고 전시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이후에는 제 작품이 놓인 공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전시 계획과 차기작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5월에 런던 크래프트 워크에 단체전으로 참여할 예정이에요. 차기작을 계획적으로 구상하는 편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규모가 큰 작품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상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 때 좋은 점은 단가보다 창의성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은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서 전시에 내놓을 작품을 만들다 보니 작품 크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이제 저의 오래된 꿈을 실현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근현대 미술의 뿌리를 찾아서

K-아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한국 근현대 미술의
120년 역사가 궁금하다면 대구로 가야 한다.



1

산으로 둘러싸인 대구의 분지 지형은 마치 깊은 마당 같다. 소설가 김원일은 자전소설 <마당 깊은 집>에서 1950년대 대구 시가지를 이렇게 회고한다. "시내 중심 거리인 중앙동·향촌동·송죽극장 일대에는 벅타이를 맨 양복장과 양장 차림에 뒷굽 높은 뽕족구두를 신은 젊은 여자들이 넘쳤고, 군복 차림의 한국군과 미군도 민간인만큼이나 흔하게 볼 수 있었다. 한편 피란민·실업자·지게꾼·가치·구두닦이 또한 발에 차이는 돌맹이만큼 널려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었던 대구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란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문인과 미술가도 그중 하나였다. 전후의 혼란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살던 이 '마당 깊은 집'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품이 매일같이 전시되는 문화 예술의 보고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수성구에 대구간송미술관이 개관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구미술관이 새 단장을 마쳤다. 대구미술관은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부속동을 미술관으로 확장하면서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관이 되었다. 지난 1월 14일에 시작된 상설전 <대구 근대 회화의 흐름>과 소장품 하이라이트전 <계속 변화한다, 모든 것은 연결된다, 영원히 계속된다>는 2011년 개관 이후 대구미술관이 지속해 온 근현대 미술 아카이빙과 오랜 연구의 결과물이다.

대구 예인들의 특별한 가계도

대구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이름은 아마 이 지역 명물인 막창, 몽티기만큼이나 익숙할 것이다. 박목월, 조지훈, 현진건 같은 소설가나 시인뿐 아니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초대 작가 박훈을 비롯해 전위 예술의 선구자 김구림, 일본의 획기적인 미술 운동인



2



3

1 자연과 시간을 키워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된 부속동의 제2전시실 전경. 박훈, '찾잔'(1998~2012). 리처드 롱, '한강 서클'(1993). 2 아리카 이, '하나의 밝은 진주'(2022). 3 미야지마 타츠오, '변화하는 풍경/변화하는 대구미술관'(2024).

피란 온 예술인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대구는
이제 문화 예술의 보고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구 근현대 회화의 흐름을 보여 준다.

모노하 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이우환,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회고전을 열고 있는 이강소 등 수많은 미술가가 대구 출신이거나 대구에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추사 김정희의 서풍을 확장해 한국 근대 서화를 새롭게 정립했다고 평가받는 서화가 서병오(1862~1936)도 그중 하나다.

대구미술관은 첫 번째 상설전 <대구 근대 회화의 흐름>을 준비하며 서병오를 중심으로 '대구 근대 문화의 인물 관계도'를 정리했다. 서병오는 '우현서루'라는 도서관을 세워 인재 양성과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이일우와 사돈지간이다. 이일우는 대구 최초의 서양화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상정의 백부이기도 하다. 최초의 국내 서양화가 중 하나로 꼽히는 이상정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유명한 이상화 시인의 큰 형이며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의 남편이기도 하다. 대구 계성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는 1922년 대구 최초의 서양화 연구회를 설립했다. 동양화가 이어성은 이상정과 함께 대구 화단의 한 축을 담당했다. 언론인이자 학자이기도 한 그는 한국 근대 리얼리즘 회화를 대표하는 이쾌대와 형제다. 또 수채화가 서동진과 그의 제자 이인성 등은 대구 지역 서양화가 모임인 '향도회'를 통해 이들 예술가들과 연결된다.

앞으로 약 3년간 계속되는 상설전은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대구 근대 회화의 흐름을 보여 준다. 1963년 김구림과 함께 기성 질서에 대항하는 추상미술 그룹 '앙그리(Angry)'를 창설한 이영룡, 한국적 추상화를 개척한 정점식의 작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시는 대구라는 지역을 특정하지만 한국 근대 회화의 큰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피란 시절 대구역 앞 경북 여관 2층에 기거하며 그림을 그린 이중섭의 일화나, 당시 향촌동 일대 다방에 모여 교류하던 작가들의 면면

을 보면 격랑의 시대에 뒤엎히고 때로는 함께 저항해 온 이들을 지역으로 구분 짓는 건 의미 없어 보인다.

변화하는 풍경, 변화하는 미술관

본래 예식장 건물이던 부속동에서는 소장품 하이라이트전이 열리고 있다. 본동과 부속동을 잇는 통로와 라운지까지 전시 공간이다. 작품들이 전시장과 미술관 안팎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근대 회화전이 열리는 제4·5전시실에서 이곳 제6전시실로 가는 길에는 미야지마 타츠오의 작품 '변화하는 풍경/변화하는 대구미술관'(2024)이 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풍경을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힌 미러 시트로 볼 수 있는데, 이 숫자는 관람객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선택한 것이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이후까지 과거와 현재의 교차점에서 만나는 일본 작가의 작품은 시대의 변화를 상기시킨다. 이우환의 '관계항'(1984)은 병풍처럼 도시를 둘러싼 팔공산의 너른 자락과 마주한다. 원재료 상태의 물질 그 자체를 예술의 언어로 활용하는 그는 산업사회를 상징하는 강철관 위에 자연물인 돌을 올려 둠으로써 이질적인 항들을 작품 속에 병치시킨다. 신랑 신부의 가족과 하객들이 인사를 나누고 부조금을 받던 이 공간의 큰 창 밖으로는 팔공산 아래 아파트 단지와 삼성라이온즈파크가 보인다. 유현한 정취와 일상의 활력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이다.

'계속 변화한다, 모든 것은 연결된다,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제목처럼 이번 전시는 삼라만상의 순환과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자연과 시간에 대해 사유하게 하는 소장품이 주를 이룬다. 관람객은 산책하듯 전시장을 거닐며 현대 영남 서화계의 상징적 작가인 서근섭의 '대나무' 시리즈, 정용국의 '유기적 정원'(2007) 등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예술적 명상의 비

1

1 한국 근대미술의 발상지로 불리는 대구의 미술사를 조명하는 소장품 상설전. 2 강우문, '실내의 여인'(1974). 3 서병오, '화훼괴석' 10폭 병풍(1927).

2

3



한 걸음 더

대구미술관은 부속동을 개관하며 '보이는 수장고'를 공개했다. 폐쇄적 형태의 수장고에서 벗어나 수장과 전시기능을 아우르도록 꾸민 것이다. 과거 예식장 식당자리던 이곳에서는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소장품 관람이 가능하다. 1980여 점의 미술관 소장품 중 극히 일부일 뿐이지만 미술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입구에는 격납 작품의 수량과 유형, 내부 운송도를 알려 주는 안내판이 있고, 전시장 앞쪽에는 미스터의 '스트로베리 보이스'(2007), 키키 스미스의 '메두사'(2003), 박중배의 '못과 심연'(1994) 등이 전시돼 있다. 내부 관람은 제한되지만 바깥에서도 충분히 안쪽 격납부에 보관된 최정화의 '연금술'(2013), 이수경의 '번역된 도자기'(2014) 등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속동 1층 교육실에는 일록달룩한 도형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김용관의 '둥근 네모', 대구 출신 미술가 박종규의 '프로젝트 닷(DOT)'이 설치되어 있다.



1 팔공산이 한눈에 보이는 대구미술관 전경. 지난해 개관한 대구간송미술관과 나란히 자리한다. 2, 4 부속동과 함께 공개한 '보이는 수장고'. 3 김용관의 작품이 설치된 교육실.



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은 전시장 한가운데 놓인 돌무더기다. 리처드 롱의 '한강 서클'(1993)로, 작가는 1993년에 한강 변을 걸었던 경험을 토대로 마치 종교적 제식처럼 조심스럽게 돌맹이들을 골라 둥글게 펼쳐 놓았다. 이 거대한 서클 너머로는 사각 프레임 안의 찻잔들이 보인다. 박훈의 '찻잔'(1998-2012)은 언뜻 흙에 묻힌 유물 같다. 가까이 가셔야 종이에 그린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된다.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 창립 멤버로,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한 박훈은 한국적 정서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조선 시대 도공들이 만든 다완을 통해 선(禪)의 세계를 보여준다. 30년 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서 그가 선보인 '겉/소리-마르코폴로가 가져오지 못한 것' 또한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설치·퍼포먼스 작품이었다. 소장품전인 만큼 기증자 이름도 눈에 띈다. 이우환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한 김인한 유성건설 회장, 안혜령 리안갤러리 대표 등 대구에 기반을 둔 유명 미술 컬렉터들이다. 이진희 컬렉션도 심심찮게 만난다. 삼성가의 미술 사랑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고미술 수집에서 출발했다. 상설전, 소장품 하이라이트전과 더불어 오는 6월 22일까지 1980년대 대구 미술에 초점을 맞춘 네 번째 대구 포럼이 열린다. 2027년 대구대공원까지 들어서고 나면 미술관로는 더욱 활기를 띠 것이다. 대구미술관과 이웃한 대구간송미술관을 연결하는 계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시대를 넘나드는 예술(Art that transcends time)." 마당 깊은 집의 안마당에는 새로운 흙이 쌓이고 역사와 유령들의 이름 위에서 오늘의 사람들이 살아간다. 마당 풍경은 계속 변할지라도 이들의 삶과 예술은 서로 연결되며,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영월 마차리 어르신들의 사랑방, 위로약방

서울의 청년 사업가 한은경 대표가 강원도 영월에서 쭉 약과를 빚는 사연.



청령포와 이곳에서린 단종의 슬픔은 서울에서 나고 자라 사업을 하던 한은경 위로약방 대표를 영월로 이끈 연결 고리였다.

강원도 영월은 삼척, 정선, 태백과 더불어 손꼽히는 한국의 폐광 지역이다. 한때 강원도 최초의 탄광 지역이라는 명예로운 수식을 누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강원도 탄광문화촌을 방문하는 것으로 번성기의 역사를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영월을 잊힌 땅으로 치부하기는 이르다. 바닷가가 있는 지역만큼 1년 내내 관광객이 찾는 곳은 아니지만, 그러하기에 오히려 빼어난 자연을 호젓하게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월에는 청령포가 있다.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된 조선 6대 왕 단종이 머물던 곳. 특히 소나무 숲이 장관인데, 그중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는 관음송(단종의 애달픔을 지켜보았다는 뜻의 '관(觀)', 단종이 슬피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뜻의 '음(音)'을 합쳐 붙인 이름)에 단종이 걸터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청령포와 이곳에서린 단종의 슬픔은 서울에서 나고 자라 사업을 하던 한은경 위로약방 대표를 영월로 이끈 연결 고리였다.

위로가 간절했던 청년 사업가

“그랬구나, 이리 와.” 일상을 무탈하게 보내고 있는 누구라도 순간 마음이 동요할 만한 문구가 위로약방 문에 새겨져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은경 대표와 장하다 실장이 살갑게 인사를 건넨다. 분명 태어나 처음 만나는 이들인데, 두서없이 속이야기를 꺼내 놓고 싶은 편안함이 느껴진다. 위로약방은 영월 쪽으로 만든 디저트 브랜드이자 카페로, 이미 서울에서 팔 초콜릿 브랜드인 레드로즈빈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은 한은경 대표가 2021년 영월 마차리에 문을 열었다. 팔 초콜릿이라는 아이템도 특이하지만, 무엇보다 연고도 없는 영월에 오게 된 사연이 궁금했다. 살다 보면 불현듯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찾아온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한은경 대표의 경우 신학을 공부하던 학생 시절 어머니가 당뇨

로 쓰러진 사건이 팔 초콜릿을 개발하는 계기가 됐다. “학생이다 보니 매년 비싼 건강식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렴하고 좋은 재료를 찾아 직접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약용·식용 식물도감을 뒤졌어요. 돌이켜 보면 순진했지만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어머니는 고단함을 당으로 푸는 당 중독이었다. 어머니의 자동차 안을 가득 채운 각종 주전부리를 대신할 먹을거리를 찾던 그의 시선이 팔에 멈췄다. “곡물 중 가장 단맛을 낸다”라는 문구에 기대어 팔을 삶고 찌고 굽고, 다양한 배합으로 초콜릿을 더해 가며 연구한 끝에 지금 레드로즈빈에서 판매하는 팔 초콜릿 ‘팔콜릿’을 완성했다. 하늘도 그의 정성을 알아봤는지 놀랍게도 어머니의 증세가 호전됐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이런 신기한 것은 특허를 내야 한다고 부추겼다. “서류를 준비해 무작정 변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특허를 내는 데 돈이 든다는 거예요. 망연자실해 있는데, 어떤 분이 무료로 도와줄 테니 그 대신 이 사업을 10년간 하겠다는 약속을 하자고 했죠. 2년 전에 약속했던 10년이 지나서 전화했더니, 그걸 기억하고 있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특허라는 날개를 달고 호기롭게 사업을 이어가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를 불러 앉혔다. “당뇨가 나는 것은 제가 아침마다 팔 초콜릿을 만드는 정성에 감동한 어머니가 간식도 팔 초콜릿으로 바꾸고 적극적인 식이요법을 병행했기 때문인데, 팔 초콜릿이 당뇨 치료약이라고 자만할 거라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노파심이드셨나 봐요.”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한은경 대표는 어머니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2012년 레드로즈빈을 론칭하던 때와 달리 처당 디저트가 상대적으로 흔해진 지금도 꾸준히 매출을 유지하는 것은 ‘특허받은 디저트’임을 내세우기보다, 선물 받는 이의 건강을 생각하고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아이টে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1

1 영월 마차리의 위로약방 외관.
2 매대를 정리 중인 한은경 대표.
3 '위따뚜이' 할머니들이 숙 약과를 만들고 있다. 4 위로약방 내 카페 공간.



2



3



4

지역 식재료가 들어간 디저트를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커뮤니티와 상생하는 것. 한은경 대표의 목표는 뚜렷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치매를 앓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슬픔이 닥쳤다. 그 무렵 한은경 대표는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넥스트로컬'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다. "참가자가 창업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어요. 유달리 영월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매년 영월에서는 비운의 어린 왕을 위로하는 추모제인 단중문화제가 열리잖아요. 저도 위로가 필요한 때였으니까요."

지역 사업의 시작이자 전부, 진정성과 사명감. 위로약방은 영월군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재탄생한 마차리 폐광촌에 자리한다. 깔끔하게 단장된 마차리는 전통대를 철거하고 건물 외관을 현대식으로 단장했으며 세대마다 일관된 디자인의 명패가 달린 야기자 기한 마을이다. 적어도 초행자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지역 관련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온 한은경 대표의 입장은 달랐다. 막막한 심정으로 며칠을 보내던 그는 마차리에서 환경 미화 작업을 하고 있던 '할머니 무리'를 맞닥뜨린다. 문득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났다. 강원도의 정기가 또렷하게 느껴지는 할머니들과 친해지려고 고군분투하던 그는 카페 안으로 할머니들을 들이는 데 성공한다. "서울은 실력이 곧 사업과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지역은 관계가 훨씬 중요해요. 제가 서울에서 얼마나 잘나가는 청년 사업가인가보다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지역민과 소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목표는 뚜렷했다. 지역 식재료가 들어간 디저트를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커뮤니티와 상생하는 것. 할머니들에게 보람과 행복도 선사하고 싶었다. 영월은 내륙에 위치한 산간분지로 기온 차이가 큰 대륙성 기후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많이 나고 석회질 땅이라 특산물인 사과, 포도 등 과일의 당도가 높다. 고추, 옥수수 역시 특산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평균 연령 70~80대 할머니들은 일찍이 농사일에 물러난 상

황. 고민이 깊던 차에 한 할머니의 제안이 귀에 쏙 들어왔다. "산에 가서 쭈이라도 캐 올까? 그건 공짜인 데다 품도 얼마 안 들어." 게다가 영월 쭈는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품이었을 정도로 품질과 향이 독보적이다. 한은경 대표는 할머니들이 캐 오는 쭈를 킬로그램당 가격을 매겨 지불했다. 그렇게 할머니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관계를 다져 갔다. 지금은 영월협동조합에서 쭈 가루를 받아 디저트와 음료를 만든다. 또 위로약방에 모이는 할머니들의 모임을 '위따뚜이'(위로약방과 애니메이션 <라따뚜이>의 합성어)라 이름 지어 소속감을 부여했다. 1년간 빵, 쿠키, 사탕, 초콜릿 등 각종 디저트를 만들며 시행착오를 겪었고 쭈 약과에 정착했다. 위따뚜이 멤버들은 쭈 약과를 제조하는 날이면 위로약방에 모여 시급을 받고 약과를 만든다. "반죽을 약과 틀에 넣고 꺾꺾 누르면 되는데, 이게 치매에 방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는 날이 기다려지고 아주 행복해요." 위따뚜이 회원 중 한 분인 김분철 할머니의 손길에 흥이 붙는다.

한은경 대표는 영월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위로 콘텐츠'도 기획했다. 직접 작가 지원 공모를 냈고, 이를 통해 선발한 애니메이션 감독이 창작한 캐릭터 팔공, 팔다, 캐모마이언의 입을 빌려 인스타그램용 '위로툰(위로를 전하는 웹툰)'을 제작한다. 한은경 대표는 특별한 사업 철학은 없다고 겸손해하지만 청년 사업가로 10년 넘게 거쳐 온 모든 과정에서 이미 실력과 감각을 증명해 냈다. 어머니와 할머니들에게 배운 건강한 맛에 대한 기준, 연고도 없는 지역에 들어와 동지를 튼 용기, 지난 6년간 넥스트로컬 프로그램에 지원한 청년 사업가 중 유일하게 영월을 지키고 있는 끈기, 그리고 지역 사업에 대한 사명감이 만들어 낸 결과다. "영월에 와서 비즈니스만 하고 떠난 외부인으로 남고 싶지 않아요. 이 사업이 지역 사회를 위한 안정적인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는 데 최대한 기여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들과의 의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1 영월 쭈으로 만든 쭈 초콜릿 2 폭신한 촉감의 쭈쭈. 3 위로약방의 디저트는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다. 4 약과를 만들기 위해 모인 '위따뚜이' 할머니 멤버들.



봄의 전령, 목련 향 그윽한 충남 천리포수목원

봄이 가장 먼저 오고 가장 오래 머무는 곳, 충남 태안군에 자리한 천리포수목원이다. 국내 유일의 목련 축제가 열리고, 풀 내음 가득한 스테이에서 동화 같은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곳. 목련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비밀의 정원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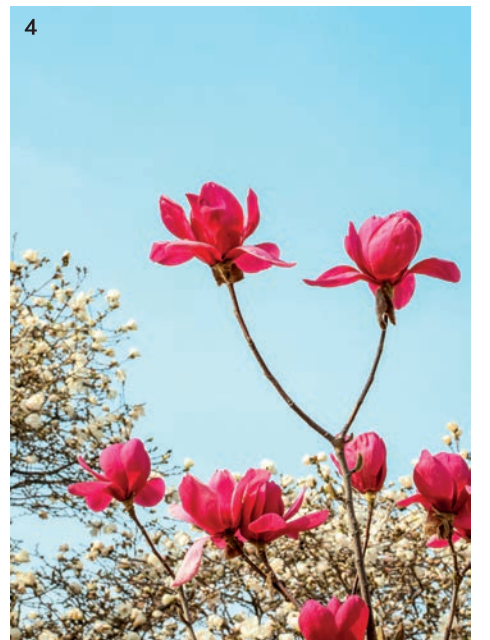


1 노란색 꽃잎이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목련 '맥신 메릴'. 2 연꽃 위로 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진 종벚나무 '수페르바'. 3 비밀의 정원 묘포장에 핀 아쿠미나타목련. 4 비밀의 정원에 핀 목련 '불칸'.

국내 유일의 목련 축제가 열리는 수목원

메마른 나뭇가지에서 새하얀 목련 꽃망울이 터질 때 우린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 목련을 주제로 한 축제가 천리포수목원에서 열린다. 국내 유일의 목련 축제인 '천리포수목원 목련축제'가 그것.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3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2025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은 태안의 가장 큰 볼거리가 될 것이다.

천리포수목원은 목련의 종과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전 세계 1000여 개 분류군의 목련 가운데 천리포수목원이 보유한 목련은 926개 분류군에 이른다. 압도적 숫자만큼 다양한 목련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겨울 정원 한쪽에 자리한 큰별목련 '얼리 버드'는 그 이름처럼 가장 먼저 흰 꽃잎을 피우며 봄소식을 전한다. 수목원 한가운데 자리한 커다란 큰별목련 '레오나르드 메셀'은 탐스러운 분홍색 꽃망울을 터뜨리고, 노란색 꽃잎을 단 '황해'와 '맥신 메릴'은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꽃잎이 붉은색을 띠는 '불칸'은 탐방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포토 존을 만들어 준다. 축제 기간에는 평소 일반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천리포수목원의 비공개 정원도 개방한다. '가드너와 함께하는 비밀의 정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천리포수목원 가드너의 설명을 들으며 비공개 정원을 수놓은 다종다양한 목련을 감상할 수 있다. 비공개 정원 묘포장에는 꽃잎이 청동색에 가까운 푸른빛을 띠는 아쿠미나타목련도 있다. 천리포수목원의 목련은 나무 모양이 도심에서 보는 목련과 사뭇 다르다. 가지치기로 수형을 정형화한 도심의 목련과 달리 가지가 위와 옆, 아래로 자라 자유분방한 모습이다.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비밀의 정원

천리포수목원은 1970년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민간 수목원이다. 2009년부터 일부를 공개해 일반 탐방객도 1년 내내 수목원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다. 설립자 민병갈(칼 페리스 밀러) 원장은 192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난 미국인으로, 1945년 미군 정보장교로 한국에 왔다가 빼어난 풍경에 반해 1979년에 귀화한 인물이다. 그는 반평생을 헌신해 척박한 천리포 해안가 부지를 아름다운 수목원이자 나무들의 피난처로 일구었고, 이후 공익 재단 법인으로 사회에 환원했다.

천리포수목원은 설립 이후 40여 년간 연구 목적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비개방 수목원이었다. 사람들의 잦은 발길로 식물이 다칠 것을 염려해 식물 관련 전공자와 후원 회원만 입장을 허용했다. 그러다 2009년 3월 전체 7개 관리 지역(밀러가든, 목련원, 종합원, 침엽수원, 낭새섬, 에코힐링센터, 큰굴) 중 한 곳의 빗장을 풀며 천리포수목원을 일반에 공개했다. 그리고 이곳을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밀러가든'이라 이름 지었다.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천리포수목원에는 한옥과 초가집, 양옥으로 이루어진 가든 스테이가 자리한다. 싱그러운 풀 내음을 맡으며 아침을 맞고,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즐기는 여유. 가든 스테이에 머무르며 천리포수목원을 내 집 정원처럼 만끽할 수 있다. 공익 재단법인인 천리포수목원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후원 회원 제도를 운영한다.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수목원 무료입장을 포함해 숙박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천리포수목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숙박 예약은 천리포수목원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예약을 이용하면 된다.



1 만개한 큰별목련 '레오나르드 메셀'. 2 밀러가든의 봄 풍경. 연둣빛 나무와 분홍빛 꽃이 수목원의 오후를 환하게 밝힌다. 3 밀러가든 화단에 가득 핀 알리움. 솜사탕을 닮은 동그란 모양이 사랑스럽다. 4, 5 따스한 봄을 맞아 천리포수목원을 찾은 탐방객들.

온기를 찾아서 — 언양알프스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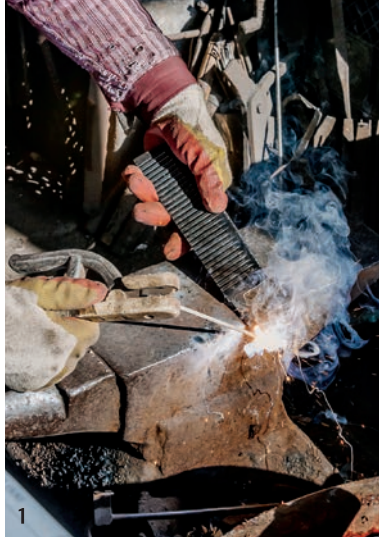
알프스처럼 거대하고 아름다운 산봉우리가 모여앉은 울산 울주 땅.
경남과 경북을 잇는 길목인 울주군 언양읍엔 예부터 경상도 7개 고을의 물자가 집산해
‘칠읍장’이라 부르던 유서 깊은 전통시장, 언양알프스시장이 선다. 쇠를 달구고, 기름을 짜고,
고깃국을 끓여 내는 핫한 장날 풍경 앞에서 겨우내 언 몸과 마음을 녹인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역까지 2시간 15분 정도 걸린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장터길 12-1
문의 0507-1385-5728
장날 2일, 7일





1,2 장날, 쇠붙이를 손질하려는 이들이 언양매일대장간을 찾아온다. 3 대장장의 이름 박병오의 '오'자를 새긴 농기구들. 4 온갖 농기구와 생활용품 등 쇠붙이를 취급한다. 5 언양매일대장간의 박병오 대장장은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미소를 잃지 않는다.



땅이 풀리고 싹이 돋는 시절. 나지막이 들려오는 봄의 귀엣말에 누구보다 빠르게 감응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흙과 더불어 사는 농군이다. 이 무렵 언양매일대장간에 팽팽한 활기가 감도는 이유다. “쇠스랑, 쟁이, 낫, 호미, 도끼 같은 쇠붙이를 새로 들이거나 고쳐 쓰려는 손님이 부쩍 많이 찾아옵니다. 농사지를 채비를 하느라 그렇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날, 박병오 대장장은 한나절을 내리 불 앞에서 보낸다. 잡초 뽑는 호미와 흙 고르는 호미가, 풀 베는 낫과 나무 치는 낫이 어떻게 다른지 이따금씩 말을 보태면서.

1941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네 살 때 울주로 이주, 열두 살 때부터 석남 장터의 대장간에서 풀무질을 하기 시작한 박 대장장은 철광석을 생산 하던 달천철장의 역사와 울산 대장간 문화의 명맥을 잇는 최후의 인물이다. 언양종합상가시장에 붙어 있는 그의 자그마한 대장간엔 쇠를 달구는 화로(울산 말로 ‘호덕’), 달군 쇠를 두드리는 모루, 담금질하는 물통, 낱을 버리는 솥돌과 그라인더가 한데 들어차 있다. 쇠붙이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낱을 갈거나 부러진 칼자루에 쇠를 덧대어 붙이는 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드는 온갖 주문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공간이다. 금속성의 리드미컬한 소리, 번쩍번쩍한 불빛으로 가득한 일인극의 무대이기도 하다.

언양매일대장간의 트레이드마크 ‘오’가 새겨진 쇠붙이들을 들여다보는 동안 풀무꾼에서 메질꾼, 메질꾼에서 집게잡이 대장이 되었을 사내의 다부진 세월이 머릿속을 스친다. “뒤편 다 해낼 수 있어야 이 대장간을 지키지요.” 무수한 담금질로 점철된 단단하고 뜨거운 삶에 새 봄빛이 스민다.



깨 볶는 인생! 울산참기름



1

1이보다 고소한 순간이 또 있을까. 깨를 볶고 기름을 짜며 세월을 이어 온 울산참기름 풍경. 2 최신 설비에 전통 방식을 도입해 특유의 풍미를 유지하고 있는 울산참기름의 제조 공정. 3 병에 담긴 참기름이 맛깔스러워 보인다. 4 점차 사라져 가는 방앗간이 우리 곁에 조금 더 오래 남아 주기를 바란다.



2



3



4

시장 골목만큼 다종다양한 후각적 자극을 경험하는 공간도 드물다. 이 즈음 언양알프스시장에 가면 그 유명한 언양 미나리의 보드랍고 푹푹한 향내, 울산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해산물의 싱싱한 물 내음,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농밀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기분 좋은 혼란에 빠지곤 한다. 화려한 감각의 향연 속에서 코가 무뎠질 무렵, 존재감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냄새가 물씬 풍기기 시작한다. 근원지는 37년 세월을 버티고 선 방앗간, 울산참기름이다.

경북 영천을 비롯해 영남 등지를 전전하며 영업을 이어 온 이곳은 1988년 울주 언양장에 다다라 새 이름을 내걸고 새롭게 출발한다. 1대 김상준 대표를 이어 2대 김무환 대표가 오랜 시간 살림을 꾸렸고, 이제는 그의 아들인 3대 김성호 대표가 가업을 계승하고 있다. “여기 정착한 해에 태어난 아이가 제 일을 물려받았으니,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김무환 대표의 환한 얼굴에 뿌듯함과 애뜻함이 교차한다.

울산을 넘어 경남과 경북 각지에 단골을 두고 있는 이 방앗간의 노하우는 불을 때고 솥에 깨를 볶아 분진과 가스를 날리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데 있다. 질 좋은 깨를 엄선하는 것은 물론, 말끔하게 세척·건조한 깨를 정제하고 압착해 이곳만의 고유한 풍미를 낸다. “색이 맑고 향미가 신선한 게 우리 집 기름의 특징이지요.” 참기름과 들기름, 고춧가루, 미숫가루가 나란히 늘어선 매대 앞에서 절로 입맛을 다신다. 인생의 고소한 재미가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1 알프스시장곰탕 외관. 최영동 대표가 이곳에서 태어났다. 2 갈끔한 국물과 질 좋은 쇠고기 건더기가 이 집 고유의 맛을 완성한다. 3 장날이면 직원들의 손놀림이 더 바빠진다. 밀반찬과 고명도 푸짐하게 내준다. 4 세 번에 걸쳐 18시간 동안 국물을 끓여 맛을 낸다. 시간과 정성이 완성한 품이다.



언양알프스시장의 특산물을 꼽자면 쇠고기를 빼 놓을 수 없다. 1970년대까지 우시장과 도축장이 있던 이곳에서 언양식 불고기가 탄생해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는가 하면, 잡고기를 오래 끓여 낸 언양식 소머리국밥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언양터미널사거리 뒤흘 골목에 자리한 알프스시장곰탕에 가면 우시장의 역사와 언양 식문화의 내력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최영동 대표를 만날 수 있다. “1959년 12월 11일,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건물 맞은편에서 우시장이 열렸고, 멀지 않은 곳에 어시장이 서곤 했죠. 어린 시절엔 고기 냄새가 지겨워서 국밥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운명처럼 여기서 곰탕을 끓이고 있던군요.”

아내 정춘화, 아들 최병우 씨와 함께 꾸려가는 식당이 올해 개업 10년 차다. 쇠고기 특유의 쿵쿵한 냄새가 덜 나게 하는 방법을 비롯해 수년간 품질 향상에 골몰했고, 오늘날 밀키트 월간 판매량 3000개를 기록할 만큼 맛 좋은 곰탕을 완성해 냈다. 말짱고 순수한 국물 맛의 비결은 세 번에 걸쳐 18시간 동안 국물을 끓이는 것. 우족과 잡뼈, 사골, 머릿고기를 넣고 한번 끓여 낸 뒤에 두 차례 더 달이듯 가열한다. 이 과정에서 염도가 너무 높아 지지 않도록 조리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고생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욱 심내지 않고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저 이 국물 맛을 손님들과 오래도록 나누고 싶어요.” 그가 내준 운기 어린 한 그릇에 진심이 그득하다.





한남동, 달콤한 나들이

고급스러운 차림새로 입맛과 눈길을 사로잡는 곳부터 친숙한 재료로 특별한 맛을 구현한 곳까지. 입안 가득 달콤한 풍미를 채우러 서울 한남동 수제 디저트 가게로 나섰다.

1

코스로 즐기는 계절별 다식 한 상

차차이테

동서양의 차와 어울리는 과자를 만드는 작은 차 과자점. 동양의 '차(cha)', 밀크 티인 '차이(chai)', 서양 차를 일컫는 티(tea)의 다른 발음 '테(the)'를 합쳐 이름 지은 '차차이테'는 맛이 차, 본차, 마무리 차를 코스로 내어 주는 곳이다. 하루에 네 타임만 운영하기에 예약은 필수. 차차이테 입구에 들어서면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기물이 방문자를 맞이한다. 차차이테에서 가장 먼저 내어 주는 차는 맛이 차. 차가운 물에 우려낸 동양 차와 젤리로 입맛을 돋운 후, 4종의 본차를 세 종류의 시그니처 과자와 함께 음미한다. 이어지는 따뜻한 밀크 티에 잼과 버터를 바른 스콘을 곁들여 마무리한다. 차차이테의 모든 과자는 낫센 듯 익숙한 맛이다. 국내산 콩고물과 유자를 듬뿍 넣은 프랑스 전통 과자 볼드네주가 대표적이다. 눈과 입으로 계절을 세심하게 감각할 수 있도록 제철 재료를 활용한 메뉴도 개발 중이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4길 74 문의 070-4946-3114





2

두부크림치즈가 들어간 바게트 샌드위치 댄스댄스댄스 한남점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고 알려진 빵어니스타, 미니마이즈 대표가 한남동에 새로 연 바게트 샌드위치 가게. 모든 샌드위치는 식빵 대신 바게트를 사용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댄스댄스댄스'만의 특별한 속 재료는 두부크림치즈다. 일반 크림치즈처럼 꾸덕꾸덕한 맛을 유지하면서 국산 두부와 비정제 원당으로 단맛을 내 느끼하지 않고 고소한 맛이 난다. 제철 과일로 만든 한정 메뉴도 돋보이는데, 3월 중순까지는 '딸기 두부크림치즈 바게트'를 판매한다. 두부크림치즈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딸기가 콕콕 박혀 있어 촉촉하고 상큼하다. 두부크림치즈가 들어간 또 다른 인기 메뉴는 '잠봉 할라피뇨 샌드위치'. 할라피뇨를 버무린 두부크림치즈에 프리미엄 샤르퀴트리 잠봉 햄을 얹어 매콤한 맛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격이다. 모든 메뉴는 주문 즉시 만들어 재료의 신선함이 살아 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67 문의 02-793-7764



3

무궁무진한 팔 디저트의 매력 팔알로

정성을 다해 팔 디저트의 매력을 발산하는 곳. 일본에서 수많은 팔 디저트 전문점을 찾아다니며 팔소를 연구한 '팔티시에' 송민지 대표가 국산 팔으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팔빵과 찹쌀떡은 기본, 랑 모나카·한남 휘낭시에 등 '팔알로'만의 창의적인 메뉴도 눈길을 끈다. 이 중 대표 메뉴는 국산 찹쌀 모나카 안에 국산 팔을 넣은 랑 모나카와 아몬드 사블레 사이에 팔로 만든 생크림 멜을 넣은 팔알로샌드다. 모든 메뉴에서 팔 고유의 구수한 향과 단맛이 짙게 느껴지는데, 여기에는 송 대표의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다. 엄선한 국산 팔 적두, 흰 나래, 흰구슬 세 종류에 토판 천일염을 넣어 팔소를 만드는 것. 메뉴에 따라 맛과 질감도 세심하게 조절한다. 팔에 대한 사랑은 인테리어에서도 드러난다. 팔을 끓이는 동 냄비에서 영감을 받아 매장 문과 기둥을 동으로 만들고, 자주색과 분홍색으로 팔 디저트 전문점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65-3 문의 02-790-1013

4

모양도 먹는 방법도 특이한 케이크 세르클 한남 본점

프랑스 음식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브런치 레스토랑 겸 디저트 카페 '세르클'. 대표 메뉴는 독특한 모양새의 '세르콘'이다. 아이스크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녹지 않는 케이크다. 직접 구운 바닐라 와플 콘에 케이크와 마카롱, 과일 조각을 올렸다. 맛은 총 세 가지. 묵직하고 깊은 맛의 초코 세르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의 레몬 세르콘, 가볍고 달콤새콤한 맛의 베리 세르콘이 있다. 먹는 방법도 독특하다. 접시에 세르콘을 놓고 깨부숴 한입에 맛보면 와플 콘의 진한 버터 향이 진하게 올라오고, 바삭한 식감이 씹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세르콘은 박스 포장도 가능하니, 특별한 기념일에 깜짝 선물해도 좋겠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3-5 문의 070-4121-8035



5 | 매달 다른 맛을 창조하는 아이스크림 바 살리르

수제 아이스크림에 어울리는 술을 추천해 주는 디저트 바 '살리르'에서는 독특한 이름의 메뉴를 선보인다. '체더치즈, 에스프레소, 파인애플, 망고스탄'. 모두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재료다. 낫선 조합에 고개를 가웃했다가 입에 넣는 순간 깜짝 놀란다. 맵고, 시고, 짭 맛이 나는데 신기하게 그 맛이 조화롭다. 11년째 바텐더로 일하며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는 데 탁월한 조동영 대표는 창의적인 메뉴를 내고, 그에 어울리는 술도 척척 페어링한다. 한번 구현한 레시피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조 대표의 철칙. 덕분에 손님들은 매달 다른 맛을 경험한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4길 58-20 문의 070-4177-3312



6 | 귀한 사람을 위한 고급 약과 세트 골든피스

한국 전통 디저트 약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 '골든피스'. 우리말로 아주 귀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금쪽'을 영어로 풀어 가게명을 정했다. 약과 색을 연상시키는 황동색으로 칠한 골든피스 매장은 가야금 연주가 잔잔하게 깔려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난다. 고급스러운 틴 케이스 포장은 세련된 분위기를 배가한다. 기본 약과 세트로는 토끼 약과 세트와 사슴 약과 세트가 있으며, 올해 푸른 뱀의 해를 기념한 푸른 뱀 약과 세트를 출시했다. 여섯 가지 맛이 담긴 각 세트에는 참깨·흑임자·바닐라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녹차·커피·레몬 요거트 등 세트마다 다른 세 가지 맛으로 구성된다. 그중 하나인 개성약과는 조청에 절인 쫄면한 찹쌀 약과와 달리 바삭한 쿠키 같은 식감이 특징이다. 약과에 들어간 재료와 생김새가 궁금하다면 돋보기를 활용하자. 약과를 반으로 가른 듯한 안내 데스크, 약과 모양의 수납장 손잡이 등 약과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인테리어 요소도 곳곳에 숨어 있어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27길 25 문의 0507-1346-7250



7 | 개성 있는 디저트와 칵테일 한 모금 재인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정식당과 유명 디저트 카페 오투튀에서 경력을 쌓은 이재인 파티시에가 운영하는 디저트 바. 피낭시에와 마들렌은 기본,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개성 있는 디저트를 꾸준히 선보이는 곳이다. 커피가 아닌 차나 주류와 함께 즐기도록 바 형태로 운영하는 점도 이색적이다. 대표 메뉴 중 하나인 '해치' 케이크는 들깨, 대추 페이스트, 밤 크림, 현미가 들어가 고소한 맛이 진하다. 또 다른 인기 메뉴 '배 샤를로트'는 수분이 많은 배 조각이 크림과 어우러져 뒷맛이 깔끔하다. 쉽게 맞볼 수 있는 밀푼유도 '재인'에서 만들면 특별하다. 반죽을 누르는 과정 없이 구워 가벼운 식감에도 커스터드와 바닐라의 풍미가 짙게 감돈다. 여기에 레몬 파이 칵테일을 한 모금 곁들이면 달달한 입안이 산뜻하게 마무리된다. 커피와 함께 즐기고 싶다면 제휴한 유포리아 커피로스터스에서 포장한 디저트를 맛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4길 48 문의 02-797-2454



동해선과 중앙선 개통 후
부산으로 통하는 새로운
관문이 된 부전역에
발을 디뎠다. 복작이는
부전시장을 지나 독특한
분위기의 상점이 즐비한
전포카페거리까지,
부전 여행의 정점을 찍을
여섯 곳을 소개한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고
부전역까지 4시간 정도 걸린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신뽕 그림 작가와 곤느 디자이너가 함께 운영하는 소품 숍. 신뽕의 ‘뽕’과 곤느의 ‘느’를 합친 뽕느가 취향대로 수집한 제품과 손수 만든 작품을 포트폴리오처럼 켜켜이 쌓아 두는 곳이다. 두 사람의 감각이 질게 묻어나는 작업 실이자 갤러리 같은 느낌도 든다. 한쪽 벽면에는 전 세계를 다니며 카메라로 담아낸 장면과 직접 그린 그림엽서가 가득 붙어 있어 여행자의 시선이 느껴진다. “낯은 것들의 매력이랄까요. 닳고 변하고, 시간이 그대로 담긴 물건과 사람을 사랑해요.” 신뽕가 수집한 빈티지 컵은 알록달록한 꽃과 과일, 벽돌 문양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찮은 매력을 가진 캐릭터로 인기를 끄는 ‘도대체이게먼지’ 키링은 반짝거리는 눈동자부터 빠죽이거나 무념무상인 입 모양까지 각기 다른 표정을 지녔다. 작가와 디자이너의 취향과 손길이 닿은 물건을 구경하는 동안 미처 몰랐던 나의 취향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뽕느폴리아 갤러리 같은 자체 제작 소품 숍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서전로37번길 26 문의 0507-1314-5461



‘뽕구점’은 ‘뽕주가 구워 주는 제과점’의 줄임말. 뽕주는 문주 대표의 별명이다. 빵을 좋아하지만 면역 질환에 시달리던 문주 대표는 동물성 음식을 끊고 비건 디저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방부제는 물론 달걀, 우유, 버터, 마가린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재료만으로 정성껏 구워 낸 뽕구점 디저트는 원물 고유의 고소한 맛과 식감이 극대화된 것이 특징이다. 그중 코코넛 밀크에 캐슈너트를 넣고 끓여 숙성시킨 ‘뽕치즈케이크’, 쌀가루로 만든 ‘돌몽이 쿠키’는 꾸준히 찾는 메뉴. 두유를 얼린 후 갈아 제철 과일을 얹은 비건 빙수도 인기 메뉴다. 3월 중순까지는 딸기 빙수를, 여름에는 자두·흑임자·옥수수 등으로 다양한 맛을 선보인다. 생활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고자 모든 포장 용기와 일회용품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한다.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동상로 147(서면무전본점) 문의 0507-1365-8981



회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장철원 대표가 고안한 메뉴는 육회 물회. ‘천지를 먹다’에서는 우둔살 대신 소화가 잘되는 부드러운 채끝살을 사용한 육회 물회를 선보인다. 무려 6만 시간에 걸쳐 개발한 물회 국물은 빙초산이나 초장을 쓰지 않고 채수에 부산의 명물 기장 다시마와 멸치, 명지 대파를 넣고 푹 우렸다. 여기에 성게알, 과일 등을 듬뿍 갈아 넣어 만든 고추장을 65시간 저온 숙성시켜 새콤달콤하고 깊은 감칠맛이 난다.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어도 별미다. 신동진 쌀로 지은 밥은 밥알의 탄력감이 오래 지속되어 국물의 은은한 단맛을 끌어올린다. 채 썬 감자와 통통한 새우가 들어간 바삭한 새우감자전도 곁들이 메뉴로 제격이다. 술을 좋아한다면 ‘전통주 샘플러’도 놓치지 말 것. 12도부터 40도까지 장 대표가 선별한 선호도 높은 전통주 여섯 종류를 두 잔씩 제공해 연인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뽕구점 비건 베이커리 지구와 노멀에릴 생각하는 디저트 카페

천지를 먹다 가족에게 대접할 유쾌한 물회 그림



부산에서 느끼는 대만의 맛 '용강찌에'의 우육탕면은 은은한 한방 향이 감도는 맑은 갈비탕에 가깝다. 우육탕면과 쌍두마차 메뉴, 탄탄면은 꾸덕꾸덕한 땅콩 소스가 입안에서 고소하게 맴돌다 맵싸하게 마무리된다. 이곳 직원이 1년 넘게 먹었는데 질리지 않을 정도라니, 중독성은 이미 증명된 셈이다. 새콤한 소스가 별미인 가지튀김은 마지막 한 입까지 바삭하며, 다른 메뉴에 곁들여 먹기 좋다. 매콤한 라장, 시큼한 흑식초, 얼얼한 오향분을 취향에 따라 더하면 현지 맛에 가깝게 즐길 수 있다. 외관부터 대만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용강찌에는 대만에서 공수한 소품과 매장 내에 흐르는 대만 음악까지, 진짜 대만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서면점은 공깃밥이 무료. 밥심이 중요한 사람은 이곳에서 든든히 배를 채우자.

용강찌에

대만을 완벽 재현한 우육탕면 맛집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로 165 문의 @cubby.coffee...



라테 아트 장인이 내려 주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카페. 원래 샵집이었다가 카페로 변모한 '커비커피'는 이국적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이곳에서 꼭 맛봐야 할 메뉴는 카페라테. 바리스타에게 꿈의 대회 중 하나인 월드 라테 아트 배틀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는 조동운 대표의 라테 아트를 직관할 수 있다. 특히 인기가 많은 그림은 빨간 코가 매력적인 루돌프다. 눈으로 즐긴 뒤 한 입 맛보면, 부드러운 거품과 함께 원두의 고소한 맛이 입안에 맴돈다. 커피에 곁들이기 좋은 메뉴로는 커비 푸딩을 추천한다. 커스터드의 진한 풍미와 듬뿍 올린 아이스크림의 달콤함이 기분을 환하게 만든다. 인테리어는 총별로 달리해 유럽의 카페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1층은 패종시계와 원목 가구로 빈티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2층은 시원한 격자무늬 문을 설치해 개방감을 주었다.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2층 창가에 앉으면 창밖으로 부전시장이 한눈에 담긴다.



하루끝

거짓이 없고 행운이 더하느 술집



늦은 저녁, 지친 마음을 달래고 싶다면 '하루끝'으로 향하자. 조도 낮은 공간과 빔 프로젝터 아래 놓인 바 테이블이 금방이라도 취할 것 같은 감성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우삼겹 육전, 에그누들 볶음면, 감바스 등 한식, 중식, 양식 가리지 않고 다양한 요리를 낸다. 그중 이곳에서 꼭 맛봐야 할 메뉴는 '네기도로다'. 다진 참치회를 김이나 감태에 싸서 먹는데,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고추냉이의 알싸한 맛을 김과 감태가 중화해 준다. 여기에 곁들이기 좋은 술도 구비되어 있다. 접시가 비어 갈 때쯤 사장이 건넨 메뉴는 네잎클로버를 올린 아이스크림. 모든 손님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선보인 이 특별한 아이스크림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하루끝을 나서기 전, 고민과 걱정을 종이에 적어 쓰레기통에 훌훌 털어 버리는 것도 잊지 말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행운만 기억되는 하루의 끝이 될 테다.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55번길 43-14 문의 0507-1372-7355

둔감해 보이는 사람의 비밀

예민한 사람이 눈에 쉽게 띄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타인을 위해 예민함을 드러내지 않는 HSP의 정체를 파헤친다.



다양한 논쟁을 빚어낸 MBTI 시대를 거쳐 최근 HSP 검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HSP는 'Highly Sensitive Person'의 약자로 매우 예민한 사람을 가리킨다. 미국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 1990년대 중반에 이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그가 개발한 검사표에 따르면 23개 문항 중 13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HSP 기질일 확률이 높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6퍼센트에 해당하는 이들은 다음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HSP의 첫 번째 특징은 초감각이다. 감각을 처리하는 기관이 모든 자극을 흡수하려고 하기에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특징은 초감정.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의 감정에 깊이 빠져드는 경향을 보인다.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는 능력도 뛰어난

데, 이는 '섬세하다'며 장점으로 여겨지거나 '눈치를 많이 본다'고 단점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드라마 속 인물이 처한 상황에 지나치게 몰입해 긴장감을 유발하는 장면에서 영상을 멈추는 일도 생긴다. 마지막으로 HSP는 아름다움을 보는 안목, 즉 심미안이 뛰어난 편이다. 미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고 창작물을 통해 영감을 자주 얻는다.

그런데 '예민하다'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상대의 표정, 태도, 몸짓 등이 지나치게 공격적일 때 예민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민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타인에게 비난받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 단어가 예민한 행동을 뜻한다면, 심리학에서는 예민한 감각을

가리킨다. HSP는 상황과 상관없이 불만을 표하고 여과 없이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매우 예민한 사람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무뎌 보인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냈다가 상대와 갈등이 생길 경우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 최대한 마음을 숨긴다. 실제로 폴란드 실레시아 대학교 심리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 예민성을 표출하는 것과 HSP는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HSP들은 예상 가능한 모든 충동을 막기 위해 행동 억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계속 억누르다가 타인의 눈에 좀처럼 둔감해 보이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다.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의 저자 최재훈은 HSP가 가진 '순한 곰 페르소나'와 실제 자아 간의 괴리를 꼬집는다. 그는 사람이 영원히 가면을 쓴 채 살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고성능 안테나를 탑재한 이들은 주변 상황을 빠르게 읽고 친구와 가족을 섬세하게 챙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짧은 시간에 지쳐 충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안타까운 일 아닐까. 저자는 HSP에게 자신이 속할 집단과 환경을 신중하게 택한 다음 스스로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조절하라고 충고한다. 또한 과부하가 걸리기 쉬운 신경 체계를 타고난 만큼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충분한 회복 기간 없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계 조절 장애가 생겨 작은 스트레스 요인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 만다. 신경계 조절 장애를 겪었던 <예민해서 힘들 땐 뇌과학>의 저자 린네아 파살리는 감각 유형 목록을 돌로 나눠 작성하기를 권한다. 안도감을 주거나 반대로 괴로움을 주는 감각이 무엇인지 기록하는 동안 자신의 욕구에 귀 기울이라는 뜻이다.

낮선 상황에 적응하려 너무 애쓰다 보면 정체성을 잃고 휘청거리기 쉽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취약점을 지녔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든든한 내 편을 하나 얻는 것이다. 거울에 비친 둘도 없는 친구를 바라보며 이제 무거운 가면들 내려놓을 차례다.

참고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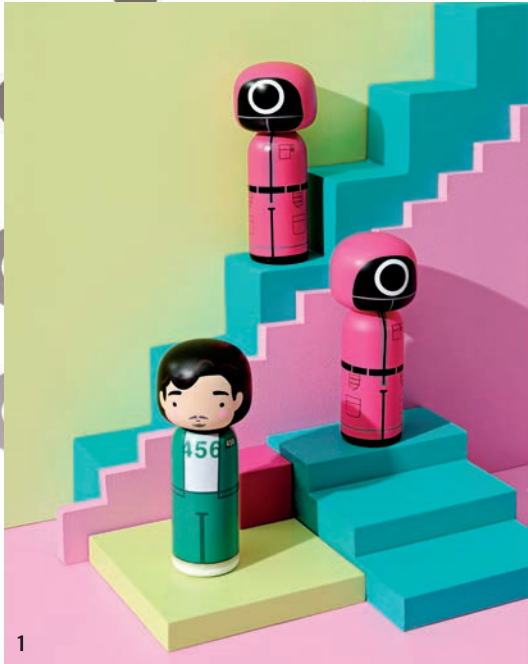
최재훈,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서스테인, 2024)

린네아 파살리, <예민해서 힘들 땐 뇌과학>(현대지성, 2025)

나도 HSP일까?

- ☐ 주위에 있는 미묘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 같다.
- ☐ 다른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 ☐ 통증에 매우 민감하다.
- ☐ 바쁘게 보낸 날은 혼자 있을 만한 장소로 숨어들어가 자극을 진정시켜야 한다.
- ☐ 카페인에 특히 취약하다.
- ☐ 밝은 빛, 강한 냄새, 사이렌 소리 등에 쉽게 피곤해진다.
- ☐ 풍요롭고 복잡한 내면세계를 지녔다.
- ☐ 큰 소리가 불편하다.
- ☐ 미술이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 ☐ 양심적이다.
- ☐ 깜짝깜짝 놀란다.
- ☐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당황한다.
- ☐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안다.
- ☐ 한 번에 많은 것을 요구받으면 짜증이 난다.
- ☐ 실수를 저지르거나 뭔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 폭력적인 영화와 드라마 장면을 애써 외면한다.
- ☐ 주변에서 여러 종류의 일이 일어날 때 긴장한다.
- ☐ 아주 배가 고프면 강한 내부 반응이 일어나 집중이 안 되고 기분이 저하된다.
- ☐ 생활 변화에 동요된다.
- ☐ 섬세하고 미묘한 향기, 맛, 소리,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즐긴다.
- ☐ 소란스럽거나 당황할 만한 상황을 피하려고 자신의 생활을 정돈한다.
- ☐ 경쟁을 해야 하거나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불안하거나 소심해져 평소보다 훨씬 일을 못한다.
- ☐ 어렸을 때 부모님 또는 선생님에게 민감하고 숫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미국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 개발한 검사표. 위 항목 중 13개 이상 해당되면 매우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다.



1



2

브랜드가 된 한국 콘텐츠

<오징어 게임> 시즌 2 공개 전후로 글로벌 브랜드들의 협업 러브 콜이 쏟아졌다. 콘텐츠 마케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한다.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을 새롭게 정의했다. 190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플랫폼 역사상 최대 시청 기록을 갈아 치웠는데, 그 파급효과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한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며 <더 글로리> <지옥> <경성크리처> 등 다양한 히트작을 쏟아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에 자본의 유입을 증가시켰고, 드라마를 넘어 영화·웹툰·음악 등 한국 콘텐츠의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콘텐츠를 모니터를 통해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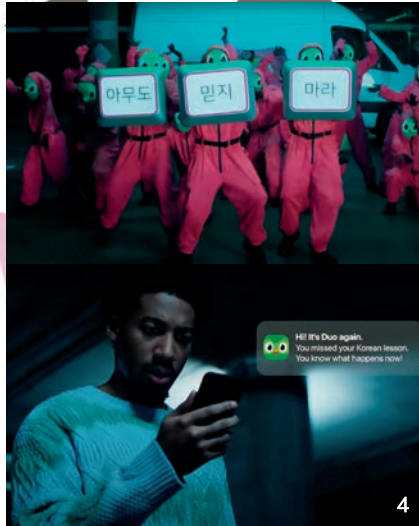
<오징어 게임>에 줄 선 글로벌 브랜드

시즌 1에 이어 3년 만에 돌아온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공개 전부터 글로벌 브랜드들의 러브 콜을 받았다.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넷플릭스 시리

즈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브랜드 협업을 전개하며 한국 콘텐츠의 마케팅적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협업이 이루어지는 경계의 확장과 다양성이다. 브랜드 협업은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 속 간접광고에 머물지 않는다. 패션과 식음료 브랜드들은 뜻밖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우리의 선입견을 깨부순다. 먼저 CJ올리브영은 자체 브랜드 화장품 '브링그린'과 '웨이크메이크'를 통해 <오징어 게임>과 협업한 제품을 국내외에 출시했다. 덴마크 기반의 브랜드 루시카스(Lucie Kaas)는 가정집에 놓아 액운을 쫓는다는 일본 전통 나무 인형인 '고케시'를 선보이는데, <오징어 게임> 시즌 2 공개 시기에 맞춰 영화와 핑크 가드, 게임 참가자를 형상화한 컬렉션을 출시했다. 바비 인형 제작사인 마텔은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늑대 인간, 좀비 등 몬스터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설정하에 니메이션 <몬스터 하이>를 주제로 한 인형 컬렉션에 <오징어 게임> 속 영화를 투입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토트넘은 <오징어 게임> 시



3



1 루시카스의 <오징어 게임> 목각 인형 세트. 2 호주 맥도날드의 <오징어 게임> 세트와 '달고나 캔디 챌린지'. 3 푸마에서 선보인 운동복과 스니커즈. 4 언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와 <오징어 게임>이 협업한 캠페인. 5 <오징어 게임> 속 유니폼 디자인을 접목한 크로크스 컬렉션.

즌 2 공개를 4일 앞두고 열린 홈구장 매치에서 핑크색 조명과 테마송, 핑크 가드가 등장하는 깜짝 이벤트를 선보였다. 콘텐츠와 브랜드 간 협업이 뷰티, 오브제를 넘어 스포츠, 교육, 게임 등 전방위로 확장된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는 한국 콘텐츠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강력한 마케팅 플랫폼이자 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식재산권(IP)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 콘텐츠의 높은 몰입도를 활용해 새로운 소비자 경험을 창출하려는 이유다.

현상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오징어 게임>과 글로벌 브랜드의 협업은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과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브랜드들은 한국 콘텐츠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참여를 이끌어내며, 콘텐츠 제작사와 플랫폼 기업은 브랜드 협업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고 IP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회를 얻는다. 자연스레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다. 넷플릭스 외에 디즈니플러스, 애플 TV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주요 글로벌 OTT 플랫폼도 한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한국 콘텐츠와 글로벌 브랜드의 협업이 더욱 정교화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상은 꽤나 설득력 있어 보인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보여준 협업 방식은 한국 콘텐츠 마케팅 전략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한국 문화를 세계적 트렌드로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상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는 중이다.

스크린 밖으로 나온 <오징어 게임>

아이콘이 된 운동복 푸마, 크로크스

푸마와 크로크스는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들이 입은 운동복을 모티브로 협업 컬렉션을 선보였다. 그린 컬러와 흰 선 디자인을 살린 트랙슈트와 클로그는 한눈에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게 한다. 456, 달고나, 영화 등 <오징어 게임> 시리즈 속 요소들을 깨알같이 차용한 디테일도 팬심을 자극한다.

<오징어 게임>으로 배우는 한국어 듀오링고

한국어를 매개로 한 언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는 한국어 코스에 <오징어 게임> 속 40개 키워드와 구문을 추가한 교육 콘텐츠를 선보였다. K-팝과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의 인기 물이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달고나로 완성한 몰입형 챌린지 호주 맥도날드

호주 맥도날드는 '오징어 게임' 세트 메뉴를 선보였다. 10만 호주 달러가 걸린 '달고나 캔디 챌린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게임을 경험하게 한 것.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출연자가 되어 동그라미, 삼각형, 별, 그리고 맥도날드의 'M' 자 로고가 새겨진 달고나를 깨뜨리지 않고 뽑는 챌린지로 호주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시드니 월드스퀘어에선 실제 <오징어 게임> 속 경기장을 구현해 다양한 체험형 마케팅을 선보였다.

프런트맨 되어 보기 콜 오브 듀티

미국 게임사 액티비전이 프런트맨, 영화, 진행 요원 등 <오징어 게임>을 소재로 한 신규 캐릭터와 특별 아이템, 미니 게임 등을 선보였다. 액티비전이 한국 콘텐츠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징어 게임>에 담긴 '생존과 도전'이라는 키워드는 액티비전이 선보인 게임들의 스토리텔링과 공통분모가 있어 확실한 몰입도를 높인다.



EXHIBITION

〈O'OBJECT 오'오브젝트〉

미메시스아트 뮤지엄이 올해 첫 기획 전시로 네 명의 작가가 각기 다른 사물을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김지원의 맨드라미는 지난 삶을 반추하게 하고, 정정엽의 콩과 팥은 알알이 모여 섬의 형상을 띠고, 홍경택의 필기구와 책은 기호 같은 느낌을, 김영성이 표현한 물고기와 개구리는 극사실적이지만 먼지 하나 없어 무생물 같은 느낌을 준다. 캔버스에 담긴 사물은 익숙하지만 들여다볼수록 낯선 인상을 주어나를 둘러싼 세계를 통찰하는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기간 3월 30일까지 문의 031-955-4100(경기도 파주 미메시스아트뮤지엄)

〈구정아-오도라마 시티〉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에서 선보인 전시 <구정아-오도라마 시티>가 귀국전으로 돌아왔다. 향을 뜻하는 '오도(odor)'와 드라마(drama)의 '라마(-rama)'를 결합한 전시명의 '오도라마'는 향기와 서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구정아 작가와 전시팀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향기에 대한 사연 600여 편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조향한 17가지 향기를 시향할 수 있도록 전시했다. 관객은 향기가 불러오는 기억과 감정을 회상하며 완전히 몰입되는 순간을 경험한다.

기간 3월 23일까지 문의 02-760-4850(서울 아코미술관)

BOOK

〈나의 폴라 일지〉

김금희 작가가 한 달간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체류하며 남긴 기록을 산문집으로 엮었다. 동식물과 극지 연구자들을 만나 자연의 질서를 깨닫는 여정을 그렸다. 작가가 찍은 남극 사진과 광명주 화가의 일러스트를 보는 즐거움도 크다.

김금희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기막히게 좋은 것〉

삶에 무력감을 느끼던 최갑수 작가는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깨닫고 맛있는 밥을 차려 먹으며 즐거움을 되찾았다.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행복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평범한 일상에서 숨은 행복을 발견하는 작은 실천을 제안한다.

최갑수 지음 일문북 펴냄

〈작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정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풀어낸 그림책. 자신만 보면 공포에 떠는 사람을 보고 슬퍼하던 작은 죽음은 어느 날 자신을 환하게 반기는 엘스와이즈를 만났다. 두 사람의 만남은 죽음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키티크라우더 지음 이주희 옮김 논장 펴냄



VIDEO

〈하이트 버드〉

2014년에 발간한 미국 작가 R. J. 팔라시오의 소설을 영화화한 동명의 작품을 상영관에서 만난다. 국내 영화팬을 사로잡은 명작 <원더> 속 줄리안의 또 다른 이야기를 그렸다. 나치 독일군의 눈을 피해 숨어 살던 유대인 소녀 사라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던 소년 줄리안이 위험에 닥친 순간에도 서로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 주며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3월 12일 공개.

감독 마크 포스터 출연 올란도 슈워츠, 아리엘라 글레이저

〈일렉트릭 스테이트〉

스웨덴 작가 시몬 스톨렌하그가 쓴 동명의 SF 아트 북을 영화화한 작품. 인간과 로봇 간의 전쟁 이후 황폐화된 1990년대 미국, 가족을 잃은 10대 소녀 미셀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보낸 로봇 코즈모, 괴짜 밀수업자 키츠와 그의 로봇 친구 허먼을 만나 동생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린다. 영화 <어벤저스: 엔드게임> <그레이 맨> 등으로 유명한 루소 형제가 연출을 맡아 기대를 모은다. 3월 14일 공개.

감독 루소 형제 출연 밀리 바비 브라운, 크리스 프랫 제국넷플릭스

SHOW

〈굿모닝 홍콩〉

홍콩 배우 장국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홍콩으로 추모 여행을 떠났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영웅본색> <천녀유혼> 등 홍콩 영화를 오마주한 장면으로 향수를 자극하며 시대를 관통하는 따뜻한 무대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기간 3월 3일~4월 6일 장소 서울 국립정동극장 세실 문의 02-751-1500

〈꿈의 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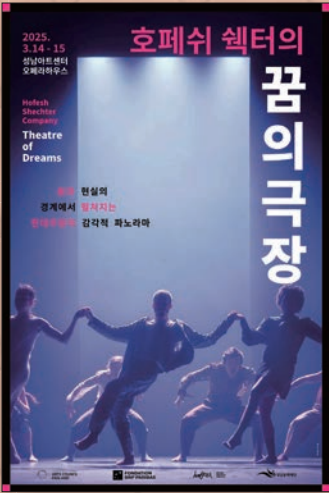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을 맞아 세계적 안무가 호페쉬 쉼터의 최신작을 한국 무대에 처음 올린다. 의식과 무의식, 욕망과 억압 사이에서 인간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냈다. 쉼터의 역동적인 안무와 강렬한 조명이 만나 무용수의 움직임이 생동감 넘친다.

기간 3월 14일~15일 장소 경기도 성남아트센터 문의 031-783-8000

〈그루브 in 판소리〉

국악과 재즈가 만나 특별한 조화를 이루는 무대가 펼쳐진다. 국악 신동으로 알려진 젊은 소리꾼 유태평양과 국내 최정상 재즈 연주자들이 모인 한웅원 밴드가 함께한다. 판소리 <심청가>의 '화초타령' '새타령' 등에 리듬감 넘치는 재즈 연주가 더해져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

일시 3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의 1899-5566



•Information•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 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8회 철도사진공모전 동상 '뒤집어도 33호' © 허광민



KTX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KTX-청룡 누적 이용객 90만 명 돌파



지난해 5월 운행을 시작한 KTX-청룡은 하루 평균 약 2000명이 이용했으며, 승차율은 약 91퍼센트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KTX 평균 승차율보다 25퍼센트 이상 높은 수치다. KTX-청룡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급행고속열차로, 최고 속도 시속 320킬로미터를 자랑한다. KTX-산천보다 좌석 공간과 객실 통로를 넓히고 디지털 기기 사용 편의를 높였다.

모바일 레일플러스와 K-패스 연결해 교통비 환급



한국철도공사가 전국 호환 교통 카드 모바일 레일플러스에 K-패스를 연결해 교통비를 돌려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korea-pass.kr)에 카드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에게 교통비 일부를 최대 60회분까지 적립해 다음 달 충전 쿠폰으로 환급해 준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재개장 후 이용객 증가



지난해 12월 다시 문을 연 경기도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누적 이용객이 40일 만에 3500명을 넘었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인천국제공항 출발 편 대상으로 대한항공, 티웨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이용객에게 국제선 탑승 수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항공 이용객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용 출입문을 통해 빠르게 출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철도역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



한국철도공사는 전국 158개 철도역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 운영한다고 밝혔다. KTX 정차 역과 50면 이상 주차 공간을 갖춘 경기도 광명역, 부산역 등 138개 역에 충전기 408개를 설치했다. 광주송정역, 강원도 원주역 등 20개 역에 설치한 87개는 교체하거나 개선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은 열차 이용자가 아니어도 사용 가능하다.

제 16 회 철도 사진 공모전

창립20주년 기념, 내가 바라본 철도의 아름다움

1.27. ~ 4.7.



제15회 철도 사진공모전 수상작

· 공모주제

창립20주년 기념, 내가 바라본 철도의 아름다움

· 시상내역

금 상(1점) : 사장표창 및 300만원
은 상(2점) : 사장표창 및 200만원
동 상(3점) : 사장표창 및 100만원
특별상(5점) : 40만원
입 선(20점) : 20만원

* 특별상은 접수된 사진에 따라 수상 작품수 변동 가능

· 접수기간 및 발표 일정

접수 : 2025.1.27.(월) ~ 2025.4.7.(월) 18:00
발표 : 2025.05.19.(월)

· 접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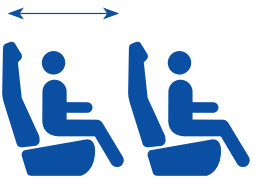
디지털 사진으로 1인 3점 이내 미발표작
온라인 이메일 접수(hwansoo79@korail.com)

* 파일용량은 3MB이상, (3000 · 2000)Pixel 이상의 촬영정보(EXIF)가 포함된 JPG(JPEG)

* 자세한 사항은 공모요강 참조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KTX 930mm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식음료 Refreshment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KTX 1120mm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 와 KTX-산천 4·14호차 에 있습니다.	단행본은 KTX 4호차 와 KTX-산천 3·13호차 , 잡지·신문은 KTX 3·5호차 와 KTX-산천 3·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 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의약품 First-Aid Medicine	금연 No Smoking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 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 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3·4호차, KTX-청룡 2·3·5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6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이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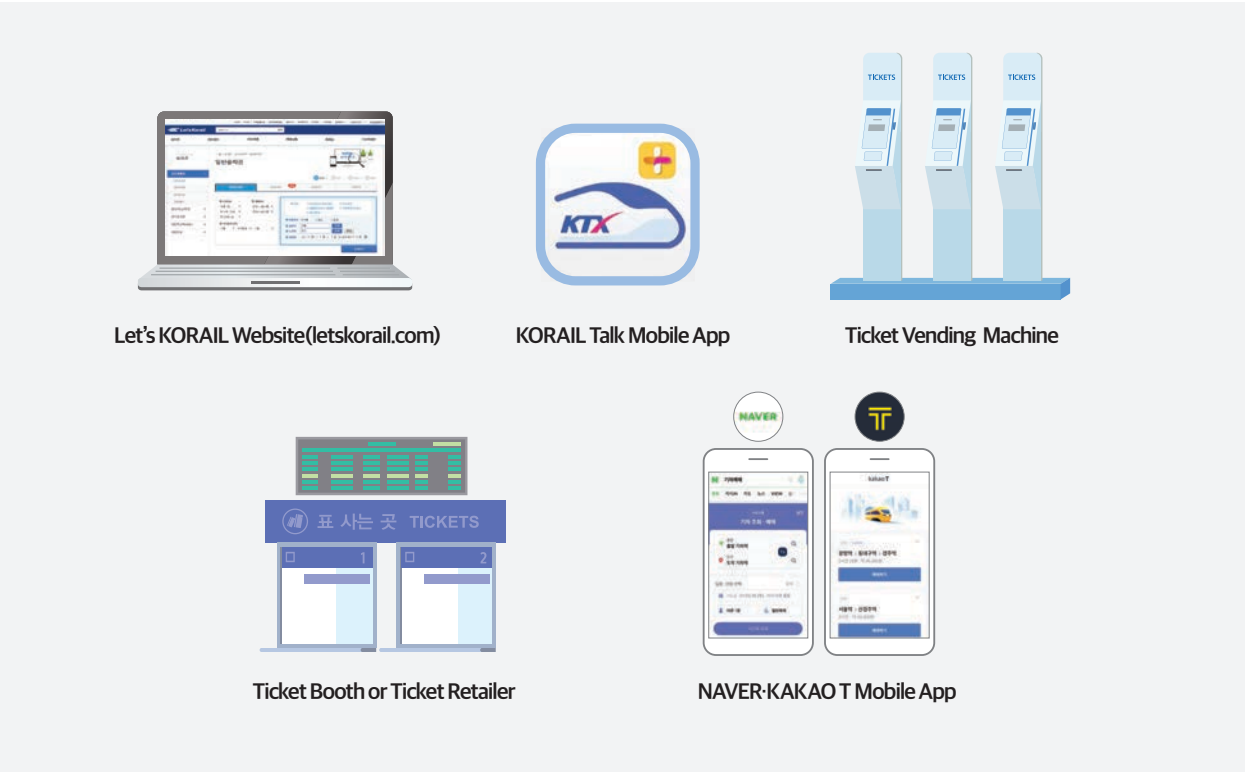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기한	출발 전		기한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개월~출발 1일 전	무료	400원 (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20분까지	15%
당일~ 출발 3시간 전	무료	5%	20분 경과 후~ 60분	40%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5%	10%	60분 경과 후~ 도착	70%
			도착 시각 이후	환불 불가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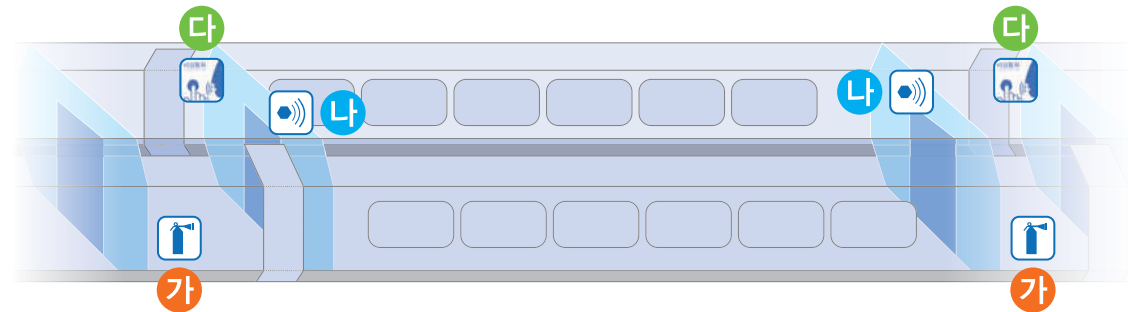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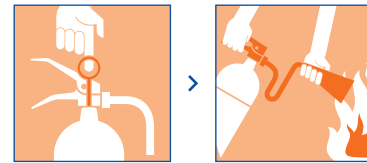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Mon-Thu	Fri-Sun, holidays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Free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Up to 20 minutes	15%
Day of departure- 3 hours prior to departure	Free	5%	20-60 minutes	40%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5%	10%	60 minutes-arrival time	70%
			After arrival time	No refund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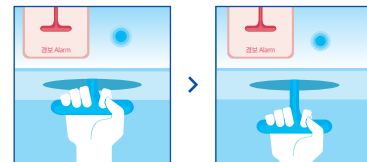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소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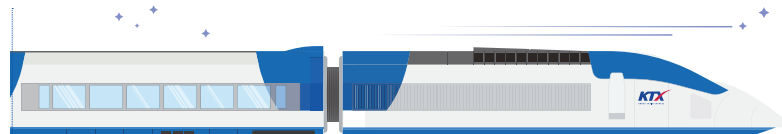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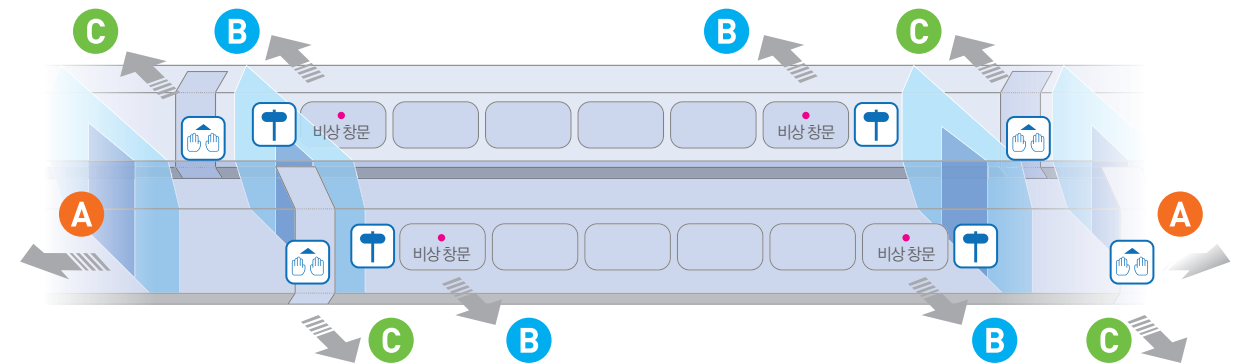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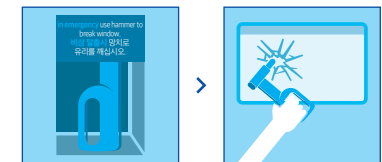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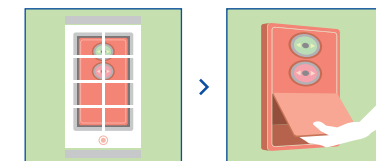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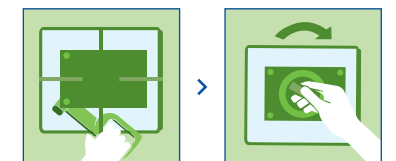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나상현씨밴드와 떠나는 음악 여행

세잎클로버처럼 일상에 잔잔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나상현씨밴드의 세 멤버가 기차 안에서 흥을 돋을 노래를 추천한다.



나상현씨밴드

나상현(보컬·기타), 백승렬(베이스), 강현웅(드럼)으로 구성된 밴드. 2014년 음니버스 앨범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에 '늦은 새벽'으로 참여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멤버 나상현이 작곡과 작사를 맡아 시대를 타지 않는 음악을 선보인다. 심화 과정 콘셉트로 공연을 열어 수강생 팬들과 색다른 추억을 쌓는다. 대표곡으로 '각자의 밤' '찬란' 등이 있다.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나상현씨밴드의 플레이리스트

1 CLOVER 나상현씨밴드

이 곡은 저희가 지금껏 걸어온 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각자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그려 보길 바랍니다.

2 Homecoming 공공카펫

여행을 떠날 땐 설렘을 고조시킬 음악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채워요. 최근 제 기분을 책임지는 노래 중 하나인데, 가사가 예쁘고 사운드가 담백해요.

3 Besties 블랙 컨트리, 뉴 로드

1960년대 영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예요. 집중해서 감상하면 영화 속 등장인물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답니다.

4 Gemini and Leo 헬라도 네그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비트, 부드러운 음색, 재밌는 리듬의 신스와 퍼커션이 인상적이지요. 한 곡 안에 다채로운 요소가 이토록 가득해요.

5 Autobahn 크라프트베르크

크라프트베르크가 상상한 미래적인 사운드를 좋아합니다. 길이가 20분이 넘고, 오프닝곡으로 어울리니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때 들어보세요.

6 Don't Talk About Jody 진 나이트

KTX에 타면 이상하게 핑크장르가 끌려요. 기차 소리의 규칙적인 리듬감 때문일까요. 기타 연주와 이를 감싸는 코러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음악입니다.



음악 듣기

©재능아카데미, 빅스, 유튜버브로마지

